

# 직업교육의 선진화 방안

시 간	행 사 일 정
13:00~13:30	등 록
사회: 김 덕 기(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3:30~13:50	인사말씀 및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 대 봉(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li> <li>■ 윤 인 경(한국직업교육학회장)</li> <li>■ 이 주 호(교육과학기술부 차관)</li> </ul>
13:50~14:20	기조강연: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계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태 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li> </ul>
14:20~14:30	Coffee Break
사회: 박동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4:30~15:10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 안성로(신구대학 교수)</li> <li>■ 토론1: 최경규(엑스퍼트 컨설팅 대표컨설턴트)</li> <li>■ 토론2: 전효중(대한전문건설협회 연구원)</li> </ul>
15:10~15:50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전문계고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 이병욱(충남대학교 교수)</li> <li>■ 토론1: 강연홍(서울시교육청 장학관)</li> <li>■ 토론2: 송달용(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li> </ul>
15:50~16:00	Coffee Break
16:00~16:40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 김성태(명지전문대학 교수)</li> <li>■ 토론1: 김종갑(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li> <li>■ 토론2: 윤병우(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팀장)</li> </ul>
16:40~17:20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 정운경·김나라(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li> <li>■ 토론1: 한상국(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li> <li>■ 토론2: 김선호(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장)</li> </ul>
좌장: 이용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17:20~18:00	종 합 토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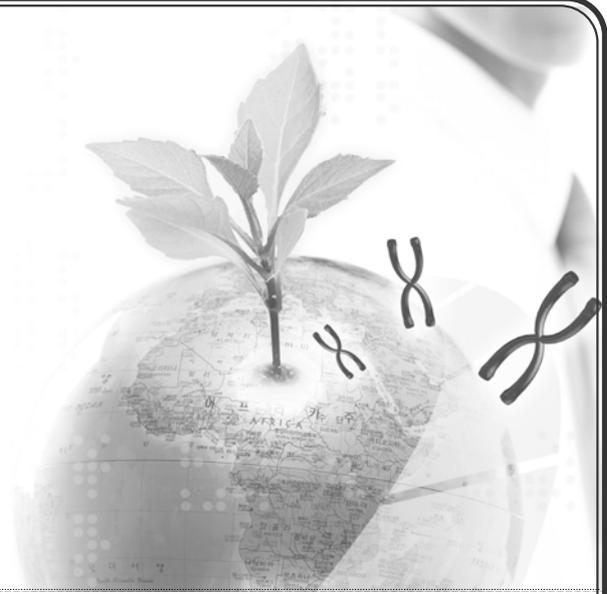


# 직업교육의 선진화 방안

## 목 차

- 기초강연 ..... 1
  -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계 구축 방안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주제발표 I ..... 19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발 표: 안성로(신구대학 교수)  
토론1: 최경규(엑스퍼트 컨설팅 대표컨설턴트)  
토론2: 전효중(대한전문건설협회 연구원)
  
- 주제발표 II ..... 53
  - 전문계고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발 표: 이병욱(충남대학교 교수)  
토론1: 강연홍(서울시교육청 장학관)  
토론2: 송달용(여주자연농업고등학교 교감)
  
- 주제발표 III ..... 97
  -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방안 모색  
발 표: 김성태(명지전문대학 교수)  
토론1: 김종갑(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  
토론2: 윤병우(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팀장)
  
- 주제발표 IV ..... 119
  -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  
발 표: 정윤경·김나라(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1: 한상국(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토론2: 김선호(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장)





[ 기조강연 ]

##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계 구축 방안

- 정태화·장명희·김철희·박동열·김현수·허영준·최동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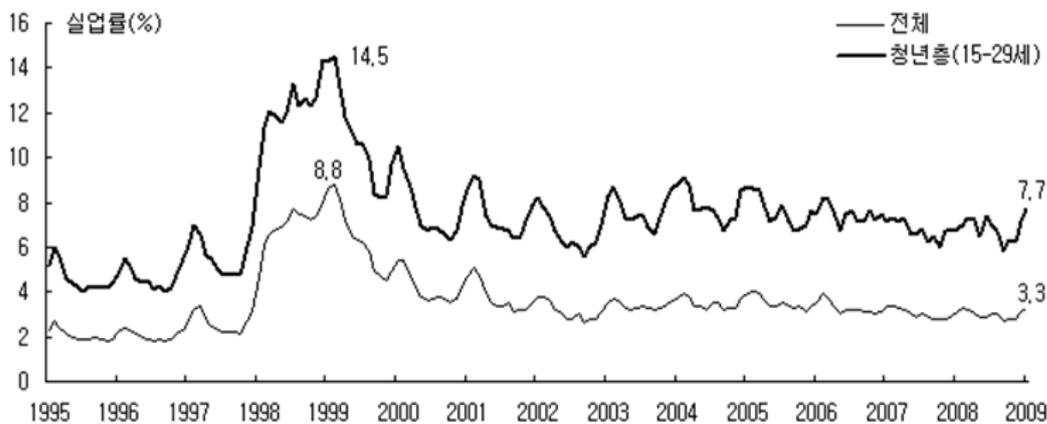
#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계 구축 방안

정태화·장명희·김철희·박동열·김현수·허영준·최동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FT

## I.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1) : 청년층 노동시장

-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하향 취업, 높은 청년실업으로 인한 개인적·국가적 손실 초래
  - 고학력화 속에서 청년층의 실업률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아 사회적 문제 야기 : ‘청년 백수 100만명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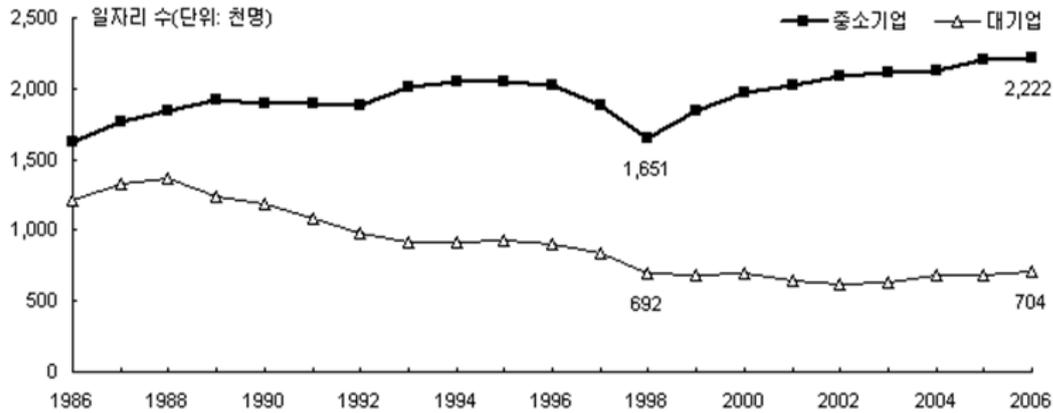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그림 1] 실업률 변화 추이

- ‘대학의 닷’에 걸린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 및 역류입학 증가
  - ※ 하향취업 : 환경미화원 시험에 고학력자 상당수 응시('09)  
(광주 북구 55%, 서울 강서구 37%)
  - ※ 역류 입학 :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과정 정원(6천명) 대비 전문대학졸 이상 입학자 비율 증가('06년 37.1% → '08년 41.6%)

□ 중소기업은 구인난 직면 → 사회 전반의 인력수급 체제 재구조화 필요

- 과도한 대학진학은 눈높이를 높여 ‘일자리 미스매칭’ 유발 : 구직난 속의 구인난
  - ※ 중소기업 일자리는 '97년 189만개에서 '06년 220만개로 늘었으나, 인력난 호소 (조선일보, '09.01.28)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통계청

[그림 2] 중소기업 및 대기업 일자리 규모 변화 추이

-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 중 기술·기능직 부족률 6.58%로 최고

<표 1>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부족률

구분	전체	사무 관리직	전문가	기술·기능직	단순 노무직	서비스 종사자	판매 관리직
부족률(%)	2.68	0.72	4.33	6.58	2.98	1.72	2.18

자료: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008년, 중소기업청

## 2. 현황(2) : 학생의 진로경로

□ 일반교육 및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교육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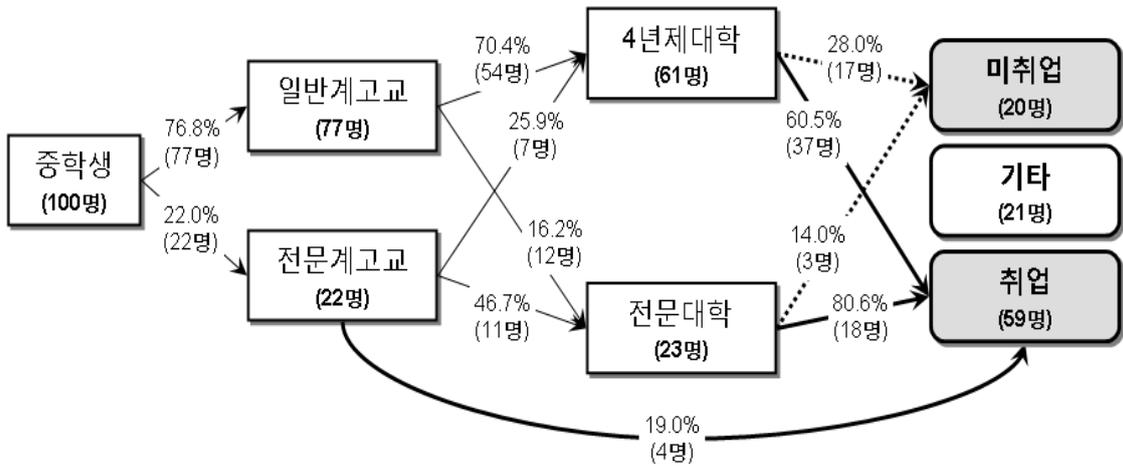
-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입 이전까지의 교육경로는 일반교육 또는 고등교육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함
  - ※ 중학교 졸업 후 일반고와 전문고로 진학하는 비율
    - : '95년 59.4%(일반고) : 38.4%(전문고) → '08년 76.8% : 22.0%
  -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과 취업의 비율
    - : '95년 51.4%(진학) : 33.6%(취업) → '08년 83.8% : 5.8%

<표 2>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

구 분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전문대	4년제
졸업자(명)	690,438	423,513	158,408	207,741	282,670
진학(%)	99.7 일반고 76.8 전문고 22.0 기 타 0.9	87.9 전문대 16.2 4년제 70.4 기 타 1.3	72.9 전문대 46.7 4년제 25.9 기 타 0.3	3.9	9.6
취업(%)	0.01	0.8	19.0	80.6	60.5
군입대(%)	-	0.1	0.6	1.4	1.9
무직+미상(%)	0.3	11.3	7.6	14.0	28.0

주 : 진로경로별 비율은 전체 졸업자 대비 비율이며, 상급학교 유형별 진학률은 전체 진학자 대비 비율임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8, 한국교육개발원

- ➔ 일반교육 및 대학교육 중심의 교육경로로 인하여 고교 단계에서의 노동시장 진입 규모는 제한적임에 비하여 대학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에 집중, 높은 실업률 등의 부작용 초래
- 현재의 학교단계별 졸업 후 진로 현황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중졸생 100명 중 전문고 졸업후 취업자는 4명에 불과
- 한편, 중졸생 100명 중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고등교육 졸업후 미취업



주: 1) 학교급간 경로에서의 비율은 해당 단계의 진학 및 취업률임. 예를 들어 중학생→전문계고교의 22.0%는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전문고로 입학한 비율임.  
 2) 학교급간 경로에서의 괄호(인원수)는 학교급간 진학 및 취업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100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각각의 교육경로를 어느 정도 이동하는지를 가정한 값임. 이 자료는 종단자료가 아닌 '08년 기준의 진학 및 취업률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교육통계연보, 2008,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3] 학생의 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

### 3. 주요 문제점

#### 가. 형식적인 진로교육과 진로변경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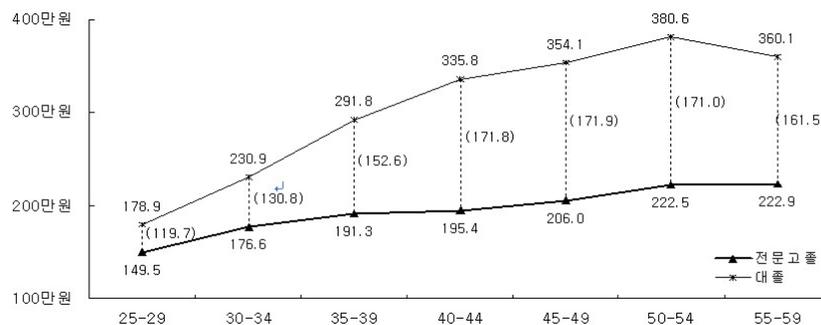
##### □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미흡

- 직업생활체험 프로그램 참여율(중2~고3년) : 3.0~7.0%로 저조  
(한국청소년패널, '03~'07)
- 중·고교생의 직업세계에 대한 인지 수준은 직무요건이나 능력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을 뿐, 임금수준, 해당 분야 성공인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낮음(한국고용정보원, 2008)

#### 나. 학력간 임금격차로 인한 직업교육 확대

##### □ 전문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격차 심화

- 전문고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는 현상
  - ※ 25~29세에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전문고 졸업자의 1.2배 → 40세 이후에는 1.7배로 격차 확대
- 능력이 아닌 학력에 따른 임금구조가 전문고에 입학하려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나 전문고 졸업예정자에게 직업교육 경로가 아닌 일반교육이나 고등교육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 고졸 취업시, 평균 월 수입 100만원 정도(한국고용패널조사, 2007)로 기업 내 낮은 처우(보수, 근무조건 등)와 인식 때문에 기능인의 진로선택보다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도 강함



주: 괄호는 전문고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의미함

자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7,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4] 연령별·학력별 월평균 임금 격차

#### 다. 기업의 균필자 선호로 전문계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 □ 기업의 균필자 선호로 전문고 졸업생 취업 기회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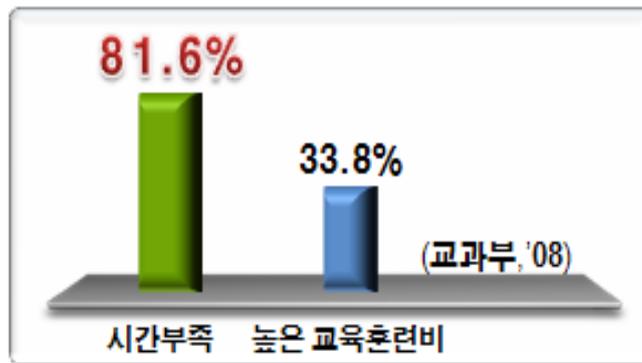
- 기업 인사담당자의 전문고생의 취업 장애요인에 관한 인식  
 ※ 군복무 문제(33.9%), 기능 수준 미흡(32.1%)의 순서



라. 재직 근로자를 위한 계속 교육기회 부족

□ 계속 교육기회 부족 심화

- 근로자는 시간 부족(81.6%), 높은 교육훈련 비용(33.8%) 등으로 참여 저조



□ 대학 주관의 인생 3모작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부족

- 고등교육기관은 고졸 입학생 대상의 교육에 관심 치중,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교육에는 무관심  
 ※ 직업능력개발에서의 근로자 범위 :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 경제 불황 상황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유도 부족으로 활성화 미흡  
 ※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으나, 실제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저조  
 <표 3> 참여 교육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교육훈련기관 (단위 : %)

구분	사내 훈련	기업 부설기관	산업교육전 문기관	대학	민간훈련 기관	공공훈련 기관	기타
'05년 훈련받은 기관	24.2	10.0	11.2	3.3	17.1	6.6	27.5
희망 훈련기관	11.6	8.2	18.2	18.6	15.3	21.1	7.1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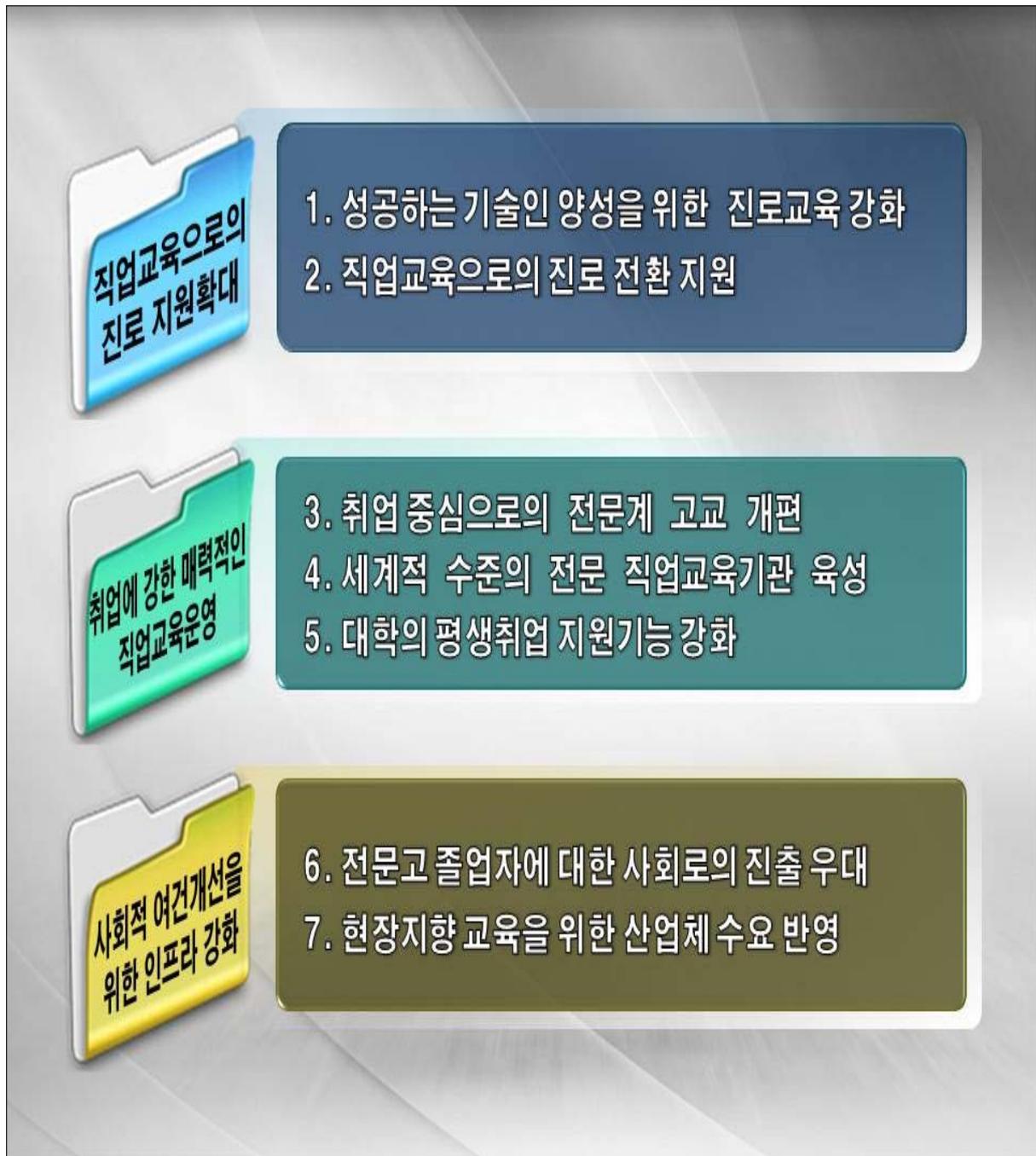
- 일부 부처는 대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직자 대상의 프로그램은 미흡
- 노동부의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 : 43개 대학(폴리텍대학 포함), 재직근로자 중심
  - ※ 70개 기관 450억원('06년) → 69개 기관 556.9억원('07년) → 80개 기관 774.9억원('08년)
  -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에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 모형 신규 도입('08년)
- 교과부의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 7개 대학('08년 7억원 지원), 지역 주민 대상

## II. 비 전



### Ⅲ. 제 안

[ 3대 제안 - 7대 과제 ]



# 1 직업교육으로의 진로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 과제 1.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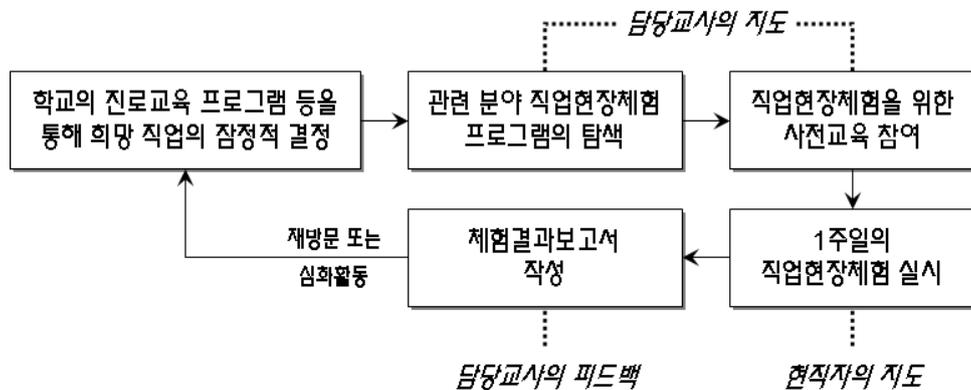
- 서울여상은 주기적인 학부모·학생 대상의 진로교육 강화로 취업희망자 증가
- ※ 취업희망자('07년 입학생) : 8%(1학년)→70%(2학년)→70%(3학년)
- ※ '08년도에도 취업률 64% 달성 (전국 상업계 평균 취업률 25.8%)

#### □ 초·중·고교생의 직업체험 강화

- 1단계 : 쌍방향 간접체험 시스템(인터넷, 전문가, IPTV 등) 운영
- 2단계 : 학생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는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프로그램 실시
  - 단기적으로 직종별 또는 업종별 현직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 주요 직업군 또는 산업군별 단체를 중심으로 현장직업체험 지원단 육성
  -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계 고교 및 직업훈련기관의 실험·실습기자재를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 ※ IPTV, 인터넷 등을 활용한 쌍방향 직업체험 및 멘토링 시스템으로 발전
  - 중장기적으로 학생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직자의 지도하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프로그램을 청소년 진로교육의 핵심 수단으로 강화

#### ※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이란?

- 학습자가 1일 이상 동안 특정 회사 종사자를 따라다니면서 특정한 직업이나 산업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진로탐색 활동
- 미국의 Job Shadowing을 주도하는 Junior Achievement Worldwide는 산업현장 방문에서 종료까지 현장조정자(site coordinator) 및 학교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사항을 가이드 라인으로 개발·제공



[그림 5]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프로그램 운영 절차

- SC, 직종별 협회 및 단체, 개별 기업 등의 사업체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 주체 육성
  - ※ 개발된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총괄 관리함과 동시에, 단위 학교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 동시에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2011년 개관 예정) 및 지역 고용지원센터 적극 활용

□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 중학교 : 진로교육 지원, 전문고 : 취업지원을 위한 멘토링
- SC 주도의 ‘1社 1校 산학협력 체결’ 추진 : 참여 산업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검토
  - ※ 상장사 1,799여개 vs. 전문계 고교 697개교, 전문대학 147개교('08.12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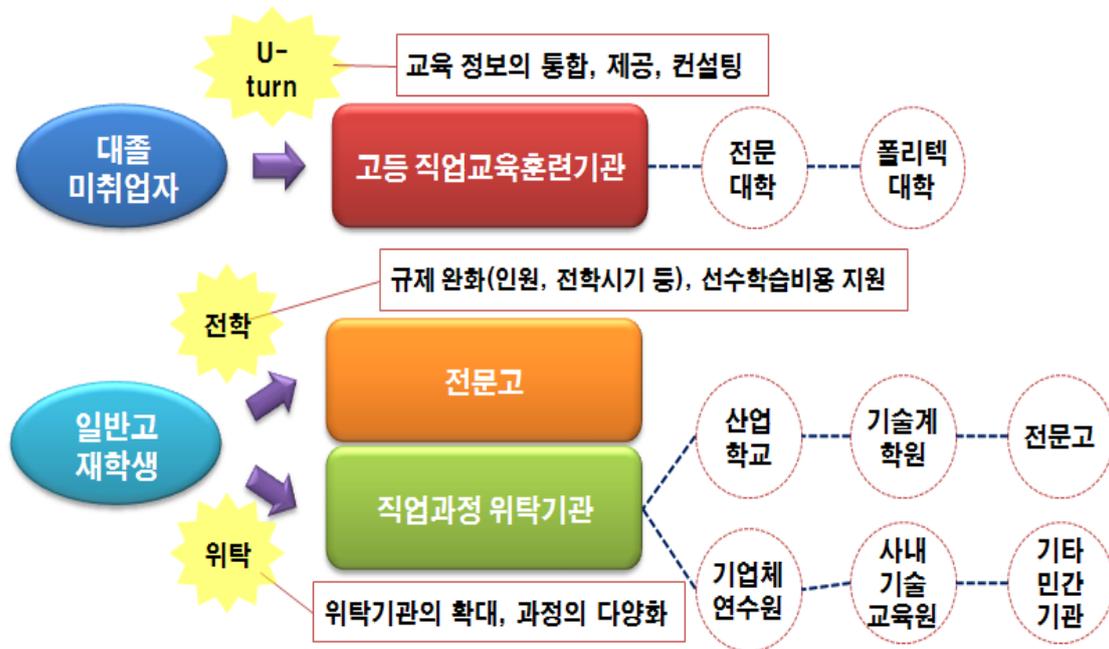
□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직업 친화적인 교육과정 구축

- 물건 만들기, 시장조사 분석 등의 프로젝트형 학습을 학교 재량 교과로 운영
- 일상생활 속의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 형태의 직업교육과정 도입
  - ※ 예) 아이디어→기획→스케치→설문·분석→디자인→제품구현→특허 출원
  - ※ 일본의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 교육 : 초등학교(직접 만들기)→중학교(공장 체험, 실험)→고교(인턴십, 기술교육)→대학(기업체 조사 및 산학협력)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 진로교육 중심의 경제교육 강화
- 실과(초), 기술·가정(중·고) 등 정규 교과목을 대체하는 ‘자율 교과’로 인정

## 과제 2.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 우수사례

- 아현산업정보학교(직업과정 위탁기관) : “영어, 수학 댓고 내 꿈 찾았습니다.”
- ※ 실용음악과 경쟁률 3:1 (휘성, 버블시스터즈, 박효신 등 유명 가수 배출)
- ※ 분야 : 산업, 디자인, 서비스, 생활예술 계열



[그림 6] 직업교육으로의 진로 전환 지원 확대 방안

- 일반고 학생이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 2학년 1학기까지로 제한된 전학시기 등 규제를 완화
    - ※ 전학에 필요한 전문교과 보충학습은 교육청 등에서 지원
  - 직업과정 위탁기관 확대
    - ※ 시도별 1~2개의 우수 위탁기관 지정·운영
  -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다양한 민간기관(기업체 연수원, 사내기술교육원 등)까지 확대
  - 장기 위탁과정 운영
    - ※ 기술계 학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기업체 연수원, 컨설팅 업체 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경쟁 체제 운영
    - ※ 일반계 고교의 무직 비율(44,417명, 10.5%)보다 전문계 고교의 무직 비율(9,804명, 6.2%)이 낮아 일반계 고교생의 직업교육 강화 필요(교육통계연보, 2008)
  - 민간이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시 정규 수업으로 인정
    - 방학 및 방과후 시간에 민간이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결과의 인정
      - ※ 교육청이 평가·인증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정규학습과정 이수로 인정
      - ※ 일본 문부과학성의 기능심사인정제도 : 학교 밖에서 수행한 학습(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운영 강화
- 대졸 미취업자의 직업교육기관 재입학 지원 : 정보제공, 컨설팅 등

## 2 취업에 강한 매력적인 직업교육을 운영해야 합니다.

### 과제 3. 취업 중심으로의 전문계 고교 개편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 등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탈규제화 추진
    - ※ 무학년제, 학점제, 조기졸업제 등 도입
  
- ‘산업체 협약 학교’ 도입
  - 공립 전문계고의 운영을 산업체 등에 전면 위탁
    - ※ 예 : 화장품회사, 자동차회사 등
    - ※ 운영 예산은 산업체(10%)와 교육청(90%)이 분담
  
- 유망 분야로의 학과 개편
  - 녹색기술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중심으로 학과 개편 지원
    - ※ 로봇산업장비관리과 등

### 과제 4. 세계적 수준의 전문 직업교육기관 육성

#### 우수사례

- 영진전문대학 : 하이닉스반도체와 주문식 협약을 통해 국제수준 반도체 인력 양성, 일·중·미 등에 약 300명 취업 협약('08년)
- 서울관광고 : 말레이시아 리조트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 종료 후 취업 연계
  - ※ '08년 프로그램 참여 10명 중 8명이 해외에서 인턴십 수료 후 취업 예정

- ‘해외취업중점 전문대학’(GHC: Global Hub College) 육성 사업
  - 외국 소재 한국 기업체와의 주문식 교육을 통해 필요 인력 양성·공급 가능분야
- ①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 기업의 판매 및 정비업 종사 인력 공급
  - ※ 한국 중고자동차 수출 : 연간 22만대(한국무역협회, '08.4.)
- ② 외국소재 한국 식당의 조리 전문가 공급 →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
  - 외국인 유학생 전문대학 입학 확대 → 귀국 후 한국 기업체 근무와의 연계
    - ※ 일본 아시아태평양대학(APU) 사례 : 우수한 외국 유학생을 입학시켜, 일부 학생은 일본에서 취업하고 일부 학생은 졸업 후 해당 국가로 귀국하도록 유도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구

축 목적으로 운영

-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및 동남아 국가에 직업교육 수출 촉진
- ※ 카자흐스탄 국가자격제도 컨설팅 사업 수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6-'08년)

□ ‘명문 직업아카데미’ 인증 및 이수결과 학력 인정

※ 국내 명문 직업학교

- SADI(삼성디자인학원), 초록뱀 sa 액팅 스쿨(작가·연기자 양성), SM 아카데미(가수·연기자·작곡가 양성), BIT 학원(IT전문가 양성)

※ 해외 명문 직업학교 사례

- 프랑스 : 루앙 국립제과제빵학교, 카파 포르마시옹(소믈리에 양성)
- 미 국 : 요리학교(CIA), 필름 아카데미, 시카고 바이올린 제작학교
- 기타 스위스 호텔 매니지먼트 스쿨, 네덜란드 그린 비즈니스 스쿨

- 요리, 예술, 패션·디자인, IT분야 기술계 학원 등 우수기관 집중 육성(분야별 1~2개)
- 명문 직업아카데미의 주체, 교육과정 및 운영방식은 100% 기관 자율로 결정
- 정부는 최소한의 이행협약을 통해 질 관리하고, 교육과정 이수를 결과를 학력으로 인정

## 과제 5. 대학의 성인 직업교육 훈련 기능 확대

### 우수사례

- 숙명여대, 울산대('09년) : 퇴직자 쏟아지는데 대학이 뒷짐만 질 수 없어, 재직 근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숙명여대 : 미취업자를 위해 ‘학사 후 과정’ 개설
- ※ 울산대 : 실직자의 재취업 능력개발을 위해 39개 강좌 개방 '08년 프로그램 참여 10명 중 8명이 해외에서 인턴십 수료 후 취업 예정

□ 취업자 전형 등을 통한 대학의 계속교육(Reschooling) 기능 확대

- ‘근로경험 평가·인정제’ 도입을 통한 전문대학에 1년제 집중 학위 과정 개설
- 근로경험을 학점 또는 자격과 연계하는 ‘개인별 근로경험 평가·인정체제’를 도입하여 계속교육에 대한 시간적·재정적 부담 경감
- ※ 호주 : 산업체가 ANTA(Australian National Training Authority)의 등록 훈련기관으로 인정 받으면, 자체적으로 내·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근로자의 핵심역량을 다양한 방식(증거 포트폴리오, 인터뷰, 관찰)으로 평가하고 자격 수여
- ※ 1년 3학기제, 1년 집중이수제 등 학제운영의 자율화
- 군-대학 연계를 통한 군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대학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 재직자 전직훈련, 실업자 재취업 훈련 등 적극 지원
    - ※ 노동부 재정지원시 평가기준 마련
    - ※ 신성장 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프로그램 중점 운영
    - ※ 성인의 직업능력개발(재취업, 직업전환)의 장애요인 해소 및 취업, 전직 등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병행
  - 재정지원 대상 기관의 연차별 성과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우수 프로그램 유지
    - ※ 노동부 주관으로 우수대학(BETU : Best Employees Training University) 선정후 전국적으로 보급
    - ※ 성과평가 체제의 확립 및 차등지원 강화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 훈련기관·과정은 우대하고, 부실훈련기관은 시장에서 퇴출
    - ※ 대학의 프로그램 개설·운영 실적을 대학평가에 반영 추진
  - 행정 요건 완화 : 시설·설비 기준, 예산 집행 규정 등

### 3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 과제 6. 전문계고 졸업자에 대한 사회로의 진출 우대

- 능력위주 인사관리 산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체의 능력 기반 채용과 승진제도 도입 유도
  - 우수 산업체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전문계고 및 전문대졸자의 기능분야 국가공무원 추천채용제 확대
  - 전문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
  -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확산
  - 경기도교육청 사례
    - ※ 특별채용 실시('06년) → 7명 임용('07년) → 경기도교육청훈령 제213호 제정('08.11.7) → 시행('09.7.1)
    -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7호)  
: 제26조의 4 개정을 통한 기능인재(전문계 고교, 전문대학)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
-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신중 재검토
  - '12년 폐지 예정인 동 제도의 유지 검토 필요

## 과제 7. 현장 지향 교육을 위한 산업체 수요 반영

□ 산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직무능력표준(KSS) 개발·운영 활성화

※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 Standards)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 Sector Council) 지원 확대

○ 협의체 신설 확대 : 신성장 선도산업, 녹색성장산업 및 서비스 산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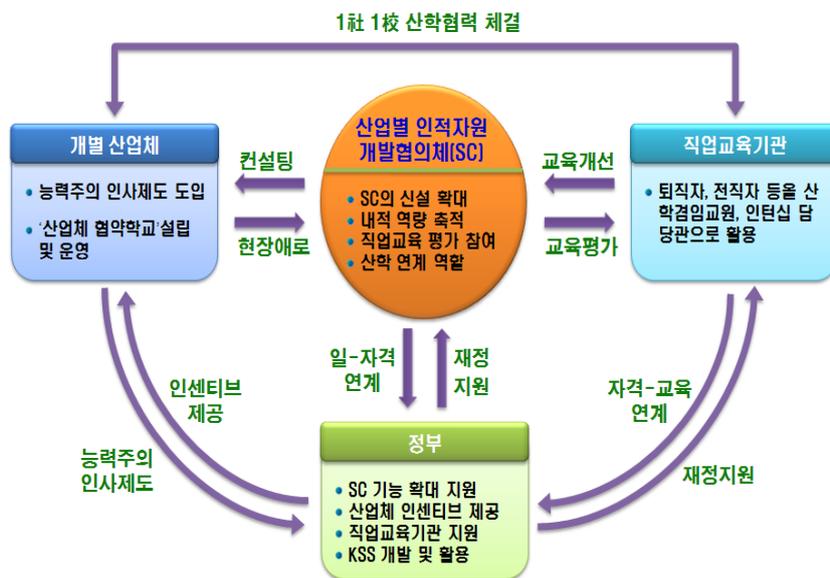
※ 현행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09년 현재) :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조선, 철강, e-biz 등 11개 분야에 설치

○ SC의 전문 역량 축적 및 안정적 예산 지원

-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제공

: 민간 전문기관이 담당, 동 기관은 SC의 역할 수행 평가 및 자문도 수행

※ 「산업발전법」(제12조) 조항 개정을 통해 SC의 역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관 설립



[그림 7] 직업교육훈련에서 산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 지역 직업 교육훈련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제거

○ 노동부(노동청), 지경부(중소기업청), 교과부(교육청) 산하 지역행정 조직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 및 각종 협의회 일원화

※ 평생교육법, 산업발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의 관련 조항 개정

- ※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인적자원개발기본법), 지역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법), 지방고용심의회(고용정책기본법) 등의 유사 중복 기구 일원화
- 예산지원과 권한 확대를 통해 지자체장이 해당지역 소재 평생교육기관, 지방 노동사무소(고용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학간의 협력체제 구축 지원
- ※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정책과 연계하여 13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RHRD 센터가 지역의 허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본 안건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주제발표 I ]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 안성로(신구대학 교수)





#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

안 성 로  
신구대학 교수

## I. 필요성 및 목적

지식기반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 속에서 적응 가능한 인적자원을 양성, 고용,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라이프 사이클에 기초하여 평생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인재개발 추진체계 하에서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설계된 교육훈련과정과 이에 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가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교육훈련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의 현장직무수행능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 교육과 훈련이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고, 더 나아가 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상호연계가 미비하여 이들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및 효율성 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합적인 차원에서 체계화할 수 있는 직무능력표준 체제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및 자격 제도의 출발점으로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의 인재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이 도입되었다. 최초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도입기('03~'07)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바탕으로 반도체분야의 표준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평가·운영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정택수 외, 2005~2006; 서준호 외, 2007). 2008년부터는 자격기본법 상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표준교육훈련과정의 운영 및 과정이수 인증(자격화)을 실체화하고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연구가 진행되었다(김현수 외, 2008; 김덕기 외, 2008; 이동임 외, 2008; 조정윤 외, 2008). 또한, KSS 기반 교육훈련과정을 적용·운영할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등 인정 및 평가체제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정향진 외, 2008).

이와 같은 선행 연구사업의 최종 목적은 “일·학습 연계”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국가직무표준(KSS)을 개발하고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하는데 있다.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KSS를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효과성을 검증·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선행 연구 결과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시켜 운영함으로써 효과성을 검증하고 상세한 적용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같은 필요에 따라 2009년 KSS 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육기관으로 실업계고교 1곳, 전문대학 1곳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운영·평가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시범운영 교육기관의 교육 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8년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조경을 전문대학의 교육운영에 도입하여 교재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효과성을 검증·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결과 및 문제점을 분석·피드백하여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지원사업의 틀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과 교육과정 개발절차 등의 이론을 정리한다.

둘째,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 양식 및 지침을 적용하고, 기존 교육과정과의 Gap Analysis를 통한 조정분야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개발방안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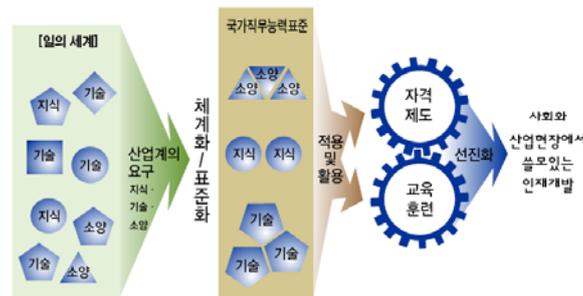
셋째,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운영방안을 개발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 II. KSS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절차

### 1. 국가직무능력표준(Korean Skill Standards)에 대한 이해

#### 가. KSS의 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의미한다(자격기본법 제2조 2항)(그림 1 참조).



[그림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KSS: Korean Skill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나. 국가자격체계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구성내용 중 직무수준은 국가자격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와 연계되어 있다. KQF란, 학위, 직업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자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격수준체계이다. KQF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추어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 교육과정 등의 기준을 연계하고, 이원화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교육훈련의 중복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통일된 학습목적의 성취를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경력 개발의 기준이 된다.

<표 1> 국가자격체계와 기타 수준체계와의 비교

수준	KSS 자격	학력	국가 자격	수준별 현장 Position(예)		
				관리/사무직	기능/기술직	전문직
7 수준				최고관리직 (임원)		
6 수준		박사	기술사	고급 관리직 (부장/팀장)	특급 기술직 (소장-대규모)	고급 전문직
5 수준	(KVQ 5)			초급·중급 관리직 (과장/(차장 1))	고급 기술직 특급 기능직 (소장-중규모)/(기장)	중급 전문직
4 수준	(KVQ 4)	석사		중간실무직 (대리)	중급 기술직 고급 기능직 (소장-소규모)/(주임)	초급 전문직
3 수준	(KVQ 3)	학사	기사	실무직 (사원~주임)	초급 기술직 중급 기능직	
2 수준	KVQ 2	전문 학사	산업 기사	초급 실무직 (사원)	단순 기술직 중급 기능직 (팀장)	준 전문직
1 수준	KVQ 1	고졸	기능사	사무 보조직 (사원)	초급 기능직	

주 : 차후에 1 수준 아래에 entry level 추가 예정

자료: 이동임 외(2008). 『국가자격체계(KQF) 구축과 운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다. KSS 역할

국가직무능력표준은 현장을 기반으로 일의 세계와 교육/훈련/자격 제도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자격 각각의 제도 간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 국가직무능력체제의 역할

## 라. KSS의 구성 요소

직무능력은 그림 3과 같이 직무능력명, 직무능력 정의, 직무능력모형(핵심능력, 능력단위), 능력단위 설명, 능력요소, 평가 방법으로 구성되고, 능력요소는 수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내용(지식, 기술, 태도), 작업 상황(Range Statements), 장비 및 도구와 같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림 3] 직무능력 구성요소

## 2.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개발절차

### 가. 개발 절차

국가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고, 각 중앙 행정기관이 세부 계획 및 시행 방안을 수립한다.



[그림 4]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절차

## 나. 활용 절차

산업계가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를 개발하고 자격검정기관에서는 자격종목을 개발하고 출제기준을 마련하는데 적용한다.



[그림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절차

## 다. 기대 효과

산업계에서는 산업별, 업종별 대표 기구가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신입사원 교육 및 경력사원의 재교육 비용을 경감하고, 현장 중심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산업계의 요구를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으로 산업 현장 직무수행능력 중심의 교육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자격검정기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인정하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교육훈련과 자격검정간의 내용 및 수준을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다.

통합적 인재개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 운영시 산업계의 필요 인력에 대한 요구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3.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 가. 교육과정의 개발절차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 모형은 기획 및 설계 단계, 개발 단계, 적용 단계, 평가 및 개선 단계의 총 4단계로 이루어지며,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된 자격구조에 따라 해당 분야 교육

훈련과정의 단계별 수준을 설정하여, 그 단계별 수준에 맞게 교육훈련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목표에 따른 필수 모듈과 선택 모듈을 도출해 낸다. 여기서, 교육훈련과정의 단계별 수준을 정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수준, 전문대학 수준, 4년제 대학 수준 등 해당 교육훈련 기관에 맞는 수준을 고려하여 구분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수준에 근거하여 교육훈련 목표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수준과 목표가 설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직무 능력을 선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된 능력 단위/능력 단위별 작업 범위,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지식·기술·도구 행렬표를 작성하며 코스를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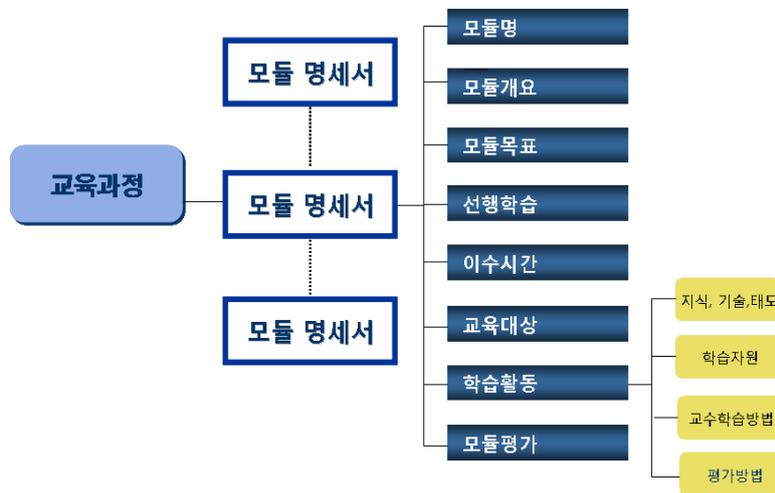
둘째, 개발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서식에 따라 모듈 명세서(profile)를 작성한다. 모듈 명세서는 모듈명, 모듈 개요, 모듈 목표, 선행 학습, 이수 시간, 교육 대상, 학습 활동, 모듈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적용 단계에서는 위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교육훈련과정을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 적용한다. 이때는 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모듈을 선별적으로 활용한다.

넷째, 평가 및 개선 단계에서는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평가를 통해 드러난 교육훈련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을 도모한다. 여기서 총체적인 평가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을 평가하는 것과 교육훈련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나. 교육과정의 Format

교육과정은 여러 개의 모듈로 이루어지며 각 모듈마다 해당 모듈 명세서가 도출된다. 모듈 명세서는 모듈명, 모듈 개요, 모듈 목표, 선행 학습, 이수 시간, 교육 대상, 학습 활동, 모듈 평가로 구성된다(그림 6 참조). 구성단위별 모듈 명세서 내용 및 작성 지침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교육과정의 Format

모듈명은 KSS 자격구조(안)에 제시된 필수 능력단위와 선택 능력 단위명을 기재하며, 모듈 개요는 해당 모듈에 포함되는 주요 학습명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모듈 목표는 모듈에 대한 일정 시간의 교육훈련을 통해 교육훈련 대상자들이 성취해야할 행동으로, 간결한 어휘로 학습자 중심의 행동적인 목표로 기술된다.

선행 학습은 모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훈련 대상자들이 먼저 이수해야 할 모듈을 기술한 것이며, 이수 시간은 해당 모듈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및 기간을 제시한다. 교육 대상은 해당 모듈을 교육 받을 대상의 특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제시된다.

학습 활동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능력 단위의 지식·기술·태도, 그리고 해당 모듈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자원, 해당 모듈의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방법이 포함된다. 학습 활동은 모듈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학습해야 할 내용의 범주를 능력 요소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때 학습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능력 단위의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하며, 주요 활동은 국가직무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능력 단위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모듈 평가는 평가 방법 및 평가준거가 제시되며, 해당 학습명의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 제시, 교육훈련과정 개요의 평가 방법에서 제시된 방법이 서술된다(예: 필기 시험, 포트폴리오, 실기평가 등).

#### 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육과정의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육과정이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는 교육과정에서 모듈명과 연계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설명은 모듈 개요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 요소는 학습 활동과 연계된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행기준은 교육과정에서의 수행기준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작업상황은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평가 방법은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방법 및 모듈 평가와 연계된다(그림 7 참조).



[그림 7]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육과정의 연계

### Ⅲ. 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교육훈련과정

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조경기술자를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적, 공학적, 생태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 국토건설 관련 분야와 협력하여 조사, 분석,

구상 및 계획,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기 계획·설계된 내용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조정재료, 공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조정공사를 수행하고 유지관리 하는 기술자」로 정의하고 있다. 조정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결과를 직무능력모형, 능력단위별 능력요소, 자격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1. 직무능력모형

조정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핵심능력을 총 7개(A-조정계획, B-조정설계, C-조정소재 개발 및 생산, D-조정시공, E-조정감리, F-조정관리, G-조정업 경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각 핵심능력별로 2~6개씩 총 27개의 능력단위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8 참조).

핵심능력	능력단위					
A 조정계획	A-1 계획 조사분석	A-2 기본구상	A-3 기본계획	A-4 프리젠테이션		
B 조정설계	B-1 설계 조사분석	B-2 기본설계	B-3 실시설계	B-4 현장지원 설계		
C 조정소재 개발 및 생산	C-1 연구개발	C-2 생산	C-3 유통			
D 조정시공	D-1 조정기반 공사	D-2 조정식재 공사	D-3 조정시설물 설치공사	D-4 생태복원 공사	D-5 실내조정 공사	D-6 공사관리
E 조정감리	E-1 설계감리	E-2 공사감리				
F 조정관리	F-1 조정식재 유지관리	F-2 조정시설물 유지관리	F-3 이용관리	F-4 운영관리		
G 조정업 경영	G-1 발주 및 수주	G-2 계약관리	G-3 경영관리	G-4 경영 정보관리		

[그림 8] 조정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능력모형

## 2. 능력단위별 능력요소

조정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27개의 능력단위별로 2~8개씩 총 131개의 능력요소를 제시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별 능력요소

핵심능력	능력단위	능 력 요 소
A 조경계획	A-1 계획 조사분석	A-11 자연·인문·사회환경 현황 조사 A-12 현황분석 A-13 사례조사 A-14 관련법규 검토 A-15 종합분석
	A-2 기본구상	A-21 개발방향 설정 A-22 계획개념 설정 A-23 도입시설물 내용 규모 및 검토·선정 A-24 대안 작성·평가 A-25 기본구상도 작성 A-26 타당성 검토
	A-3 기본계획	A-31 기본구상 검토 A-32 기본계획도 작성 A-33 모형 제작 A-34 기본계획보고서 작성
	A-4 프리젠테이션	A-41 보고형식 결정 A-42 판넬·화면구성 A-43 판넬·화면표현 A-44 리허설 A-45 프리젠테이션 발표 A-46 협의 조정회의
B 조경설계	B-1 설계 조사분석	B-11 자연·인문·사회환경 선행조사 확인 B-12 종합분석
	B-2 기본설계	B-21 기본계획 검토 및 보완 B-22 기본설계도면 작성 B-23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B-24 협의, 보고 및 성과품 제작
	B-3 실시설계	B-31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B-32 실시설계 도면 작성 B-33 내역서 작성 B-34 시방서 작성 B-35 공정표 작성 B-36 협의, 보고 및 성과품 제작
	B-4 현장 지원설계	B-41 시공상세도 작성(샵 드로잉) B-42 현장 변경설계 B-43 준공도서 작성

<표 2> 계속

핵심능력	능력단위	능력요소
C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	C-1 연구개발	C-11 식물재료 개발 C-12 시설물재료 개발 C-13 특허 및 건설 신기술 개발 C-14 디자인 개발
	C-2 생산	C-21 조경식물 생산 C-22 조경시설물재료 생산 C-23 조경식물 생산시설 관리 C-24 생산 공장관리
	C-3 유통	C-31 가식장 관리 C-32 물류 자재 관리 C-33 조경식물 유통관리 C-34 조경시설물 자재 유통관리
D 조경시공	D-1 조경기반공사	D-11 현장 파악 및 부지 준비 D-12 시공 측량 D-13 부지 정지공사 D-14 현장 사무실 설치 및 가설시설공사
	D-2 조경식재공사	D-21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파악 D-22 시공계획 수립 D-23 식재기반공사 D-24 식물자재 구입 D-25 식재 D-26 식재 후 공사관리
	D-3 조경시설물설치공사	D-31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파악 D-32 시공계획 수립 D-33 부지 조성 D-34 자재 구입 및 현장 반입 D-35 시설물 설치 D-36 마감 공사 및 현장 정리
	D-4 생태복원공사	D-41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 파악 D-42 시공계획 수립 D-43 현장측량 D-44 생태복원 자재 구입 D-45 비탈면녹화 및 생태복원 D-46 생태시설물 설치 D-47 자연소재를 이용한 자연생태 복원 D-48 자연생태 복원지의 모니터링
	D-5 실내조경공사	D-51 실내 환경 조사·분석 D-52 실내 조경 설계 D-53 실내 조경 재료 발주 및 검수 D-54 실내 조경 기반시설 설치 D-55 실내 조경재료 포장 및 운반 D-56 실내 조경시설물 및 점경물 설치 D-57 실내 식물 식재
	D-6 공사관리	D-61 품질관리 D-62 시공관리 D-63 공정관리 D-64 안전 및 환경관리 D-65 정산 및 준공관리

<표 2> 계속

핵심능력	능력단위	능력요소
E 조경감리	E-1 설계감리	E-11 설계과정 관리 E-12 기성고 및 공정관리 E-13 감리보고서 작성
	E-2 공사감리	E-21 공사착수단계 감리 E-22 공사시행단계 감리 E-2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E-24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 E-25 시설물의 인수, 인계 관련 감리 E-26 감리보고서 작성
F 조경관리	F-1 조경식재 유지관리	F-11 연중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F-12 병해충 방제 F-13 관수 및 배수 F-14 시비관리 F-15 잔디 및 체초관리 F-16 정지 및 전정 F-17 월동관리
	F-2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F-21 시설물 관리 연간 작업계획서 작성 F-22 유희 시설물 관리 F-23 운동 및 체력단련 시설물 관리 F-24 수경 시설물 관리 F-25 배수 및 포장 시설물 관리 F-26 기타 조경 시설물 관리
	F-3 이용관리	F-31 이용지도 F-32 행사 관리 F-33 안전관리 F-34 주민참여관리
	F-4 운영관리	F-41 운영관리계획 F-42 운영관리방식 결정
G 조경업 경영	G-1 발주 및 수주	G-11 발주계획 및 발주 G-12 수주 정보 수집 G-13 사업성 검토 G-14 제안서 작성 G-15 현장설명 참석 G-16 견적서 작성 G-17 입찰
	G-2 계약관리	G-21 계약서 작성 G-22 착공계 작성 G-23 공정 및 기성관리 G-24 준공계 작성
	G-3 경영관리	G-31 경영전략 수립 G-32 경영계획 수립 G-33 기업관련 회계 및 재무관리 G-34 인사 및 노무관리 G-35 기업조직관리
	G-4 경영 정보관리	G-41 기업홍보관리 G-42 업체 및 고객관리 G-43 기술정보 자료관리

### 3. 전문대학 교육훈련과정의 코스 명세서

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표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직업(조경계획 및 설계업, 조경공사업)을 예시하고, 이를 자격화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단위를 필수/선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전문대 교육훈련과정의 코스 명세서는 표 3과 같다.

<표 3> 전문대 교육훈련과정의 코스 명세서

자격	모듈명	필수/선택	이수시간	교육대상	
조경계획 및 설계	A-1. 계획 조사분석	M	32시간(8주×4시간)	1, 2학년	
	A-2. 기본구상	M	16시간(4주×4시간)	2학년	
	A-3. 기본계획	M	16시간(4주×4시간)	2학년	
	A-4. 프리젠테이션	M	60시간(15주×4시간)	2학년	
	B-1. 설계 조사분석	M	16시간(4주×4시간)	2학년	
	B-2. 기본설계	M	60시간(15주×4시간)	2학년	
	B-3. 실시설계	M	60시간(15주×4시간)	2학년	
	B-4. 현장 지원설계	M	16시간(4주×4시간)	2학년	
	G-1. 발주 및 수주	O	16시간(4주×4시간)	2학년	
	G-2. 계약관리	O	16시간(4주×4시간)	2학년	
		소계		308시간	
조경공사	C-1. 연구개발	O	8시간(2주×4시간)	3학년	
	C-2. 생산	M	48시간(12주×4시간)	1학년	
	C-3. 유통	M	8시간(2주×4시간)	3학년	
	D-1. 조경기반공사	M	60시간(15주×4시간)	1학년	
	D-2. 조경식재공사	M	60시간(15주×4시간)	1학년	
	D-3.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M	60시간(15주×4시간)	2학년	
	D-4. 생태복원공사	O	32시간(8주×4시간)	2학년	
	D-5. 실내조경공사	M	32시간(8주×4시간)	2학년	
	D-6. 공사관리	M	32시간(8주×4시간)	2학년	
	F-1. 조경식재 유지관리	M	60시간(15주×4시간)	1학년	
	F-2.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M	32시간(8주×4시간)	2학년	
	F-3. 이용관리	O	8시간(2주×4시간)	3학년	
	F-4. 운영관리	O	8시간(2주×4시간)	3학년	
	G-1. 발주 및 수주	O	16시간(4주×4시간)	2학년	
	G-2. 계약관리	O	16시간(4주×4시간)	2학년	
		소계		480시간	

## IV. KSS에 기초한 조정분야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발 방안

### 1. 신구대학 환경조경과 교육과정 현황

#### 가. 신구대학 교육과정 편성원칙

신구대학의 학사운영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원칙은 표 4와 같다.

<표 4> 신구대학의 학사운영 규정 및 교육과정 편성 원칙

내용	원칙	비고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	- 2년제 학과: 80학점 - 3년제 학과: 120학점	- 교양교과 10학점(3년제는 15학점)과 전문교과 64학점(3년제는 96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 - 전공교과의 이론 대 실습 비율은 50 : 50을 유지
총 개설학점수와 시간수의 최대치 (인접과목 제외)	- 2년제 학과: 86학점, 110시간 - 3년제 학과: 127학점, 160시간	
교양교과의 개설 최대 학점수	- 2년제 학과: 10학점 - 3년제 학과: 16학점	교양과목과 전공 기초 교과목은 1학년(3년제 학과는 1, 2학년)에 편성

#### 나. 신구대학 환경조경과의 3년제 현 교육과정 운영 현황

신구대학 환경조경과는 2007년 DACUM에 의해 개발한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 3년제 교육과정에 따른 개설 학점수와 총시수는 125학점과 155시간이며, 총 교육시간은 이론과 실습을 합하여 2,325시간이다. 본 연구사업의 교육대상인 2009학년도 신입생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의해 졸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 사업에 의해 개발될 KSS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과정은 2010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있다.

### 2. KSS에 기초한 신구대학 환경조경과 교육과정 개발 계획

#### 가. KSS에 기초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지침

선행연구에서는 KSS에 기초한 교육훈련과정의 운영방안을 크게 ①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능력단위별 운영방안, ②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유사능력 단위로 구성된 모듈별 운영방안, ③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능력단위를 포함한 코스별 운영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본 시범운영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의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교과목의 추가 및 보완으로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②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유사능력 단위로 구성된 모듈별 운영방안을 선택하였으며 기존 교육과정에서 운영중인 전공코스제를 접목시켜 ②와 ③을

통합하는 적용방안이 될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유사능력 단위로 구성된 모듈별 운영방안은 현행 교육과정의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교과목의 추가 및 보완으로 교육과정의 체계화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능력 단위로 구성된 모듈별 운영 시 현행 교육과정과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교수자의 전공 및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부 분야(조경설계 혹은 조경시공 등)로 교육과정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유사능력 단위로 구성된 모듈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현행 교육과정과의 면밀한 Gap Analysis를 토대로 미흡하거나 추가되어야 할 부분의 교과목(모듈)을 개발한 후에 기존 교과목과 비교하여 교육과정의 이수경로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행 연구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그림 9]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의 유사능력 단위로 구성된 모듈별 운영 모형

## 나. Gap Analysis

### 1) 분석 체계

#### 가) 분석 대상

KSS에 의한 총 8개의 핵심능력 중 전문대학에 해당 사항이 없는 ‘E. 조경감리’를 제외하고, 7개의 핵심능력을 중심으로 Gap Analysis를 수행하였다. 또한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25개의 능력단위(조경감리 제외) 중 ‘G. 조경업관리’의 경영관리와 경영 정보관리를 제외한 23개의 능력단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나) 분석 방법

각 과목의 담당교수들이 현재의 교육과정 내용과 KSS 항목과의 일치정도를 표시토록 하였다. 최대한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 5부터 4, 3, 2의 숫자로 표시하였으며, 아주 조금 포함되어

있어 많이 부족한 수준일 경우 1로 표기토록 하였다. 또한 KSS 모듈에서 제시한 수행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두고 배점을 실시하였다.

<표 5> 내용 비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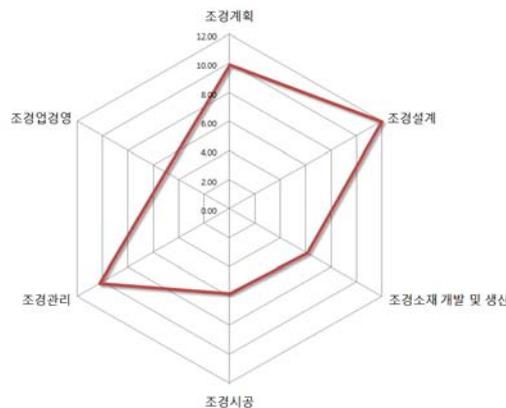
수준	정도	일치 정도
5	매우 일치함	80~100%
4	일치함	60~80%
3	보통임	40~60%
2	조금 일치함	20~40%
1	전혀 불일치함	20% 미만
빈칸	전혀 관계없는 경우	

## 2) 분석 결과

담당교수들의 배점표를 기준으로 핵심능력(표 6 참조)과 능력단위(본문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의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6과 그림 11은 신구대학 환경조경과의 교육과정에서 KSS의 핵심능력과의 피리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계획 분야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일정 수준이상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조경소개 개발 및 생산과 조경시공은 상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핵심능력으로 조사되었다. 나아가 조경업경영의 경우, 그 보완정도가 다른 핵심능력에 비하여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6> 핵심능력에 대한 Gap Analysis 결과

핵심능력	배점	능력요소의 개수	배점/개수
조경계획	833	84	9.92
조경설계	562	47	11.96
조경소개 개발 및 생산	220	36	6.11
조경시공	728	125	5.82
조경관리	554	54	10.26
조경업경영	166	33	5.03



[그림 10] 핵심능력에 대한 Gap Analysis 결과

한편 핵심능력에 대한 분석에 추가하여 능력단위에 대한 Gap Analysis가 상기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능력단위는 해당 핵심능력 중 부족한 능력단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핵심능력의 능력단위는 더더욱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표 7 참조).

<표 7> 능력단위에 대한 Gap Analysis 결과

핵심능력	능력단위	배점	능력요소의 개수	배점/개수
조경계획	계획 조사 분석	208	17	12.24
	기본구상	289	31	9.32
	기본계획	257	25	10.28
	프리젠테이션	79	11	7.18
조경설계	설계조사분석	115	8	14.38
	기본설계	183	12	15.25
	실시설계	172	19	9.05
	현장 지원설계	92	8	11.50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	연구개발	104	12	8.67
	<b>생산</b>	<b>45</b>	<b>12</b>	<b>3.75</b>
	유통	71	12	5.92
조경시공	<b>조경기반공사</b>	<b>38</b>	<b>10</b>	<b>3.80</b>
	조경식재공사	313	25	12.52
	<b>조경시설물공사</b>	<b>70</b>	<b>27</b>	<b>2.59</b>
	생태복원공사	147	26	5.65
	실내조경공사	126	23	5.48
	<b>공사관리</b>	<b>34</b>	<b>14</b>	<b>2.43</b>
조경관리	조경식재유지관리	396	24	16.50
	<b>조경시설물유지관리</b>	<b>49</b>	<b>15</b>	<b>3.27</b>
	<b>이용관리</b>	<b>43</b>	<b>11</b>	<b>3.91</b>
	운영관리	66	5	13.20
조경업경영	발주 및 수주	107	21	5.10
	계약관리	59	12	4.92

### 3) 기존 교과목과 KSS 모듈과의 상관관계

현재 신구대학 환경조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과 KSS의 모듈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과목별로 해당 KSS 모듈의 결과를 배점/능력요소의 개수로 나눈 결과, 표 8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8에서는 짙은 색의 음영일수록 일치수준이 높은 과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신구대학 환경조경과에서 운용중인 교과목과 KSS 모듈과 일치하는 정도의 분석과 부족한 교육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표 8에서 제시된 조경원론, 조경사, 조경스케치연습 등은 앞서 언급한 기초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Gap Analysis에서는 KSS 모듈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 정도가 낮은 과목으로 조사되었으나,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이론 과목들로 볼 수 있다.

<표 8> 기존 교과목과 KSS 모듈과의 상관관계

구분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소재 개발 및 생산			조경시공						조경관리				조경업 경영	
	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C-3	D-1	D-2	D-3	D-4	D-5	D-6	F-1	F-2	F-3	F-4	G-1	G-2
조경계획	3.88	3.77	2.36	3.82																			
컴퓨터그래픽	1.18	0.13	0.68	1.18	1.00	0.33	0.16		1.00							0.09							
조경전산실무연습	1.18	0.13	0.68	1.18	1.00	0.33	0.16		1.00							0.09							
컴퓨터조경설계2			0.40	0.18		0.58	0.37																
경관스케치	0.65	0.19	0.32		0.25	0.67	0.26																
공원녹지계획	4.12	4.13	2.92	3.91	4.88	4.25	2.16																
단지설계	4.12	4.13	2.92	3.91	4.88	4.25	4.68	4.63															
조경작품연습	4.12	4.13	2.92	3.91	4.88	4.25	4.68	4.63															
환경계획	4.35	4.42	3.68	3.91	5.00	3.92	2.42		0.75	1.75	1.67		0.40	0.07	1.81								
관광레크레이션계획	2.29	4.87	3.36	4.18	4.88	4.00	3.32	1.63															
조경법규	1.47	1.13	1.40		0.63	1.25		1.00					0.20	0.19	0.19		1.14				1.80	4.05	4.00
프리젠테이션	0.94	1.13	1.16	4.82	1.25	0.83																	
조경재료									0.33	0.75	0.17		0.16	0.74	0.35		0.29		0.60				
조경실시설계					3.88	4.75	3.79	2.75															
조경구조			0.24					1.63				1.00		0.26	0.54		1.14	0.43	1.20		2.40		
캐드1	1.53	1.52	0.84	0.64	1.38	1.50										0.26							
캐드2							2.05	2.25						0.41	0.46	0.43							
측량	0.29				0.63							1.10		0.37	0.12								
조경시공측량												2.10		0.85	0.19								
정원설계		1.00	0.88		3.63	3.58																	
조경설계		0.81			1.13	2.83																	
조경설계실무연습	3.94	2.48	2.80	0.45																			
조경세미나									2.67	0.42													
조경관리1																		1.83	0.67	1.73	3.40		
조경관리2																		2.65	0.80	2.18	3.60		
지형설계	0.76	0.45	1.56		2.50	1.08	1.58	3.50	0.67			2.40	0.40	0.56	0.62								
조경경영분석									0.50												3.80	4.24	2.92
실내조경																4.48							
조경시공												0.40	1.72	0.85	0.5		1.00					0.43	1.83
조경적산			0.08		0.42	1.11	0.25						0.20	0.19	0.19							0.43	0.17
적산실무			0.12		0.83	1.53	0.25																
조경시공실무연습							1.05	1.50	2.08														
조경수목			0.04		0.25				0.67	0.75	0.92		1.28		0.12				0.22				
조경화훼			0.08		0.25				0.92	0.75	1.25		1.24		0.12	0.17		0.13					
조경식재		0.13	0.20		0.13		0.05		0.33	0.25	1.67		3.40		0.12			0.04					
컴퓨터조경설계1		0.06	0.20	0.36	0.25	0.50	0.53	1.88								0.30							
수목보호관리													0.96		0.09			3.35					
생태복원공학		0.13													2.73								
수목해충									0.33	0.42	0.17		0.88		0.04			2.96					
수목병리									0.33	0.42	0.17		0.88		0.04			3.00					
수목생리									0.33	0.42	1.33		1.40		0.17			2.61					
기초 교과목	조경사	0.71	0.23																				
	조경원론																						
	환경생태	0.59		0.08		0.38				0.17	0.25				0.38								
	조경스케치연습																						
	표현기법						0.42																
조경제도						0.42	0.26																

\* KSS 모듈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으로 현재 신구대학 환경조경과에서 운용하는 기초과목에 해당

즉 기초과목이란 KSS에서 제시한 선수과목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개념으로 모든 조경관련 학과에서 1학년 초기 과정에서 대부분 교육 중인 교과목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상관성이 없는 과목으로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필수과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과정 운용을 위해 1학년 기초과목 교육 시에 일정비율 이상은 해당 과목들을 기초과목으로 분류하여 전공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과목별 모듈과의 일치도

과목	해당 모듈			
	4.0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조경계획		A-1, A-2, A-4	A-3	
컴퓨터그래픽				A-1, A-4, B-1, C-1
조경전산실무연습				A-1, A-4, B-1, C-1
컴퓨터조경설계2				
경관스케치				
공원녹지계획	A-1, A-2, B-1, B-2	A-4	A-3, B-3	
단지설계	A-1, A-2, B-1, B-2, B-3, B-4	A-4	A-3	
조경작품연습	A-1, A-2, B-1, B-2, B-3, B-4	A-4	A-3	
환경계획	A-1, A-2, B-1	A-3, A-4, B-2	B-3	C-2, C-3, D-4
관광테크레이션계획	A-2, A-4, B-1, B-2	A-3, B-3	A-1	B-4
조경법규	G-1, G-2			A-1, A-2, A-3, B-2, B-4, D-6, F-4
프리젠테이션	A-4			A-2, A-3, B-1
조경재료				
조경실시설계	B-2	B-1, B-3	B-4	
조경구조			F-4	B-4, D-1, D-6, F-2
캐드1				A-1, A-2, B-1, B-2
캐드2			B-3, B-4	
측량				D-1
조경시공측량			D-1	
정원설계		B-1, B-2		A-2
조경설계			B-2	B-1
조경설계실무연습		A-1	A-2, A-3	
조경세미나			C-1	
조경관리1		F-4		F-1, F-3
조경관리2		F-4	F-1, F-3	
지형설계		B-4	B-1, D-1	A-3, B-2, B-3
조경경영분석	G-1	F-4	G-2	
실내조경	D-5			
조경시공				D-2, D-6, G-2
조경적산				B-3
적산실무				B-3
조경시공실무연습			C-1	B-3, B-4
조경수목				D-2
조경화훼				C-3, D-2
조경식재		D-2		C-3
컴퓨터조경설계1				B-4
수목보호관리		F-1		
생태복원공학			D-4	
수목해충			F-1	
수목병리		F-1		
수목생리			F-1	C-3, D-2,
기초 교과 목	조경사			
	조경원론			
	환경생태			
	조경스케치연습			
	표현기법			
조경제도				

#### 4) 적용 및 운용 계획

##### 가) 교과목 선정 계획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교과목과 보완이 필요한 교과목, 신규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D-3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의 경우, 현재의 신구대학 교과목에서는 1.0 이상의 값을 유지하는 과목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 7의 조경시공 분야에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가 다른 모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값이 나타났다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해당 모듈을 강의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방법론적으로 제시하면,

1. 각 교과목에서 능력요소에 대한 점수 배점을 합계한다.
2. 해당 능력요소의 개수로 나눈다.
3. 2에서 도출된 배점에 따라 현재 교육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다.
4. 3을 토대로 개선, 보완, 신규개설 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교육과정 충족 유무 기준표

기준	과목 보충 여부
4점 이상	충족
3점 이상	개선
2점 이상	보완
1점 이상	신규 개설
1점 미만	관련없음 또는 기초교과목

한편 표 10의 적용 기준은 연구진을 비롯한 관련자들 예컨대 관련교수진과 졸업생, 산업체 인사 등과의 워크숍을 통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합리적인 기준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 V. KSS에 기초한 교육훈련과정 운영방안 및 제언

### 1. 운영방안

#### 가. 각 능력요소 교육내용 적정 수준 표준화를 위한 관련자 공동 워크숍

본 국가직무표준(KSS)에 따라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우, 1교과목이 1학기에 3학점 15주로 한 학기 강의시간이 45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강의시간에 맞도록 필요한 모듈 또

는 능력요소를 선택하여 각 요소별 교육내용의 분량과 수준에 따라 조직하면 한학기 또는 두학기용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능력요소를 얼마나 심층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론 및 실습시간이 상이 하므로 적절한 수준을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

KSS에 따른 각 능력요소별 수행기준과 지식, 기술의 내용은 산업체가 요구한 기준으로 교육현장의 강의 시수나 학생 수준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절대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같은 절대 기준은 학교급별로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으로 표준화되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교육연한과 학사운영규정에 따른 절대강의 시수와 학생들의 지적인 수준 및 산업체의 입직수준의 직무요구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표준화시키기 위하여 교수진, 산업체, 졸업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미나를 전문분야별로 개최할 것이다.

#### 나. KSS의 교육내용에 따른 전문교재 및 상세 수업계획서의 개발

KSS 교육내용은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요소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져 있다. 2008년 반도체분야의 시범운영에서도 현재 출판된 대학의 교재는 학문중심이며 KSS의 교육내용과 상이하거나 혹은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KSS 훈련과정 도입 및 시행 이전에 교육용 전문교재를 개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시범운영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비용 내에서 KSS표준(안)에 따른 전문교재를 모두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적인 과목의 교재는 개발하고, 그 밖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KSS표준(안)에 따른 상세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업에 반영토록 적용할 것이다.

#### 다. 효과적인 실험실습 운영을 위해 손 기능 보유 교수 요원과 산업체의 참여

조경 산업의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 모듈의 교육훈련 내용은 주로 이론 강의와 강의한 이론을 적용시키는 실험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전통적인 교과목 중심 교육은 이론 강의 중심의 수업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손을 이용한 실습교육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KSS 교육과정을 성공리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KSS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실습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손 기능을 갖춘 교수요원과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체를 확보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강사료 지급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라.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008년 시범운영을 진행한 동국대학교의 반도체분야 KSS 교육 운영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KSS 교육방법에 의해 교육하면 학습자 스스로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 할 수 있고 사회에 진출 하였을 때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수업성취도가 기존의 수업방식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수업에 비해서 평가과정이 철저해지고, 미달자에게는 재교육과 낙제한다는 부담까지 주어지기 때

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 성취도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재교육자들에 대한 간식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마. 교육성과의 질 관리를 위한 피드백 방안 운영

교수들이 전문대학 교육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한계는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 저하되어 산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대학 학령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자원의 질도 더 낮아질 것이므로 이 문제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산업체에서는 점점 더 심화된 전공능력을 갖춘 졸업생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문대학 교육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산출과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은 교육 성과의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수준별 사전 기초학습과 교육 평가후 성취기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교육성과의 불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 바. 교수들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연수 방안 마련

교육의 질적 수준과 성과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한다. KSS교육 과정운영은 교수들에게는 강의시간 외에 많은 준비와 평가 및 피드백에 따른 재교육 등 기존 강의운영보다 3배 이상의 시간적, 정신적인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과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낸다는 교육적인 사명감을 갖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기술을 습득한 유능한 교수가 없다면 교육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들을 위한 연수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 2. 제언

국가직무표준(KSS)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참여주체별 추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직업훈련교육기관

#### 1) KSS 교육에 적합한 학사운영 기준의 자율성 확대

대학 학령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자원의 질이 점점 더 낮아지고,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고교 출신에 따라 학력 편차가 심하여 수준 차이에 따른 수준별 반편성, 기초능력 수준미달학생에 따른 보충 학습, 40명 기준의 분반 인원수 축소 등 비용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집중 수업이 필요한 수목, 관리, 시공실습 관련 교과목 등은 학기 단위 수업보다 집중수업 또는 합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2) 교수의 수업 부담 과중에 따른 의무 시수 조정 문제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 운영은 교수들에게는 강의시간 외에 많은 준비와 평가 및 피드백에 따른 재교육 등 기존 강의운영보다 3배 이상의 시간적, 정신적인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문대학 교수가 교육적인 사명감을 갖고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적 성과를 거두려면 기존의 의무 강의시수(보통12시간)를 법정 강의시수인 9시간으로 축소 조정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실험 실습실 및 야외실습장 확보 문제

기존 교육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손을 이용한 실습교육을 들 수 있다. KSS 교육과정을 성공리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KSS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실험실습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실 및 야외실습장을 구비하고 손 기능을 갖춘 교수요원과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산업체를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 기능교수의 강사료 지급 등의 운영비 확보도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 나. 정부

#### 1) 운영비 재정지원 문제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는 직업교육의 질 관리가 가능하고 능력중심 교육으로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비용(cost) 대비 효과(benefit)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운영비 재정지원 문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으나 동일한 분야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을 분석하고, 양성 인력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을 활용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한다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에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개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국가기술자격증과 연계 또는 호환 문제

조경건설업은 면허 업종으로 면허의 기술보유 요건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은 취업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KSS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직무능력은 향상될 수 있으나, 반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1차시험인 필기시험의 합격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공사업 면허의 기술보유 요건을 KSS자격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국가기술자격과 연계시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실기시험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참고문헌

- 김현수·정향진(2006).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6) (VII)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시범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현정(2009) 반도체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시범운영. 제2차 자격정책포럼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박윤희·정향진·주인중(2005).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매뉴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동열·정향진(2006).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6) (XIV)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시범 운영: 교육과정 개발·적용 매뉴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윤근영, 안성로, 김인호, 변재상(2007) 2008학년도 3년제 학과 변경 계획(안)(미출판 보고자료). 경기: 신구대학 환경조경과.
- 이무근, 이용환, 정철영, 배진한, 최애경, 이종성, 정태화, 나승일(1997) 직업능력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국가직무능력표준-조경.
- 정향진·김현수(2006).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5) (IX)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4년제 대학 교육과정 시범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향진·박동열·박윤희(2005).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2006) (IX) -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대학·대학원 교육과정 시범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정윤, 박동열, 김종우(2003)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2003)(IV):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업기초능력운영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KSS 교육훈련과정 개발 연구진 워크숍 자료집』.
- \_\_\_\_\_ (2008). 『KSS 교육훈련과정 개발위원 워크숍 자료집』.
- \_\_\_\_\_ (2009). 『조경분야 KSS 교육훈련과정 개발위원 워크숍 자료』.

최 경 규  
엑스퍼트 컨설팅 대표컨설턴트

KSS의 직업교육과정설계방안에 대해서는 본 주제를 발표하신 안성로교수의 논문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관련분야 연구 및 시범운영 결과보고서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으므로 여기서는 KSS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 직업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어떤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직업교육에 적용해야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 I.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성과

KSS의 가치는 KSS를 기반으로 한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므로 먼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성과에 대한 주요 실증적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7% 후반 ~ 8% 초반 수준이며, 여기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와 ‘쉬었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합할 경우 10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전체 15세 ~ 29세의 청년층 인력의 10.5%(2006년) 수준임.
-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력과잉비율은 측정시기와 방법, 대상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5% 전·후로 나타나고 있음. 학력과잉은 전문대졸 6.2%, 4년제 대졸 18.8%의 임금손실을 초래하며(김주섭, 2005), 적정학력의 투자수익률이 10.5%인 반면 학력과잉의 투자수익률은 6.2%(박성준, 2005)임.
-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50%미만이며(김안국, 2006), 전공에 따라 노동시장성과는 매우 제한적임. 임금수준은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한 대학서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출신대학이나 전공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청년층의 상당수는 취업 후에도 한계노동자 상태에 머물러있음. 이는 취업 후 직장이동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직장경험이 누적되더라도 근속년수의 증가는 미비하여 종사상 지위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직장 이동시마다 큰 폭의 직종변동을 경험하고 있어 직장이동이 경력일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미취업률은 일반계 고교 졸업자보다 높으며, 임금도 낮음. 고졸자와 전문대졸 졸업자간 임금격차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반면 대학서열간 임금격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II. KSS의 직업교육에서의 효과적 활용방안

### 1. 산업중심의 직업교육과정설계와 운영

KSS는 산업별 직무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중심의 직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직업교육이 산업별로 차별화되어야 하는 것은

첫째, 기술 및 시장변화가 산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둘째,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영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물 및 노동시장 정보들이 산업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고

셋째, 교육훈련의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들이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 효과적인 협력이 용이하며

넷째, 산업간 노동이동에 따른 숙련손실은 임금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게 하는 반면 산업 내 이동은 그 빈도는 높으나 실업기간이 짧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산업별 직업교육훈련은 취업률 또는 재취업률 제고를 위한 구직경로의 효율화는 물론 임금프리미엄의 획득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 특수적 훈련 형성의 성공사례들은 다수의 국내외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KSS를 활용하여 산업별 직업교육을 실행할 경우 질적, 양적으로 미시적 숙련수요 전망에 부합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명실상부한 수요자 중심교육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직업교육의 질적 우수성 확보

국가표준으로서 KSS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교육의 성취/평가 기준과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실질적 업무성과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과 중심의 요구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적 우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성과가 미비한 것은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이수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수요자로서 기업의 불만에서 기인하므로, 직업교육기관들이 국가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공급할 경우 이들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증대하고 그 결과 수능점수 중심의 학벌에 따라 모든 것이 평가되는 학벌사회의 병폐를 해소하고 능력중심사회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정한 성취/평가기준에 따라 양성 인력의 질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고등 및 직업교육의 구조조정을 촉진, 직업교육기관들의 특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직업교육의 다양화, 고도화

우리나라 직업교육실태에 대한 많은 조사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산업 또는 기업특수성이 반영된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고 교육과정의 개발이 용이한 저숙련직 보다 상위수준으로 올라갈수록 현장성이 강화된 고

육훈련프로그램의 부족을 절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내부노동시장만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전문적이며 높은 수준의 숙련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KSS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별, 직무수준별 요구능력은 종적, 횡적으로 연계되니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촉진하며 고용가능성제고를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의 구현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현장과 교육훈련, 자격을 상호연계, 선행학습은 물론 근로경험 등 비공식, 무형식 학습까지 인정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학교와 직업현장간의 원활한 상호이동을 바탕으로 수확체증과 외부효과자는 지식경제의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직업교육의 효율화, 통합화

KSS가 제공하는 산업별 직무수준별 요구능력과 성취/평가기준에 따라 모듈화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될 경우 각급 직업교육기관 간, 직업교육기관과 기업 간 종적, 횡적,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여 동일교육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중복·낭비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여건이 열악한 교육훈련기관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 최소한의 인적·물적 자원으로 교육훈련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훈련기관들의 경쟁력을 제고, 특성화와 통합화가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공통의 직무와 능력중심의 인적자원관리체계를 구현하여 기능적 유연화는 물론 고성능 작업장의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op교육 등 실질적인 산학협력도 함께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분과에서 주제발표를 맡으신 안성로교수께서는 학생들의 수학능력이나 대학여건에 비교해 볼 때 KSS가 요구하는 성취기준이 높으며, 산업계와 직업교육계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현실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토론자 역시 공감하나, 이러한 조정이 반복될 경우 KSS가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현재의 매우 저조한 직업교육의 노동시장성과는 만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직무수준별 요구능력과 기대수준 그리고 지급자격은 수요자인 산업계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설정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기대수준에 적합한 수준의 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하는 직업교육기관들은 스스로 새로운 방식의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직업교육기관간의 통합과 특성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라도 미취업으로 인한 고향학력의 악순환에 빠지기보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선택하여 조기에 직업 경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요자의 요구능력수준에 크게 미흡한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것은 직업교육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교육기관과 기업, 그리고 청년인력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비록 일시적으로 직업교육기관들에게 구조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교육시장에서의 정부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先구조조정, 後지원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KSS의 개발과 적용에 대해서는 산업계가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의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그 구체적 내용에서는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해야하는 대신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심판자로서 모든 교육훈련기관의 양성 인력의 노동시장성과를 공개하는 등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전 호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연구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등 의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 교육훈련과정이 개발 되어야 하고 교육훈련 현장에서 국가직업능력에 기초한 교육훈련과정의 개발 운영은 교육훈련의 현장 적합성 제고와 직결 되는 것이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에서 몇 가지 고려 해 보아야 할 사항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 1.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을 위한 능력단위별 능력요소와 교육과정상의 적정 이수 시간수의 문제

학점 시수별 단위와 산업현장에서의 능력단위별 능력요소별 이수 시간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의 특성상 전담 전공별 교수가 부족한 경우나 교수의 전공이 편중된 경우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능력단위별 능력요소를 시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령 학교의 특성화를 위하여 어느 능력단위별요소의 시간수를 많게 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을 할 수 있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경우 능력단위별 능력요소와 교육훈련 과정을 표준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므로 핵심능력별 능력단위별 능력요소를 교육과정으로 편성 할 경우 각 학교별로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시의 과목설정과 능력단위별 능력요소의 이수시간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다. 가령 학교의 경우 1학기에 3시간에 3학점으로 편성된데 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모듈이수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학점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2. 핵심능력의 능력단위별 능력요소에 대한 이론과 실습의 배분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핵심능력의 능력단위별 요소에서 이론과 실습으로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강의 목적에 맞도록 필요한 모듈 또는 옵션 능력요소를 선택하여 조직하면 한학기 또는 두학기용 강좌를 개설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능력요소를 얼마나 심층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론 및 실습시간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수준을 연구 개발하여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실험실습에 있어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주로 강의와 실험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실험실습 운영에 대하여는 산업체와 학과 교수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실험실습이 이루어지지않으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교육과정 적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8 기존과목과 KSS 모듈과의 상관관계에서 기존의 조정교육에서 조정계획과 조정설계과

목은 KSS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 조정공사 시공에 관한 과목의 내용은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경우는 능력요소별 이론 및 실습 비율에 대한 교수들의 협의가 필요하며 전문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KSS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시에 이론과 실습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초과목과 전공과목을 학년별로 어떻게 배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할 것이다.

### 3. 해당 학과 교수 들의 이해 및 적극적 참여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교육과정 활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 학과 교수들의 이해이다. 산업체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교수진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해당 학과 교수의 전공, 전공 관련시설과 설비의 여건 등이 미비한 경우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초한 교육과정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특히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 해당 학과 교수들의 의지가 절대적이고 이에 대한 실무능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4.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개정 및 교육과정 반영의 문제

현대에서는 직종에 따라 산업체의 발전이 무척 빨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편이 수반 되어야 한다. 물론 그 개편 주기는 산업의 발전 속도에 따라 관련기관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산업체의 지식, 기술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면 낙후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다. 대부분 국가기관의 경직성 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산업 발전 속도가 빠른 직종의 경우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경우 제정되면 바로 산업 현장 기술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고, 이러한 면에서 정말 신속하게 교육 훈련과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현장과 직결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일 -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제정과 개정 및 교육과정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5.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평가기법의 다양화

지금의 교육제도권에서 실시하는 평가방법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다양한 직무를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핵심직무의 능력단위별 능력요소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평가방법을 도입하여야 하고 이의 적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한 결과를 믿어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경험이 많은 다양한 외부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산업체와 연계하여 실기교육의 일부분을 산업체에 위임하여 실기평가를 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일상화된 다양한 평가기법들이 국내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획일적 평가기법에 대한 선호 때문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시는 능력단위별 능력요소 평가에 대한 평가기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6.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른 전문 교재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모듈식 교육은 직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성이 있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교실에서 익힌 내용을 실생활과 작업현장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직업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모듈학습은 자율적인 수업과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출발점과 학습된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되며, 이의 효과를 얻기 위해 모의학습,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학습목표를 얻도록 하고 도 착점에서의 목표를 객관화하여 완전학습을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교과목 중심의 수업에 사용하였던 교재로는 안 되므로 실무적인 모듈식 전문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모듈식 교재개발이 잘 되면 전통적인 교과목 중심 수업에 비해 좀 더 산업체 지향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적인 실습을 통해 좀 더 현장감 있는 공부가 가능하며 학생들이 산업체에 들어온 이후 일정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 산업체에서의 교육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 7. 자격제도와 연계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교육 훈련의 성과 반영에 대한 자격제도의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자격기본법상의 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으로 줄 것인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줄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면허성 종목으로 오랫동안 시행한 직종인 경우는 절대적으로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그 외의 국가공인이나 민간자격의 연계는 산업현장의 자격증에 대한 혼란만 가중할 뿐이고 자격에 대한 실효성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물론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증을 주는 것을 원하겠지만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크고, 과연 전통식 교과목 수업자와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자와 누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비교 능력 평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정책적으로 채택하기는 무리가 있다. 다만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론부분이나 실습과정 별 평가내용을 외부의 전문가 또는 자격 평가기관이 평가하여 공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또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자의 마지막 이수 시험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실기시험으로 하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수자의 최종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되 이에는 국가기술자격평가기관이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8. 재정지원 및 운영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실험실습의 경우 장비 및 시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교육과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훈련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인력양성 관련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에서의 핵심직무 능력 단위 이수를 위해서는 산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실험실습을 위한 산업체의 장비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산업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학교는 담당교수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책적 지원의 경우는 투자 대비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 할 수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9. 교육훈련과정의 코스 배분

조경의 직무능력표준에서 표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의 직업을 예시하고 교육훈련과정의 코스를 명시 하였다. 조경계획 및 설계 코스는 10개 모듈에 필수 8개 모듈, 선택이 2개 모듈로 되어 있고 이수시간은 308시간이고 교육대상은 1모듈만 1.2학년이며 그 외는 2학년이 교육대상이다.

이에 비하여 조경공사는 15개 모듈에 필수 9개 모듈, 선택이 6개 모듈로 되어 있고 이수시간은 480시간으로 되어 있어 선택 모듈의 폭이 크다. 이수시간은 480시간이고 교육대상은 4개 모듈이 1학년, 7개모듈이 2학년, 4개 모듈이 3학년으로 되어 있다

위의 2개 교육훈련과정의 코스 비교에서 필수과목 이수시간이 조경계획 및 설계는 2.76 시간이고, 조경공사는 392시간으로 116 시간의 차이가 있다. 선택 모듈에서도 조경계획 및 설계는 32시간인데 비해 조경공사는 88시간으로 나타나 있다. 전공별 교수의 문제, 이수과목, 이수시간 수 등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경직종은 대체적으로 실업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직무를 많이 반영하여 오고 있다. 실업계 전문고교의 경우는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개편을 통하여 산업체에 직결된 교육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신구대학의 경우는 코스별 전공제로 산업현장과 직결된 교육을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본 발제의 내용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여러 학교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며 본 토론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기대합니다.





[ 주제발표Ⅱ ]

# 전문계고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 이병욱(충남대학교 교수)





# 전문계고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이 병 옥  
충남대학교 교수

## 1. 추진 배경

### □ 인구 구조학적 변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조기 확보 체계 구축 필요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경제적 문제 해결과 교육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인력의 사회 진출 시기 지연 방지 대책이 요구됨
  - '05년 현재 합계 출산율 1.08명, 평균 수명 77.3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05년 9.1%에서 '18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로 증가하여 고령 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이 예상됨. 이에 따라 '0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시스템에서 '4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8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 활동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현행 학제의 총 교육 연한 16년은 너무 길고, 병역 이행 과정까지를 포함하면 생산 가능 인구의 양성·배출·활용에 큰 지장이 예상됨.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최초 입직 연령이 평균 3년 정도 늦음.
-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전체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생산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는 것임.
  - '09년 3월 현재 전체 실업자는 952천명(실업률 4.0%), 이중 고졸 실업자가 44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중 절반 정도를 고졸 실업자가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 상승과 함께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대응책 마련을 비롯한 전문계 고교의 취업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 변화를 보면, <표 1>과 같이 순수취업률은 1990년에 79.8%이던 것이 1995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7년에 19.0%로 크게 낮아졌고 졸업자 중에서 취업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0년에 91.7%에서 2007년에 26.6%로 크게 감소하였음(박동열 외, 2008: 26~27). 순수취업률이 낮아진 것은 진학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고등 교육 기회 확대와 함께 대학 미 진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학력에 의한 임금 차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표 1>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 변화

(단위 : 명(%))

구분	졸업자수			취업대상자수1)			취업자수2)			취업률					
	전체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순수취업률3)			취업률4)		
										계	남	여	계	남	여
1990	272,365 (100.0)	128,017 (47.0)	144,348 (53.0)	249,883 (91.7)	115,124 (89.9)	134,759 (93.4)	217,383 (100.0)	97,713 (44.9)	119,670 (55.1)	79.8	76.3	82.9	87.0	84.9	88.8
1995	274,696 (100.0)	127,642 (46.5)	147,054 (53.5)	214,010 (77.9)	96,997 (76.0)	117,013 (79.6)	196,403 (100.0)	89,484 (45.6)	106,919 (54.4)	71.5	70.1	72.7	91.8	92.3	91.4
2000	270,393 (100.0)	136,445 (50.5)	133,948 (49.5)	148,501 (54.9)	66,610 (48.8)	81,891 (61.1)	130,968 (100.0)	57,585 (44.0)	73,383 (56.0)	48.4	42.2	54.8	88.2	86.5	89.6
2001	231,127 (100.0)	117,215 (50.7)	113,912 (49.3)	115,677 (50.0)	52,550 (44.8)	63,127 (55.4)	104,138 (100.0)	46,633 (44.8)	57,505 (55.2)	45.1	39.8	50.5	90.0	88.7	91.1
2002	189,510 (100.0)	96,887 (51.1)	92,623 (48.9)	80,025 (42.2)	35,146 (36.3)	44,879 (48.5)	72,212 (100.0)	30,928 (42.8)	41,284 (57.2)	38.1	31.9	44.6	90.2	88.0	92.0
2003	182,835 (100.0)	94,969 (51.9)	87,866 (48.1)	68,537 (37.5)	31,032 (32.7)	37,505 (42.7)	60,062 (100.0)	26,815 (44.6)	33,247 (55.4)	32.9	28.2	37.8	87.6	86.4	88.6
2004	170,259 (100.0)	89,112 (52.3)	81,147 (47.7)	54,702 (32.1)	23,901 (26.8)	30,801 (38.0)	47,227 (100.0)	20,201 (42.8)	27,026 (57.2)	27.7	22.7	33.3	86.3	84.5	87.7
2005	162,600 (100.0)	86,287 (53.1)	76,313 (46.9)	50,597 (31.1)	22,559 (26.1)	28,038 (36.7)	42,151 (100.0)	17,663 (41.9)	24,488 (58.1)	25.9	20.5	32.1	83.3	78.3	87.3
2006	158,708 (100.0)	85,428 (53.8)	73,280 (46.2)	44,786 (28.2)	20,336 (23.8)	24,450 (33.4)	32,075 (100.0)	12,838 (40.0)	19,237 (60.0)	20.2	15.0	26.3	71.6	63.1	78.7
2007	158,408 (100.0)	85,397 (53.9)	73,011 (46.1)	42,076 (26.6)	19,838 (23.2)	22,238 (30.5)	30,036 (100.0)	12,796 (42.6)	17,240 (57.4)	19.0	15.0	23.6	71.4	64.5	77.5

주 1) 취업대상자수는 졸업자 중에서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자수로서, ( )안의 수치는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임.

2) ( )안의 수치는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임.

3) 순수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100

4) 취업률 = (취업자수 ÷ 취업대상자) ×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해당년도). 교육통계연보.

### □ 국가 선진화를 위한 ‘고기술, 고숙련’ 인력 양성 체제 필요

-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과 같은 요소 투입을 더욱 확대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은 노동과 자본을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채창균, 2006: 10). 생산성을 늘려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모델로 가야함. 즉,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핵심 원천 기술 및 혁신 상품을 창출하여 자본과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높여 추가적인 투자와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현재의 ‘저기술 → 저생산성 → 저임금’의 저숙련 균형 함정에 빠져 있는 산업체의 체질을 ‘고기술 → 고생산성 → 고임금’으로 순환하도록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 정책에 따라 기존의 기능 인력 양성과 함께 입직 전 단계에 있는 전문계 고교생 중 능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고기술 고숙련이 요구되는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이 필요함. 특히, 노동의 질적 개선과 숙련에 필요한 계속직업교육 체제 구축도 필요함.

- 일자리 창출 효과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순 기능인 양성, 고용 알선 등은 투자 중심의 성장시대에 주효했던 전략임. 구조 조정이 본격화된 현재 기존의 취업 훈련 방식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비효율적임.
- 고기술, 고숙련 가능성이 있는 예비 근로자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존 기업들이 추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 대량 기능 인력 양성 체제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다양화, 수업 연한의 유연화’를 통해 소량 특성화 인력 양성 체제로의 교육 체질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및 선진화 방안 필요

- 전문계 고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산업체의 요구 반영 및 협력 정도가 낮음.
  -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문계 고교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산업체 요구 반영 정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산업체의 요구 반영 정도가 18.8%, 운영시 인적·물적 교류 정도에 대한 협력의 정도 14.0%, 산업체 인사 활용 및 산학 겸임 교사 배치 활용도에 대한 인식이 각각 17.5%, 13.9%로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2> 전문계 고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산업체의 요구 반영 및 협력 정도

(단위: 명(%))

구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산업체의 요구 반영 정도		116 (4.4)	875 (33.1)	1,156 (43.7)	465 (17.6)	32 (1.2)	2,644 (100)
기계·기구·설비 운영이 산학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도		221 (8.5)	1,106 (42.3)	923 (35.3)	347 (13.3)	18 (0.7)	2,615 (100)
산업체 인사 활용의 적절성		225 (8.6)	975 (37.3)	959 (36.7)	425 (16.3)	31 (1.2)	2,615 (100)
산학 겸임 교사 배치·활용도		500 (19.1)	1,140 (43.5)	618 (23.6)	322 (12.3)	42 (1.6)	2,622 (100)

자료: 이용순 외(2005). p. 140, 149, 160 재구조화.

- <표 3>의 전문계 고교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현황에서도 조사 대상 557개 전문계 고교 중 산업체 인사가 1명도 참가하지 않는 학교가 98.2%인 547개교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전문계 고교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산업체 요구 수렴과 활용에 대한 상호 인식 부족 및 수단의 미흡 등의 이유가 있겠으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려와 자율성 강조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3> 전문계 고교의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현황

(단위: 학교수, 개(%))

구성 인원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전체
본교 교원	4 (0.7)	.	5 (0.9)	10 (1.8)	45 (8.1)	493 (88.5)	557 (100.0)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전문가	535 (96.1)	14 (2.5)	5 (0.9)	3 (0.5)	.	.	557 (100.0)
학부모	413 (74.1)	77 (13.8)	26 (4.7)	16 (2.9)	10 (1.8)	15 (2.7)	557 (100.0)
시도교육청 인사	540 (96.9)	13 (2.3)	2 (0.4)	.	.	2 (0.4)	557 (100.0)
산업체 인사	547 (98.2)	5 (0.9)	3 (0.5)	1 (0.2)	.	1 (0.2)	557 (100.0)
지역 인사	500 (89.8)	31 (5.6)	10 (1.8)	6 (1.1)	3 (0.5)	7 (1.3)	557 (100.0)

자료: 김두정 외(2009b). p. 29 참조.

- 산학 협력, 교육과 훈련의 연계 등 개방적인 운영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직업교육 체제의 선진화가 요구됨.
- 노동시장(산업체)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포함한 제도적 선진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학교의 교육 내용과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지배 구조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방안’의 대통령 보고(제6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제 1호 안건('09.03.20))에 따른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취업에 강한 매력적인 직업교육 운영: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직업친화적 교육 환경 구축 필요

- 1970년대말까지 ‘1인 1기 교육<sup>1)</sup>’ 정책으로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이 활성화됨.
  - 중등 수준의 직업교육은 우수한 기능·기술 인력 양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인으로 작동되었음.
- 중등 수준의 직업교육은 초등학교의 ‘실과’ 및 중학교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중등 수준 직업 교육의 위상 저하와 맞물려 초등의 실과 교육 및 중등 단계 기술 교육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표 4>에 제시된 제 7 차 교육과정의 과학·기술 과목군의 선택 과목 중 학교가 편성한 선택 과목 현황 자료에서 직업 친화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과인 기술·가정 교과의 선택 과목을 편성한 학교수는 수학과 과학 교과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고교 단계에서도 직업 친화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미흡한 실정임.

1) 1인 1기 교육: 건국 초기에 실천과 체험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으로 시작하여 1970년대 말까지 추진된 과학기술 및 직업 교육 진흥 정책

<표 4> 과학·기술 과목군 선택 과목 편성 현황

(단위: 학교수, 개)

과 목	과목 개설 학교수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기타계고	종합고		
수학	수학 I	1,123	356	72	186	1,737
	수학 II	1,015	31	34	113	1,193
	미분과 적분	997	4	31	113	1,145
	확률과 통계	791	5	16	73	885
	이산수학	335	2	9	21	367
과학	물리 I	1,025	59	20	126	1,230
	화학 I	1,023	50	25	134	1,232
	생물 I	1,087	53	30	166	1,336
	지구과학 I	974	11	14	86	1,085
	물리 II	761	4	13	48	826
	화학 II	917	3	25	80	1,025
	생물 II	919	2	25	89	1,035
	지구과학 II	606	3	13	38	660
기술·가정	농업과학	25	5	2	1	33
	공업기술	232	29	2	6	269
	기업경영	58	9	0	7	74
	해양과학	8	2	1	3	14
	가정과학	290	14	0	39	343

자료: 이병욱(2005). p. 226 참조

## 2. 추진 방향

□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전문계고 교육과정 선진화의 개념과 이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음.<sup>2)</sup>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선진화라 함은 “국가 선진화에 필요한 중추적 기능·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 즉 학생, 학교, 산업체(산업체 대표, 노조, 산업별 협의체 포함),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만들어, 전개해 나가는 교육과정”을 의미함.
- 국가의 산업 정책 방향 및 인력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전문계고 교육과정 설계
  - 전문계 고교의 ‘취업 기능 강화’,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기술 전문성 신장’에 초점
- 학생 수준과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계고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체계 구축
  -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체제 구축
  -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과의 연계에 기반한 수업 연한 단축과 전문성 고양 기회 확대

2) 교육과정 개정(revision)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적극적 변화를 의미하며, 개선(improvement)에 비하여 변화의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함. 이에 비하여 개선은 소극적 의미의 변화를 뜻하며 개정에 비하여 변화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변화는 그간 국가수준 교육과정 고시 후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국가 선진화에 필요한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에 초점을 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장치가 부재되었음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함.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개정’보다는 ‘개선’에 중점을 두고자 함.

- 이를 위한 미래의 전문계고 교육과정은 독립된 별도의 국가수준 전문계고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여 고시하는 방안과 기존에 고시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개선 수준에서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07.02.28 고시)’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선진화에 필요한 탈규제화를 촉진<sup>3)</sup>하는 수준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함.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립된 국가 수준의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종래의 큰 틀을 수정하는 것보다도 교육과정 전반적 구조에 자율성, 다양성, 유연성을 불어넣는 것에 초점을 두되 학교 중심 교육과정 체제의 자율화 및 탄력화 방안에 중점을 둬

### 3. 세부 추진 과제 및 방안

#### □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취업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개편 및 산업체 수요 반영을 저해하는 지침 철폐

- 보통 교육 중심의 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직업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 산업체 요구 수준에 적합한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계 고교의 역할 강화 및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 모색
  -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전문계 고교 및 관련 분야 전공 학과 운영 체계 구축
- 산학협력 또는 국가직무능력표준(KSS)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의 가능성 확대 및 탄력적 적용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 승인 사항을 선별하여 전문계 고교 학교장에게 위임
- 예상 쟁점 및 고려 방안:
  - 쟁점: 산업체 요구를 적극 반영한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체제로의 개정시 인문·기초 학문에 대한 소홀로 창조적 인간이 아닌 획일적 인간 양성이 우려될 수 있음. 또한 특성이 다른 여러 분야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기초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관련 분야의 교원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미흡 등이 예상됨
  - 방안:
    - ① 산업체와 유관 기관의 인적·물적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는 교육과정 자침 마련을 통하여 급속한 기술·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 편성·운영, 노동 인력 시장의 수요·공급의 균형 조절 방안 마련
    - ② 국가 수준 교육과정 내에 보통 교과 최소 기준 단위(80단위 이상) 유지
    - ③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선(안)

3)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가 고교 1학년은 ’11년 3월 1일, 고교 2학년은 ’12년 3월 1일, 그리고 고교 3학년은 ’13년 3월 1일임. 따라서 제안하는 전문계고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의 적용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2) 전문 교과</p> <p>..... 중략 .....</p> <p>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p> <p>㉔ 농생명 산업 계열 .....</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2) 전문 교과</p> <p>..... 중략 .....</p> <p>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단, 시·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학교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 교과 과목을 계열별 필수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p> <p>㉔ 농생명 산업 계열 .....</p>	<p>· 현재 설정된 계열 외에 새로운 계열을 전문계 고교에 설치하고자할 때 계열별 필수 교과 과목 선정에 대한 학교 자율성 보장 및 교육과정의 다양성 추구</p> <p>·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직업탐구능력시험의 비대상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2) 전문 교과</p> <p>..... 중략 .....</p> <p>③ 전문 교과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2) 전문 교과</p> <p>..... 중략 .....</p> <p>③ 전문 교과에 대한 이수 학점은 시·도 교육감의 승인 하에 학교장이 정하되, .....</p>	<p>전문교과의 이수 학점을 시·도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의 결정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11, 12학년의 2년 동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p> <p>(1)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0단위로, 선택 과목에 132단위, 특별 활동에 8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고등학교에서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p> <p>(1)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210학점으로, 특별 활동 12학점을 포함하여 편성한다.</p>	<p>· 고교 3년간을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및 학생들의 전문교과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p> <p>..... 중략 .....</p> <p>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p> <p>..... 중략 .....</p> <p>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의 기준 학점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p>	<p>· 전문계 고교에서 보통 교과 선택 및 이수 학점에 대한 학교 자율성 강화</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p> <p>..... 중략 .....</p> <p>㉔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p> <p>..... 중략 .....</p> <p>㉔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p>	<p>· 계열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p> <p>..... 중략 .....</p> <p>㉔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p>	<p>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p> <p>..... 중략 .....</p> <p>(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p> <p>..... 중략 .....</p> <p>㉔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학점을 1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다.</p>	<p>·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조기 졸업 가능성 보장</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p> <p>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p> <p>..... 중략 .....</p> <p>⑨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에 관한 사항</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p> <p>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p> <p>..... 중략 .....</p> <p>⑨ &lt;삭제&gt;</p>	<p>· 전문교과의 이수 학점을 시·도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의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권한을 조정함</p>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⑩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p> <p>⑪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⑩ <u>전문계</u>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p> <p>⑪ <u>전문계</u>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p>	<p>· 계열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u>증감</u> 운영에 관한 사항</p>	<p>·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 <u>지역 산업체의 요구</u>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p>	<p>·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성 확대</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 중략 .....</p> <p>(2) 운영 ..... 중략 .....</p> <p>(캐)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 중략 .....</p> <p>(2) 운영 ..... 중략 .....</p> <p>(캐)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하되, <u>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산학협력에 기반한 과목의 개발과 운영시 이를 간소화</u> 할 수 있다.</p>	<p>·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보장</p>
<p>다. 학 교</p> <p>(1) 편 성 &lt;공통 지침&gt; ..... 중략 .....</p> <p>(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p>	<p>다. 학 교</p> <p>(1) 편 성 &lt;공통 지침&gt; ..... 중략 .....</p> <p>(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u>산업체 인사</u>,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p>	<p>·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능성 확대</p>
<p>다. 학 교</p> <p>(1) 편 성 &lt;공통 지침&gt; ..... 중략 .....</p> <p>(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p>	<p>다. 학 교</p> <p>(1) 편 성 &lt;공통 지침&gt; ..... 중략 .....</p> <p>(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u>관련 산업체의 요구</u>,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p>	<p>·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보장</p>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 <u>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산업체의 요구도</u>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p>	·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보장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되, <u>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성 고양을 위해 증배하여 편성할 수 있다.</u></p>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⑪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⑪ <u>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열별 필수 과목과 학과별 필수 과목은</u>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p>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b>(대) 고등학교</b> ..... 중략 .....</p> <p>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 및 <u>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된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u>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보장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을 통한 전문계 고교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추구

- 직업교육 전담 고교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
- 10년이라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은 전문계 고교 다양화 및 교육과정 자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교육과정의 다양성 및 자율성이 요구되는 전문계 고교와 기타계 고교에서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학년과 11학년에 걸쳐 56단위(7차 교육과정) 또는 60단위(2007 개정 교육과정)를 이수하게 되어 있어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예상 쟁점 및 고려 방안:

- 쟁점: 건전한 국민기본교육으로서 필요한 필수 교과 학습량 축소에서 따른 문제 제기 가능성이 예상됨. 특히, 일반계 고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계 고교생 대상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은 획일적 인간 양성 우려 등과 같은 쟁점 대두 가능성이 있음

- 방안: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 단축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내용을 9년간 분량으로 교육과정 내용과 배분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조정

※ 국민기본교육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의무교육기간(현행 9년)과 국민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초시민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②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선(안)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9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의무교육기간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60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나)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다) 교원 및 시설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1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가) <u>보통 교과는 전문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중심으로 8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u>  (나) <삭제>  (다) <삭제>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 조정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 인문·기초 교육 소홀 방지를 위해 보통 교과 최소이수 기준 제시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4) 11, 12학년의 특별 활동에 배당된 8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4) 특별 활동에 배당된 12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 조정에 따른 관련 내용 수정 · 교양 교육 소홀 방지를 위해 특별 활동 이수 기준 과 학교장 재량 범위 제시

□ 집중적 전문 교육 강화를 위한 무학년제, 학점이수제<sup>4)</sup> 도입

- 학생들의 소질과 직업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능·기술 능력 제고를 위한 무학년제, 학점이수제 등의 도입 검토
- 동일한 반에 학업성취도 또는 기능·기술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질 집단 편성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사용 등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되고 있음. 중간 수준에

4) 수업 시수를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단위(1단위란 1주일에 한 시간씩 17주(한 학기) 동안 이수하는 학습량을 의미)로 표현되어 있으나 관련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학점'으로 통일하여 표현함.

맞추어 수업을 진행 할 경우 우수한 학생과 열등한 학생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학년의 의미 보다는 자신이 어떤 수준의 과목을 선택하여 듣는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가가 핵심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 능력에 따른 필요 교육과정 이수와 다양하고 집중적인 전문 교육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정형화된 학년제 보다 융통성 있는 무학년제를 도입한 학제가 적절함.
  - 기능·기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전문계 고교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전문계 고교 학사 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음.
  - 능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기능·기술 능력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년 및 학점 이수 과정 개방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 개방과 일과 학습의 호환성 제고
  - 산업체 위탁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관련 요건 완화
- 예상 쟁점 및 고려 방안:
  - 쟁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부합된 균형 있는 교육과정 경험 기회 제한, 무학년제, 학점 이수제에 따른 학사 운영 혼란 및 편법 운영 가능성 상존
  - 방안:
    - ① 학생 자신의 능력과 적성, 그리고 요구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능력별·수준별 반편성이 가능한 교육과정 지침 마련
    - ② 방학 및 방과후 시간에 민간이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시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고 학점도 부여하는 방안 고려. 전문계 고교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직업훈련기관이나 기술계 학원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위탁교육 형태로 실시하며, 이러한 위탁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의 선택 과목 이수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교육과정을 개방; 효율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훈련기관의 활발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에서 출발하며, 학교가 구비하지 못한 인프라가 요구되는 학과의 경우 학교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 등의 실기능력 함양은 훈련기관의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려
    - ③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선(안)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 중략 ..... 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 중략 ..... 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u>무학년제 도입·운영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u>	· 무학년제 도입·운영 가능성 보장

5) 노동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 사업’의 결과를 활용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재)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재)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u>학년에</u> 관계없이 마련하고 지원한다.</p>	<p>· 무학년제 도입·운영 가능성 보장</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태)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태)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u>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교장이 인정한 기술계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이수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u></p>	<p>· 학점이수제 도입 및 타 직업 교육훈련기관 연계 가능성 보장</p>
<p>다. 학 교</p> <p>(1) 편 성 &lt;공통 지침&gt; ..... 중략 .....</p> <p>(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p>	<p>다. 학 교</p> <p>(1) 편 성 &lt;공통 지침&gt; ..... 중략 .....</p> <p>(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u>학생의 능력 고려 등 필요에 따라 학년을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u></p>	<p>· 무학년제 도입·운영 가능성 보장</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태) <b>고등학교</b> ..... 중략 .....</p> <p>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태) <b>고등학교</b> ..... 중략 .....</p> <p>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u>전문계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와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관련 기술계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u></p>	<p>· 학점이수제 도입 가능성 보장</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태) <b>고등학교</b> .....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태)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중략 .....</p> <p>(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 중략 .....</p> <p>(태) <b>고등학교</b> .....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태)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중략 .....</p> <p>(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고, <u>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전문 교과와 관련이 있는 과목 이수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u></p>	<p>· 학점이수제 도입 가능성 보장</p>

□ 조기 졸업제 도입 및 활용 방안 검토

- 단기간의 집중적 전문 교육을 통한 우수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 현장의 조기 진출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조기 졸업제 도입
- 현행 학제의 기본 구조는 학생들의 개인적 능력에 상관없이 학교 단계별 수업 연한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진급하고 졸업하도록 되어 있음.
  - 수업 연한 중심에서 학업 성취 수준이나 기능·기술 수준 등 질적 기준에 의해 진급 및 졸업을 인정하는 방안 도입 검토
  - 질적 기준에 의한 진급 및 졸업 인정 방안의 도입은 수업 연한 단축 효과와 조기 졸업 가능성 확대 및 능력 중심 기반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 쟁점 및 고려 방안:
  - 쟁점: 전문계고 조기 졸업에 따른 학사 운영 혼란 우려 및 기초 능력 함양 기회 제한 가능성 상존
  - 방안:
    - ① 기능·기술 영재(6), 기능반 소속 학생, 기업-공고연계맞춤형인력양성 대상 학생(<부록 1 참조>),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별한 후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 방학 중 과정(계절 학기), 주말·야간 과정을 개설하고 과정 이수를 학점으로 인정
      - ※ 1안: 이수한 총 시간을 학점으로 환산(17시간을 1학점)하여 적용
      - ※ 2안: 기능·기술 영재의 경우 170학점 이상 이수시 졸업 가능 방안(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 기준 학점 준용) 고려
    - ②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1체제를 개편·확대하는 방안 고려(<부록 2 참조>)
    - ③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선(안)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중략 ..... (재)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중략 ..... (재)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학점을 10% 범위 내에서 <u>증감</u>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조기 졸업 가능성 보장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 중략 ..... 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 중략 ..... 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u>증감</u> 운영에 관한 사항	· 조기 졸업 가능성 보장

6) 전문계 고교에서의 기술 영재는 “기술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구현하여 기술적 문제를 분석·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과 태도가 있거나 잠재력을 지닌 인재”로 정의할 수 있음. 이병욱 등(2008)은 관련 분야 패럴에 의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기술 영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을 창의성,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 아이디어 표현 능력, 아이디어 구현 능력, 기술적 지식의 적용 능력, 기술적 태도 등 6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음.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p>	<p>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p> <p>(1) 편 성 ..... 중략 .....</p> <p>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u>무학년제 도입·운영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u></p>	·조기 졸업 가능성 보장
<p>&lt;학교급별 지침&gt; <b>(㉮) 고등학교</b> ..... 중략 .....</p> <p>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b>(㉮) 고등학교</b> ..... 중략 .....</p> <p>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u>전문계 고등학교에 편성된 전문교과와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 또는 학교장이 인정하는 관련 기술계 직업훈련기관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u></p>	·조기 졸업제 도입 가능성 보장
<p>&lt;학교급별 지침&gt; <b>(㉮) 고등학교</b> .....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중략 .....</p> <p>(㉮)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p>	<p>&lt;학교급별 지침&gt; <b>(㉮) 고등학교</b> ..... 중략 .....</p> <p>(2) 운 영 ..... 중략 .....</p> <p>(㉮)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중략 .....</p> <p>(㉮)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고, <u>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전문 교과와 관련이 있는 과목 이수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u></p>	·조기 졸업제 도입 가능성 보장

□ 전문계 고교-전문대학 통합과정(4년제) 도입

- 전문계 고교 입학 후 4년 만에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단기 경로를 제공하여 중견 기능·기술 인력의 조기 확보 및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전공 교육 중복 요소 제거
  - 전공 학과 및 계열별로 대학 진학자를 위한 수업 연한을 다양하게 하여 계속교육과 중국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현재는 전문계 고교-전문대학 교과과정간 연계가 미흡하여 고등교육 단계에 진학한 전문계 고교생은 전공을 중복 학습하고 있는 실정임
- 전문계 고교-전문대학간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공 심화 교육이 가능하며 전문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동일 계열 산업체 취업과 연계 추진 방안 모색
  - 전문계 고교 다양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전문계 고교-전문대학간 일관·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예상 쟁점 및 고려 방안:
  - 쟁점:
    - ① 전문계 고교 조기 졸업에 따른 학사 운영 혼란 우려

- ② 기초 능력 함양 기회 제한 및 기초 학력 부족 등으로 전문대 진학 후 이론 과목 학습 장애 가능성 상존
- ③ 기존의 전문계 고교-전문대학 간 연계 사업을 통한 교과과정이 형식적인 연계에 불과하였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수업 연한만을 단축시켜 양질의 중견 기능·기술 인력 양성 체제 구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이 예상됨

- 방안:

- ① 전문계 고교-동일계 전문대-동일계 산업 현장으로의 중단 없는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 경험과 성과가 있는 전문계 고교와 대학을 선발하여 인증·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② 기존에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 중인 전문계 고교-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2+2,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중소기업기술사관육성사업)과 기업-전문대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고려(<부록 3~5 참조>)
- ③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과목선 이수제 적극 활용: 고교 재학 중 이수한 대학 수준의 교과목에 대하여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고등교육법 및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참조)를 적극 활용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모든 국민을 위한 직업 친화적 교육과정 구축**

-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직업 친화적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와 교사가 부족하고, 초등 교육 단계에서 직업 친화적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교사 양성 및 연수 체제가 미흡함
  -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를 교과 전담제로 운영하는 비율은 약 7.8%에 불과함
-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직업 친화적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험·실습 시설 및 보조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직업 친화적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교과 수업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초등학교 30.0%, 중학교 73.7%, 고등학교 64.0%에 불과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직업 친화적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과 수업 전용 교실 보유율 저조

<표 5> 교과 수업 전용 교실 보유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보유율(%)	30.0	73.7	64.0	55.9

자료: 김두정 외(2009).

- 직업 친화적 교육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습실을 1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초등학교 16.3%, 중학교 94.6%, 고등학교 79.1%임
- 초등학교의 경우 직업 친화적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습실 보유율이 극히 저조

<표 6> 실습실 보유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보유율(%)	16.3	94.6	79.1	63.3

자료: 김두정 외(2009).

- 직업 친화적 교육을 지원하는 보조 강사 및 보조 교사가 지원되는 경우는 평균 0.8%에 불과

<표 7> 보조 강사 및 보조 교사 지원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균
지원 비율(%)	0.4	0.6	1.4	0.8

자료: 김두정 외(2009).

- 국민기본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를 유도하고 직업 선택 및 준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로 탐색, 진로 지도 과정을 학제에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교육과정에 일상 생활과 연계한 프로젝트 과제 수행 (예: 물건만들기)을 통해 경험 중심의 직업교육과정 도입·운영
- 실과(초등), 기술·가정(중등) 등 직업교육 관련 교과서를 기존의 이론 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직업 친화적 교육 마인드 형성 제고
- 고교 선택 교과 교육과정상의 과목군 설정과 관련하여 과목의 성격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대상 과목 여부 등 그 특성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수학’, ‘과학’, ‘기술·가정’이 과학·기술 과목군으로 함께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개선이 요구됨. 특히, 이 중 최소 1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지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향이 농후한 일반계 고교 및 기타계 고교의 현실에서 학습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대상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여도 기술·가정 교과의 과목(6개 과목)이 선택될 수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큼.
- 예상 쟁점 및 고려 방안:

- 쟁점: 직업종합체험실 설치 및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관련 쟁점 대두 예상

- 방안:

- ① 직업 친화적 교육 과정 이수 시작 학년을 현재 5학년에서 저학년으로 조정: 현재 5학년 부터 10학년까지 이수하도록 한 실과(기술·가정) 교과 과정을 저학년부터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 ② 직업 친화적 교육을 위한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방법 재구조화: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교육과정을 직업 친화적 교육에 적합한 활동 중심, 체험 중심으로 재구조화
- ③ 직업 친화적 교육 담당 교사의 전담제를 권장

· 초등 교과전담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2.22 대통령령 제20635호) 제 33조 제②항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의 내용에 체육, 음악, 미술, 영어와 아울러 ‘실과’를 명시하고, 교과전담교사 산정기준을 추가해야 함

④ 실험·실습 환경 개선: 초·중등학교에서 직업 친화적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직업체험 종합실습실’을 1학교 1실 설치

· 현재 실과(기술·가정) 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 수업 전용 교실 및 실습실을 ‘직업체험 종합실습실’로 개축  
 · 현재 교과 수업 전용 교실 및 실습실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에는 유휴 교실을 확보하여 ‘직업체험 종합실습실’을 신설

⑤ 직업 친화적 및 진로 탐색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교과인 기술·가정 교과의 선택 과목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마련함. 예를 들어 기술·가정 교과의 6개 선택 과목을 별도의 과목군으로 묶어 선택 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은 선택 할 수 있도록 지침 수정

⑥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선(안)

2007 개정 교육과정	수정안	사유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중략 ..... (가)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목 이상,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 중략 ..... (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중략 ..... (가)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수학·과학 과목군(수학, 과학), ③ 기술·가정 과목군(기술, 가정), ④ 체육 과목군(체육), ⑤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⑥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⑦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①~⑤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목 이상,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 직업친화적인 교과의 선택 가능성 확대

#### 4. 제 언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선진화와 관련된 개선이 문서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를 둘러싼 지역 사회, 산업체, 국가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함.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내용을 제언 하면 다음과 같음.
  - 학교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특히, 산업 사회 수요의 다변화로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을 요구하는 빈도, 범위, 수준 등이 다양하고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담당 부서와 교육과정 연구·개발 기관과 정부의 주관 부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게 증폭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하여 교원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해야 함. 학교 교육과정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노출되는 이유는 교육과정의 편성, 더 나아가 개발에 대한 교원들의 무관심과 역량 미흡 때문임. Sabar(1985)가 구분한 학교 교육과정 개발 활동 유형인 ‘자체 개발(creating), 선택(selecting), 수정·보완(adaptions)’ 중에서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활동은 ‘선택’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선택도 교육 내용의 선택보다는 교과목에 대한 일부 선택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그러나 지식·기술의 발전과 교육과정의 분권화, 특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전문계 고교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활동은 점차 ‘자체 개발’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즉, 교육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및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교과목에 대한 자체 개발도 가능해야 함. 따라서, 향후,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자체 개발, 수정·보완, 선택’의 교육과정 개발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함.
  - 국가와 시·도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위주의 교육과정 개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전문계 고교, 더 나아가 각 계열의 특성과 다양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지침을 설정하거나 개발해야 함. 특히,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적 특징과 지역 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중점 시책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해야 함.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서 각 학교가 교육 목표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정보 및 인적 자원, 그리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각 학교 특색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는 기회와 지원 방안을 마련되어야 함.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진들이 주로 보통 교과 교원 출신인 점을 고려한다면 행정 편의적으로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의 편성 기준으로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편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는 반드시 전문교과 출신 장학진이 배치되어야 함.
  -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적용(use) 보다는 다양한 전개(evolution)가 보장된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선진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제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함. 학교는 자체 교과별 연구회 활동이 활성화

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교육과정의 다양한 전개를 위해서는 각 교과목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함. 또한, 교육과정의 각 영역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 운영 방법, 내용, 시기 및 담당자, 지역 사회와 산업체의 연계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실현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함.

- 전문계 고교의 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며, 꾸준한 질 관리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평가를 통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누가, 어떠한 역할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행해야 할 것임. 평가 결과에 터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이 개선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수시로 수정·보완해야 함.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개선과 효율적인 편성·운영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를 수행해야 함. 이와 같은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경우, 국가 수준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 수준,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탄력성을 보장 할 수 있을 것임. 교육과정 질 관리를 정례화 할 경우 교육과정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전문계 고교 학교 교육과정의 개선과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임.
-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문계 고교를 중심으로 유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와의 역할 분화와 수직적·수평적 협력, 그리고 연계 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시 교원, 산업체 대표, 노조 대표, 정부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현행처럼 정부의 요구에 의해 전문계 고교가 산업체 요구를 수동적으로 분석·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소극적인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내용과 인력을 요구하고 이를 학교가 받아들여 개발한 교육과정에 의해 양성된 인력이 산업체에 배치되는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함. 이를 위해 학교는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과 참여를 허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방이 요구되고, 산업체 대표, 노조, 그리고 산업별 협의체는 자발적인 학교 교육과정 참여와 필요한 인식 전환, 그리고 능동성이 선결되어야 함. 아울러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에 기반하여 지역내 고등교육훈련기관(전문대학, 폴리텍대학, 사이버대학 등)과의 학점 교류 촉진과 학습자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학습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 간 시설·설비, 인적 자원의 공동 활용 및 교류가 강화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참고 문헌

- 김두정 외(2009a). **국가수준 교육과정 적용 종합실태 조사 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김두정 · 이병욱 · 박동열 · 이광호 · 류병구(2009b). **국가수준 교육과정 적용 종합실태 조사 보고서 -전문계 고등학교 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 박동열 · 정태화 · 옥준필 · 송달용 · 이병욱 · 박철우(2008). **전문계 고교 기능 재정립 수립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병욱(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과 연계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개선 방향. **2005년도 직업 교육 관련 학회 및 단체 공동 학술 대회 자료**. 197~227.
- 이병욱 · 문대영 · 김태규 · 류병구(2008). **창의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기술 영재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 이용순 · 이병욱(200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실태 조사 - 학교 수준에서의 개발 과정과 편성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2006).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 패러다임: 인적자원입국. **KRIVET 총서 ② 국가인적자원개발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abar, N.(1985).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London: Harper & Row, Publishers.

<부록 1> 2009년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참여 학교 현황

구분	학교	구분	학교
1	강서공고	34	순천공고
2	경기기계공고	35	순천전자고
3	경덕공고	36	시화공고
4	경상공고	37	아포공고
5	경성전자고	38	연무대기계공고
6	경주공고	39	영남공고
7	계룡공고	40	영동산업과학고
8	계산공고	41	예산전자공고
9	광주공고	42	용산공고
10	광주전자공고	43	원주공고
11	군자공고	44	유한공고
12	금정전자공고	45	은곡공고
13	금호공고	46	의정부공고
14	김해건설공고	47	이리공고
15	김화공고	48	인천여자공고
16	대구달서공고	49	전남공고
17	대양전자정보고	50	전주공고
18	대전공고	51	조일공고
19	대전전자디자인고	52	줄포자동차공고
20	동일공고	53	진안공고
21	동의공고	54	진주기계공고
22	마산공고	55	창원공고
23	목포공고	56	창원기계공고
24	미원공고	57	천안공고
25	부산공고	58	청주기계공고
26	부천공고	59	춘천기계공고
27	부평공고	60	충남기계공고
28	삼례공고	61	태백기계공고
29	삼일공고	62	평촌공고
30	서울공고	63	포항제철공고
31	성남공고	64	해남공고
32	송파공고	65	해운대공고
33	수원공고	66	현대정보과학고

<부록 2> 공고 『2·1체제』 참여 학교 현황

구분	교육청	해당 전문계고
1	서울	수도전기공업고
2	부산	금정전자공업고
3	경기	안중고
4	강원	원주정보공업고
5	충남	진산공업고, 홍성공업고
6	전북	진안공업고
7	전남	고흥도화고, 구림공업고, 함평월야종합고
8	경북	구미전자공업고
9	제주	중문상업고
	계	12개교

<부록 3>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 참여 학교 현황

□ 1모형 선정 사업단(취업/진학 병렬형)

구분	대학	전문계고
1	가톨릭상지대학	경안여자정보고, 상지여자고
2	경남정보대학(금형)	부산기계공업고, 부산산업과학고
3	경동정보대학	경북생활과학고, 대구관광고
4	경북과학대학	경신정보과학고, 명인정보고, 성주여자고
5	광주보건대학	광주자연과학고, 전남공업고, 광주금과공업고
6	구미1대학	구미전자공업고, 구미정보여자고, 선산여자종합고, 상주여자상업고, 포항여자전자고, 청도전자고
7	대덕대학	대성여자정보과학고
8	동의과학대학(기계)	경남공업고, 동의공업고, 부산공업고, 해운대공업고
9	마산대학	경남전자고, 마산공업고, 밀양공업고, 창원공업고
10	명지전문대학	선일여자상업고, 성덕여자상업고, 덕수고, 한세전산고
11	부산여자대학	한독문화여자고, 부산마케팅고, 대연정보고, 부산관광고, 부산정보고
12	부산정보대학(관광)	부산정보관광고, 해운대관광고, 부산관광고
13	영남이공대학(메카)	대중금속공업고
14	영남이공대학(CAD)	경북공업고, 대구동부공업고, 대구서부공업고
15	조선이공대학(메카)	광주공업고(전자/메카), 광주전자공업고, 광주송신공업고, 광주동일전자정보고, 광주정보고
16	조선이공대학(CAD)	광주공업고, 광주전자공업고, 금과공업고, 송신공업고
17	춘해대학	울산생활과학고, 한독문화여자고, 경주여자정보고
18	충청대학(반도체)	미원공업고, 증평공업고
19	경남정보대학(기계)	부산기계공업고
20	공주영상대학	전남미용고
21	동강대학(전기)	광주공업고, 승의고
22	동의과학대학(조선)	부산기계공업고
23	부산정보대학(건설)	부산공업고, 김해건설공업고
24	서강정보대학	광주여자상업고, 전남여자상업고, 동일전자정보고, 광주전산고
25	송원대학	전남공업고, 광주공업고, 순천공업고, 나주공업고
26	수원여자대학(미용)	인천생활과학고
27	순천청암대학(현대)	여수정보과학고, 광양실업고, 순천효산고, 순천청암고, 고흥실업고
28	안동과학대학	상주여자상업고, 영주동산고, 풍산고, 한국생명과학고
29	울산과학대학(관광)	울산생활과학고
30	전주기전대학	전주영상미디어고, 전주생명과학고, 온고을여자고, 완산여자고
31	청강문화산업대학(임베)	분당정보산업고, 용인정보산업고, 여주제일고, 염광여자정보교육고
32	충청대학(미용)	제천산업고

□ 2모형 선정 사업단(진학 → 취업 순차형)

구분	대학	전문계고
1	거창대학	거창산업과학고, 함양제일고, 진주경진고, 경남자동차고
2	경기공업대학	평촌공업고, 부천공업고, 산본공업고, 시화공업고, 계산공업고
3	대경대학	대구자연과학고, 삼성생활예술고, 상서여자정보고
4	대림대학	평촌공업고, 수원공업고, 수원정보산업공업고, 광명공업고, 용산공업고, 서울전자공업고, 덕일전자공업고
5	대원과학대학	제천디지털전자고, 장호원고, 안성종합고, 충주공업고, 장호공업고
6	동강대학(문화)	전남여자상업고, 광주여자상업고, 동일전자정보고
7	동원대학	서울관광고, 창명여자고, 성남정보산업고, 서서울생활과학고, 분당정보산업고
8	두원공과대학(LCD)	과주공업고, 시화고업고, 주엽공업고, 일산공업고, 안성두원공업고
9	상지영서대학	원주정보공업고, 원주공업고
10	송호대학	서울관광고, 흥익여자디자인문화고, 신경여자실업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석정여자종합고, 황지정보산업고
11	수원여자대학	한국조리과학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인천생활과학고, 인천여자공업고, 고양고
12	순천청암대학(IT)	순천청암고, 순천전자고, 순천공업고, 한국항만물류고
13	신성대학(제철)	합덕산업고, 논산공업고, 경기기계공업고, 시화공업고
14	안산1대학	안산여자정보고, 안양여자상업고
15	오산대학	한국조리과학고
16	익산대학	이리공업고
17	장안대학	삼일상업고, 매향여자정보고
18	전주비전대학	이리공업고, 진안공업고, 정읍제일고, 삼례공업고
19	주성대학	금왕공업고, 부강공업고, 청주기계공업고, 충북공업고
20	창신대학	창원기계공업고, 경남전자고, 마산공업고, 진해중앙고, 경남관광고, 한일전산여자고, 진주경진고
21	청강문화산업대학(물류)	이천제일고, 여주제일고, 경민정보산업고, 염광여자정보교육고, 은평웹미디어고, 양영디지털고, 매향여자정보고, 수원정산고
22	청강문화산업대학(IT)	용인정보산업고, 마장고, 하남정보산업고, 분당정보산업고, 성남정보산업고, 평택여자고
23	충북과학대학	충북공업고, 증평공업고, 충주공업고, 제천디지털전자고
24	충청대학(건설)	증평공업고, 청주농업고, 충주공업고
25	한국관광대학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관광고, 학산고, 이천제일고, 인천생활과학고
26	혜천대학	대전동아공업고, 대전공업고, 유성생명과학고, 논산공업고, 공주생명과학고, 천안농업고, 부여산업과학고
27	구미1대학	구미전자공업고, 구미정보여자고, 금오공업고, 안동공업고, 상산전자고
28	대덕대학(정밀)	충남기계공업고, 대전동아공업고, 대덕전자기계고
29	두원공과대학(설계)	안성두원공업고, 팔달공업고, 경기기계공업고, 이천제일고, 충주상업고, 평택기계공업고, 시화공업고, 수도권기공업고
30	신성대학(건설)	논산공업고, 동일공업고, 주산산업고, 서산중앙고, 천안공업고
31	울산과학대학(조선)	현대정보과학고
32	울산과학대학(환경)	울산공업고

<부록 4>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사업 참여 학교 현황

구분	대학	학과	연계 전문계고
1	두원공과대학	기계과 (조정밀기계전공)	안성두원공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휘경공업고등학교 시화공업고 김포제일공업고
2	청강문화산업대학	이동통신과	리라컴퓨터고등학교 서울디지털고등학교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삼일공업고등학교
3	경기공업대학	금형디자인과 (금형디자인전공)	부천공업고등학교 산본공업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
4	대덕대학	총포광학과, 특수무기과 (방산메카트로닉스 코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5	충청대학	디지털전자통신과	증평공업고등학교 충북공업고등학교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6	영남이공대학	기계과 (메카트로닉스 전공)	경북공업고등학교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대구서부공업고등학교
7	순천청암대학	IT학과	순천공업고등학교
8	울산과학대학	환경생활화학과 (정밀화학)	울산공업고등학교
9	창원전문대학	기계설계과(기술사관반)	창원공업고등학교
10	제주관광대학	메카트로닉스학과 (계열) (산업기계전공)	한림공업고등학교

<부록 5> 기업-전문대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학교 현황

구분	대학	학과
1	두원공과대학	기계과 (VK전공)
2	마산대학	컴퓨터 전기계열
3	명지전문대학	정보통신과
4	순천제일대학	자동차기계과 (제철기계정비, 기계설계) 컴퓨터과학과 (제철프로세스설계)
5	아주자동차대학	자동차계열
6	영진전문대학	컴퓨터 정보계열
7	울산과학대학	디지털기계학부 조선해양전공 총 4개학부 11개 전공 13개학과
8	제주산업정보대학	자동차과
9	창원전문대학	품질경영과
10	청강문화산업대학	캐릭터산업디자인과 디지털영상과
11	충청대학	전기전자학부 반도체장비전공 환경전공
12	한국폴리텍Ⅱ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과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컴퓨터응용금형과 자동차과
13	한국폴리텍Ⅲ대학	전기설비 디지털전자통신응용 초정밀고속가공 디지털콘텐츠제작 디자인시제품제작
14	한국폴리텍Ⅴ 대학	광전자과

<부록 6> 해외 직업 친화적 교육과정 사례 및 시사점

□ 미국의 ‘기술 교양 교육’과 ‘STEM 통합 교육’ 사례

- 미국의 국제기술교육협회(ITEA)는 10여 년의 연구를 통해 전 국민의 기술적 교양 (technological literacy)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표준을 마련하였음
- 시사점: 기술 기반 사회에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기술적 교양을 갖추어야 함을 인식하고,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기술적 교양을 기를 수 있는 직업 친화적 교육을 강화해야 함

- 미국의 국제기술교육협회(ITEA)에서는 전 국민의 기술적 교양(technological literacy) 증진을 목표로 1994년 10월부터 2003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 TfAAP(Technology for All Americans Project)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었음(ITEA, 1996; 2000; 2003).
- 제1단계(1996년):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술과 교육의 정당성과 구조(Rationale and Structure.: Technology for All Americans: A Rationale and Structure for the Study of Technology)
- 제2단계(2000년): 기술과 교육의 국가 표준 교육과정 내용(STL: Standards for Technological Literacy: Content for the Study of Technology, 2000)
- 제3단계(2003년): 기술과 교육의 학습평가, 교육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AETL: Advancing Excellence in Technological Literacy: Student Assessment,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ogram Standards)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중 과학기술 발전,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 평생기술교육의 강화 등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계되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통합 교육이 추진되고 있음
- 시사점: 21세기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과학기술교육 및 평생기술교육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초·중등 단계에서의 과학 교육 및 기술 교육과 평생기술교육 및 평생 직업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친화적 교육을 강화해야 함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목표로 대변됨
  - 1) 열린 인터넷 환경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증진
  - 2) 투명하고 밀접하게 연계된 민주주의
  - 3)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확대
  - 4) 과학기술을 통한 미국 국가경쟁력의 강화
  - 5) 21세기 경제를 위한 과학기술교육
  - 6)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기술교육
  - 7) 국가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의 강조
  - 과학기술교육 정책 중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계되는 k-16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자료: 노은주(2009). 오바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술과 미래(2009, 3/4). 한국산업기술재단. (재구성)

#### □ 영국의 ‘Design & Technology’ 사례

- 1976년 재정 악화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영국은 제조업의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자인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1988년부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필수 교과로서 ‘디자인과 기술(Design & Technology)’을 적용하여 국가 주요 산업 정책과 초·중등 교육과정의 연계를 시도하였음
- 시사점: 국가 수준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과 초·중등 단계의 과학·기술·공학 친화적 교육 및 직업 친화적 교육을 긴밀하게 연계하는 미래교육과정의 틀을 마련해야 함

-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총리는 “디자인을 모르면 사임하라(Design or Resign!)”며 각료들에게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디자인 진흥 정책을 주문하였음. 제조업 비중이 갈수록 약해지는 영국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기반하여 디자인이라는 창조 산업을 성장시켜 디자인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음.
- 영국이 디자인 산업의 세계적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의사결정자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1988년부터 적용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도입된 필수 교과 ‘디자인과 기술(Design & Technology)’의 성공적 정착을 간과할 수 없음.
- 초·중등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과 문제 해결 과정의 이론과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을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연계한 것은 영국이 디자인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성공 요인으로 작용함.

#### □ 일본의 ‘프로젝트 과제 수행(물건 만들기)’ 사례

- 프로젝트 과제 수행(물건 만들기)을 통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 성취감과 기쁨을 체험하는 교육,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실천력과 자신감을 얻는 교육, 물건 만들기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을 관련법을 제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건국 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국가 수준에서 추진했던 ‘1인 1기 교

육'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직업 친화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관련법 제정이 필요함

- 일본에서는 1998년 물건 만들기(ものづくり)기반기술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각 교과에서는 '물건 만들기'를 통한 교육으로 ①물건을 만드는 마음과 향상되어 가는 기쁨, ②실제로 만들어 보고, 할 수 있다는 마음, ③'물건 만들기'가 일본에서 다하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자 함. 일본의 기술 교육에서는 '물건 만들기'를 행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1998년(평성 10년) 3월 19일 공포된ものづくり기반기술진흥기본법 제 16조(학습의 진흥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부는, 청소년을 시작으로 넓게는 국민이 모든 기회를 통해ものづくり기반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어짐과 동시에,ものづくり기반기술에 관한 능력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운이 양성되도록,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기술에 관한 교육의 충실을 시작으로 하는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ものづくり기반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ものづくり기반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계발 및ものづくり기반기술에 관한 지식의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I. 들어가며

올해 1월 19일자 매일경제신문 1면에는 ‘大學민국 진학률 84%의 허상’이라는 제목에 ‘미래 못 찾은 한국석사’ ‘세계 누비는 독일 고졸’이라는 부제의 기사가 실렸다. 제목만 보고도 한국 교육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나는 기사였다. 지금 한국의 진학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다. 일반계, 전문계를 가리지 않고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표가 된 듯 하다. 그러나 고교에서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교육력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거나 무책임한 회피다. 대학 입학정원이 수능응시생보다 6만명이나 많은 상황에서 원하는 모든 학생은 거의 진학이 가능한 조건이다. 이 조건 속에서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의 결과를 조금만이라도 깊이 생각해보다면 현재의 진학중심 진로구조는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청년실업은 전체실업의 2배를 넘고, 취업준비생은 고학력자일수록 많음을 볼 때 고학력화가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학졸업을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였던 대졸자들이 고졸자의 일자리로 하향취업하게 되어 사회적 기회비용만 늘어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무분별한 대학의 증가가 한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거의 없다. 대학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진학희망자가 더 늘어나게 되어 소위 일류대에 대한 병목현상만 커져 사교육압력이 사회전체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오고 말았다. 사회분위기가 그렇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거나 오류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중학교나 고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로지도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여 대졸 백수를 만들어 내는 결과가 될 때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싶다.7)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시대다. ‘졸업한 후에 직업제공 능력을 가진 대학으로의 진학이 아니라면 분명 잘못된 진로 선택이다. 일자리를 가진 후엔 대학진학이 얼마든지 가능한 반면, 무조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일자리를 갖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원인이 학교나 개인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 문화적·사회구조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학벌사회를 강화시켜온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과도한 대학진학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후기 중등교육의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며 계속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평생학습사

7) 서울의 경우 매년 약3,500여명의 일반계고교생이 2학년을 마친 후 직업교육을 받기위해 산업정보학교를 희망한다. 10개 학교 규모의 학생들이 2년간 시간을 낭비하고 진로를 바꾸길 희망하지만 반 정도만 겨우 수용가능할 뿐이다. 자기 소질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반계고교를 진학한 결과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인 기능대학의 입학생의 반 이상이 대졸자들이다. 조기에 직업교육기관으로 진로선택을 했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취업기능 강화’ 사업은 정확한 정책목표라 할 수 있다. 전문계고의 설립취지에 맞게 취업능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정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한 분야다. 교육과정의 틀에 따라 전문계고의 교육목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발표자의 주제선정이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간단한 검토의견과 토론자 나름대로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을 붙이고자 한다.

## II. 발표내용에 대한 의견

### 1. 추진 배경

인구 구조학적 변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조기 확보 체계 구축, 국가 선진화를 위한 ‘고기술, 고숙련’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직업친화적 교육 환경 조기 구축,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계고 교육과정 자율화 및 선진화 방안 차원에서 교육과정 선진화는 인구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확보와 취업능력 제고를 통한 실업을 극복대책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라 볼 수 있다. 발표자의 의견대로 OECD 국가에 비해 최초 입직연령이 3년 정도 늦어 생산가능인구 양성 배출에 큰 지장이 되는 이유는 병역문제와 함께 과도한 진학이 중요한 원인이다. 따라서 고기술, 고숙련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근로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제공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초를 강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구직청년들의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한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고용구조임을 고려한다면 양질의 근무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발제자의 의견대로 전체 취업률을 높이려면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하였던 청년실업 대책(2007년 4월 발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건>)이나 직업교육정책(2005년 12월 발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8년 6월 발표 한국형 마이스터고 도입 및 육성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청년실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아직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고<sup>8)</sup>, 구직란속의 구인란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인력의 질 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계고교생 중 능력 있는 기술영재 학생을 선발하여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이 사회적으로 대우 받는 고급인력을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대우 받는 일자리, 생산성 있는 기술인력으로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성공경험들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출발까지 체계적 관리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가게 될 방향인데 비해 ‘수업연한 유연화’는 기대되는 성과에 비해 추진과정의 문제점

8) 올해 3월 삼성경제연구소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라는 Issue Paper에 의하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족인원은 매년 20만명 전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08년 하반기 현재 중소기업 인력은 156천명이 부족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발제자의 의견대로 “노동시장(산업체)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포함한 제도적 선진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 학교의 교육 내용과 운영 등에 대한 지배 구조 개선을 고려할 필요”는 대다수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수요자인 산업체인 경우 거의 중소기업일 경우 적극적 개입의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역시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체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체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전문계고와의 산학협력에는 관심이 미흡한 편이며, 그나마 추진하는 산학협력도 대학단위와의 산학협력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07년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건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제와 Sector Council 활성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9)

여기에서 발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여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점은 ‘학교의 교육내용과 운영 등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투자와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찾기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전문계고 간의 경쟁과 책무성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과정과 내용은 큰 방향에서 자율화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자율화의 전제에는 자율과 경쟁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해야만 책무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계고에는 특단의 조치 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학교 경영 책임자로서의 학교장은 비전과 철학 및 학교경영 능력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거치는 공모제 등을 통해 배치하고, 그 교장에게는 폭넓은 인사권을 주어 리더십을 부여하되 일정 기간 후의 성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교장직의 지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과 있는 조직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10)

교육적 성과에 대한 평가나 판단 없이 연공서열식 배치나 인간관계성 등에 의한 배치는 노력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거나 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방향으로 노력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교장에게 높은 책무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물으면 교장은 교사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성과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취업을 중요한 본질로 하는 전문계고의 경우는 취업률과 취업의 질 향상도를 매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 2. 추진방향

국가의 산업 정책 방향 및 인력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전문계고 교육과정 설계, 학생 수준과 산업체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계고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체계 구축, 2007 개정 교육과정

---

9)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등에 협조적인 기업에 산학협력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별 협의체인 Sector Council 도 활성화되어 기술개발·인력양성에 대한 개략적인 수요를 제시하고 협의체 차원의 산학협력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이 산업현장과 괴리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현재는 SC 상근 직원이 1~2명 수준으로 해당 산업계의 의견수렴,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이 거의 어렵다.

10) 서울의 경우 2010년부터 일반계고고 선택제가 운영됨에 따라 일반계고에서도 중학교를 대상으로 엄청난 홍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문계고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전문계고는 위기 상황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가로서의 교장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07.02.28 고시)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자율화·선진화에 필요한 탈규제화 촉진은 유의미한 정책방향이지만,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과의 연계에 기반한 수업 연한 단축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종전의 5년제 공업전문대가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연계한 제도였지만 학력주의·학벌주의의 장벽에 부딪혀 폐교되었던 사례도 있으나 전문대학의 반대가 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업연한의 단축은 학생의 대학진학욕구로 인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문대학들과의 적극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예컨대 전문대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 개발하고 전문계고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일정정도 학점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이수한 후 졸업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연한을 단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야간에 수업을 진행하여 직장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고교단계에서의 수업 연한 단축은 그 효과에 비해 수업 부실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 3. 세부추진 과제

#### □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취업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 개편 및 산업체 수요 반영을 저해하는 지침 철폐

발제자의 의견대로 산업체와 유관 기관의 인적·물적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는 교육과정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산업체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계 고교에서 보통 교과 선택 및 이수 학점에 대한 학교 자율성 강화는 입시구조 하에서 보통교과의 이수 단위 확대에 의한 전문계고 설립취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교과 최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듯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교과목 중심으로만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보통교육적 측면이 무시되어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배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전공영역간의 융복합이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사회구조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인문사회학적 소양은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는 직장에 소속된 존재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적 요인이 된다.

####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을 통한 전문계 고교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추구

교육과정의 다양성 및 자율성이 요구되는 전문계 고교와 기타계 고교에서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10학년과 11학년에 걸쳐 56단위(7차 교육과정) 또는 60단위(2007 개정 교육과정)를 이수하게 되어 있어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에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계고교와 차별화하여 2, 3학년과정에서 전문교과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발표자의 우려대로 차별적 개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7차교육과정이 구안될 당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10학년까지 적용함에 있어 전문계고교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것이 전문계고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에 많은 애로가 되었다. 따라서 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획일화 하여 9학년까지로 적용하며 교육내용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집중적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무학년제, 학점이수제 도입

‘학생들의 소질과 직업 적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준의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능기술 능력 제고를 위한 무학년제, 학점이수제 등의 도입 검토'는 의미 있는 제안이기는 하나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전문계고의 경우 인문계와 달리 모집단계에서 수준별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서상 무학년은 학년간·학생간 갈등요소를 제공할 가능성도 많아 생활지도상의 어려움도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학년제 보다는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적용과 프로젝트형 학습, 협동 학습의 적용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하고 방과후 활동 등의 교과외 활동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교과 능력을 극대화하면 될 것이다.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학점 인정”은 전문계고의 학사 운영 혼란과 전문계고 교육의 산업체 및 직업훈련기관 책임 전가로 이어져 전문계고의 자생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체 위탁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학점 인정 보다 산학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내실화가 더 좋은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 □ 조기 졸업제 도입 및 활용방안 검토

발표자께서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현장에 뿌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경우 조기 졸업의 목표가 유망한 대학에 빨리 진학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입직을 1년 빨리 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욕구는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2·1체제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의 경우 2+1제도는 1, 2학년 동안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3학년 동안 현장에서 현장기술교육을 하여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자질향상과 산업현장 적응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94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학생과 산업체의 기피로 폐지하게 된 제도이다. 학생에게 1년간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학생의 자발적 희망과 기업의 자체적 필요에 의해 운영될 여건이 형성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 □ 전문계고-전문대학 통합과정(4년제) 도입

전공 학과 및 계열별로 대학 진학자를 위한 수업 연한을 다양하게 하여 계속교육과 종국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종전의 5년제 공업전문대가 전문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연계한 제도였지만 자리를 내리지 못한 역사를 고려한다면 확실하고 내실 있는 전문계고-전문대학 연계교육을 통한 수업 연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다수의 학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효과성이 전혀 없는 방식의 진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에선 일반계고교생을 원하지만 입학자원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전문계졸업생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전문계 출신의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 조직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일반계 출신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전문계고의 전공학과 교육 내용과 전공 내용을 고려하여 동일계 대학 진학시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1년에서 3년 등으로 다양화하되 인문계 출신과 전문계 출신의 수학능력을 고려한 이원화 교육과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계고 출신은 이론을 강화하고 일반계고 출신은 실기를 강화하는 방식이 균형을 잡아가며 전문성을 심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11) 교육부는 2+1제도를 94년부터 97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8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졸업생의 현장적응 및 산업체의 협력 미흡으로 2009년부터 폐지하였다. 94년 첫해는 한해 동안 수도권전기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20개 학교 13개학과 3천1백69명은 1백82개 산업체에 파견되었다.

### □ 모든 국민을 위한 직업친화적 교육과정 구축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중 가장 비중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거의 완벽하게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다. 대학입시와 초중등교육이 분리된다면 많은 부분의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진로지도 교육 역시 대학입에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에 학부모들의 생각이 집중된다. 그 결과는 진학을 하기보다는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학생들조차도 분위기에 휩쓸려 일반계고교로 진학하게 되고, 그 후에 진학능력도, 직업기술도 갖추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지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초등 저학년에서부터 중요한 교과목으로 직업친화적 교과를 설치하고 실습등을 통해 일하는 것에 대한 친숙함을 교육하는 것은 직업이해차원 뿐만 아니라 학생의 정서교육 측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국영수 사과 중심의 학교교육이나 방과후 교육 및 학원 사교육 등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활동은 분명 학생의 편중된 발달을 초래하게 된다. 학생들이 노작학습을 통해 균형잡힌 발달 기회를 제공하며 직업에 대한 친화도를 높이는 교육이 진행할 수 있다면 향후의 진로교육 효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효과적인 인재의 배분, 무분별한 사교육의 지양과 실질적인 직업교육체제의 구축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구조가 우리모두가 바라는 선순환 구조라고 볼때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 Ⅲ. 토론자의 제안

이병욱 교수님의 이번 발표 자료는 직업교육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처방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흔적이 보이는 내용으로 현장 직업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지원의 정도가 미약하지만 이병욱 교수님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이 발표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게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몇가지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까지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정책 추진의 역사를 보면 정책추진 당시의 기준으로 성공한 정책도 있고, 실패한 정책도 있었다. 성공한 정책의 특징은 정책 그 자체의 완성도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사실은 강력한 컨트롤 타워적 기능이 확보된 경우 였다는 것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향후 추진될 내용들도 강력한 지원 평가관리 체제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예산만 축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경우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단의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특성화취지에 맞는 노력을 통해 학교의 목표인 취업의 학생수나 질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취업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여건이 변해서라고 말하기 어렵다. 전국의 다양한 학교에서 진행되는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대해 강력한 평가를 통한 후속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학교에선 일단 지원받아 집행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일반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는 경우에 따라 부처지원사업을 중복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예산을 지원받아 중복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교육청에는 통계도 잡히지 않는 가운데 추진된

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관리를 하여 정책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컨트롤타워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변화의 수단은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본다. 나눠먹기식의 인사배치를 지양하고 경쟁을 통해 선발하여 배치해야 한다. 비전과 약속을 가지고 행정을 실천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식의 교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과에 책임지는 교장에게 인사권을 대폭 위임하여 학교 변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닐까 싶다.

한국 직업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참고문헌

- 김원웅(1994), 교육백서Ⅱ(소외된 교육부문 실태분석/문제점과 정책대안)  
교육혁신위원회(2005),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교육인적자원부(2007), 산학협력활성화방안, 제4차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안건  
류지성 외(2009),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송 달 용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감

밤 10시 이후 학원수강을 법으로 금지하겠다는 정부(미래기획위원회)의 계획이 선부르게 발표되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아지자 당정협의를 거쳐 사실상 무산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다.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런 발표가 나올 때 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표가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리기는커녕 씩씩하고 씩씩하게 외면하고마는 적지 않은 수의 전문계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있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망국병이라는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전문계 고등학교 제도의 정착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교육 문제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주제의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우선 발표자가 제시한 선진화 방안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007년도에 발표된 개정교육과정에서 취업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전문계 고교 교육과정으로 개편 및 산업체 수요 반영을 저해하는 지침의 철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를 위하여 자율적인 권한은 가능한 많이 부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산업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에 산업체 전문가의 참여를 기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제안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단축을 통한 전문계 고교 교육의 다양성, 전문성 추구’**에 대해서는 전문계 고등학교 뿐 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수업연한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10년간 학습해야할 학습량을 9년으로 단축했을 때 이 안에 포함시킬 부분과 제외시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을 강조하고자 한다.

**‘집중적 전문교육 강화를 위한 무학년제, 학점이수제 도입’**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기준으로 수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를 모아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전공영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 전제가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체 위탁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 관련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지어서 운

용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 졸업제 도입 및 활용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도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관련 동일분야 대학 교육과정과의 원활한 연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안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일분야 대학과 연계를 통하여 전체 수업연한의 일부(1학기부터 1년정도까지)를 감축시킬 수 있다면 학생에게는 그 만큼의 시간적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계고-전문대학 통합과정(4년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조기졸업제 도입과 연관지어서 긍정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신선한 아이디어이다. 아울러 이를 관련 산업체로의 취업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인 학습 및 취업(school to work)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문대학만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모든 대학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각 산업 영역의 요구 수준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연한의 직업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모든 국민을 위한 직업 친화적 교육과정 구축’은 앞에서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발표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실습시설 및 교원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대표적 직업 친화적 교과인 ‘실과’에 대해서는 현재의 초등학교 5학년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인 3학년정도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교원은 전담교사제로 운영하되, 중등의 전문교과 교사들도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과’라는 교과의 명칭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 즉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9년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연계성과 위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내용 중 각 산업분야와 관련된 어떤 영역도 소홀이 다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발표자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에 덧붙여서 토론자의 의견 몇 가지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제시할 내용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이라는 정의 하에 좀 더 근본적이고 거시적이며 포괄적인 측면에서 고민해보아야 할 내용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아직도 일정부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따돌림 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전문계고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의 정서적인 입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다.

### [의견 1]

학교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능력으로 키워주고, 궁극적으로는 직업으로 인도해 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정의에 동의한다면 지금의 학교 체제는 상당부분 고쳐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주로 하는 곳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이다. 이것은 인간의 발달단계라는 교육학적 이론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를 거치고 나서 고등학교 단계에 이를 때 쯤 되면 대부분의 아이(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즉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대강은 알게 되는 단계가 된다. 이러한 개별적인 소질과 적성을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낸 결과가 박지성, 박세리, 박태환, 김연아 등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일찍부터 그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떠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를 거치면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찾았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등학교 단계를 거치면서 제대로 능력으로 개발하고 있는가?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학교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2)</sup>

중학교 단계에서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현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분야로의 진로 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그런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이다.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의 선진화는 그 기저에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의견 2]

학교란 또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 이다라는 정의에 동의한다고 해도 지금의 공교육 제도는 역시 상당부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유·무형의 모든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는 바로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편성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만 충실하게 이수하면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운영 측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영역이 어찌되었든 ‘좋은 대학이라고 평가받는 곳에 가능한 많은 학생을 진학시키자’라는 단 하나의 목표가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결과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지출과 점점 피폐되어가고 삭막해져가는 학교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 들어 중학교와 초등학교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목적이나 교육과정 운영의 형태가 이와는 다르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목표는 전문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분야도 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 3년의 기본

12)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서 발췌

과정에 동일분야 대학과정과 대학원의 심화 과정까지 마쳐야만 이를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선진화에는 이와 같은 전문가 양성의 철학이 그 기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의견 3]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그 결과 현재 세계 12위권의 부자나라가 되었으며, 각 산업 영역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대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일컬어지던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눈부신 활약과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음을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 아직도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논하다보면 과거 70-80년대의 고도성장기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 즉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 육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역할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2009년이고, 세계 12번째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사회발전단계 측면에서 볼 때 지식정보화사회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한 정책연구에서 ‘직업교육의 개념과 내용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이용순, 2006).

이 결과를 반영하여 보면, 과거 70-80년대에 우리 전문계 고등학교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서 산업 현장으로 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아직도 우리 산업사회는 70-80년대 수준의 기능인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당시 우리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서 몸 바쳐 일하던 단순 기능공 수준의 일자리에 우리 제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야 하는가? 아니 보낼 수 있는가? 그러한 단순 일자리를 찾아서 2008년 현재 외국인 노동자만 130만명 이상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하여 길러내야 할 인재는 몸만 바쳐 열심히 일할 근로자 이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근로자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근로자를 ‘지식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종사할 산업 영역에 필요한 지식을 찾을 수 있고, 필요한 대로 가공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바로 ‘지식근로자’일 것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졸업생의 취업과 진학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운영상의 범위(스펙트럼)가 대단히 넓다. 해당 산업영역의 요구 수준에 따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처럼 극단적인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서부터 선린인터넷고등학교처럼 극단적인 진학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양 극단에 위치한 교육과정 모두가 훌륭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양 극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지식근로자’를 양성해내고 있다는데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의 초점은 이러한 점도 인정하고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작지만 소망스러운 꿈을 한번 꾸어본다.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진화 방안’이 잘 만들어져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성적보다 더 우선시하는 전문계 고등학교 제도가 발전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인정받게 되면, 현재와 같은 ‘국·영·수·사·과’ 위주의 소모성 선행 학습형 사교육은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의미 없는 ‘국·영·수·사·과’ 위주의 사교육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능력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매우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육으로 대거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공교육은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발표Ⅲ ]

##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방안 모색

● 김성태(명지전문대학 교수)





#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방안 모색

김 성 태  
명지전문대학 교수

## I.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필요성 및 현황

국제화 [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나라가 경제·환경·정치·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최근 ‘조선일보-QS(Quacquarelli Symonds) 아시아 대학평가 2009’에서의 평가지표 9가지 중 4가지는 외국인 교원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자기대학으로 들어온 교환학생 비율, 외국대학으로 나간 교환학생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 간의 학생과 교수의 교류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 역량강화 사업의 4년제 대학 지표 중 국제화지표는 외국인 교수의 비율과 외국인 학생비율을 지표 값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나라와의 교류가 필요하며, 교류의 대상은 먼저 인적 교류가 될 것이다. 방법론적으로 우선은 인적 교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학의 국제화를 하는 방법이나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김현택, 2005; 이병식, 2004; 박응수 외, 2005; 이남철 외, 2000). 그러나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국제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6년 정책과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진행된 연구에서 전문대학 국제화 방안으로 전문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방안, 외국 유학생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방안, 정부지원 및 제도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이 국제화를 할 수 있는 분야를 한국어과정, 유학생 정규학위 과정,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과정, 학점교류, 교환학생, 교환교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국제화의 의지가 전문대학에서 서서히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의 1%이내를 집행하는 대학이 72%에 이르고 있어 필요를 인식하나 여력이 없음을 보고하였다(윤여송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방안 중 재정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국제화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전문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교육의 국제화 형태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 대기업과 연계하여 해외 사업장에 필요한 현지국민을 주문식 교육의 형태로 국내에서 교육한 후 대기업 해외사업장으로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둘째로, 다양한 형태의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이다.

## II.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영역 및 주요 사례

### 1. 해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

#### 가. 필요성

##### 1) 인적교류 활성화

- 해당국의 관련분야의 교수를 초빙하여 기술교류
- 해당국의 학생들을 유치하여 학생간의 교류 활성화 (1:1 튜터제도 등을 활용한 우리 나라 학생과 유학생간의 인적교류)

##### 2)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

- 한국 문화 및 기업 정서에 부합되는 우수한 현지인 기술인력 확보로 해외 진출 한국 기업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3) 전문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위상 제고

- 해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체계 제고 및 국제화된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 국제화 추진
-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 수요를 국내로 흡수함으로써 외화 가득 효과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증진에 기여

##### 4) 취업연계형 전문직업 교육을 통한 유학생 교육만족도 향상 및 국제 사회에서의 우군 확보

- 한국 문화와 한국 정서 함양을 통하여 한국을 이해하는 친한·지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

#### 나. 우수 사례의 사업 추진 현황

##### 1) 취업약정형 국제연계 주문식교육과정 운영

##### 2) 사업 추진 현황

-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현지법인과의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 협약 체결 및 교육 과정 운영
  - LG전자(천진, 남경, 태주, 해주 등 6개법인), 삼성전기(천진, 동관, 소주 등 3개법인), 하이닉스반도체, 현대자동차 북경법인 등 23개 기업체와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 협약 체결 : 418명
  - 특성화된 유학생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3개 교육과정
- 주문식교육협약 업체 취업 : 삼성, LG, STX 등 88명 취업
- 한국어 선행 학습 시스템, 한국 문화체험, 유학생 2중 밀착지도 체제 운영, 산업체 인턴제 등 특성화된 유학생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사전 연수 및 지자체 연계 한국어 문화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업체 인턴십 및 기술연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2중 지도교수(생활지도교수, 전공지도교수) 유학생 밀착지도

- 한국 학생과의 1:1 버디제도(멘토링시스템), 소그룹 지도

3) 프로그램 구성내용

구분	내용
우수 유학생 유치 및 기업체 협약체결	- 주문식교육 취업 협약업체 발굴 - 유학생 모집 및 선발시스템 구축
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 주문식전공교육과정개발,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 한국문화, 기업문화체험, 특강 등 - 교재개발, 교수 학습개발 등
교육인프라개선	- 외국인교수 초빙, 실험실습실 구축 및 기자재 도입 등 - 유학생 복지 및 환경 개선
장학금지급	- 성적우수, 근로, 한국어우수장학금 등
네트워크구축	- 유학생 관리시스템 및 DB 구축
기타운영비	- 유학생전담부서 운영비 - 기타 출입국업무 등

다.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1)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유학생 발굴 및 유치시스템 구축

- 국가 다변화를 위한 신규 유학생 시장개척 및 유학관련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해외소재 고교 연계 및 전문대학 연계 공동학위제도 운영을 통한 우수 유학생 발굴 체제 구축

2) 우수 산업체 발굴 및 협력사업 추진

-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산업체 발굴 및 취업약정협약 체결, 유학생 기술연수, 인턴학기제 수행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3) 산업체 및 유학생 수요자 일체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한국문화 체험, 한국어능력, 한국 기업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차별화된 특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산업체 주문 교육과정, 교재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산업체 일체형 교육과정 개발

4) 직업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 유학생 직업교육 특성화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교육집중화로 유학생 만족도 향상과 교육효율 극대화
- 산업체 요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업 첨단 실습기자재 및 설비 등 교육환경 구축

- 한국어 전담 교원 및 해외 산업체 교류 전담 교원 확보, 연계 산업체 재직 겸임교수 활용 등
  - 유학생 복지혜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기숙사, 고충상담실, 여가활동, 의료혜택, 커뮤니티 등) 운영 및 원스탑지원체제 구축
- 5)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유학생 상시 모집, 졸업생 사후관리, 현지 산업체 협력 사업 수행 등을 위한 해외전담기구 운영
  - 유학생 DB, 온라인 학생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유를 통한 산업체, 대학, 유학생 상호 Win-Win 체재 구축

## 2. 직업교육 수출

### 가. 필요성

- 1) 해외 수출 산업체의 현지 인력공급
  - 해당국 현지인의 직업교육을 통한 필요 인력공급
  - 해당국 직업교육기관(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운영
- 2) 현지교민 산업체 인력 공급
  - 해당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사업가를 위한 인력공급
- 3) 개발도상국의 기술 및 표준선점
  - 해당국(주로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기술 전파를 통한 기술 및 표준의 선점
- 4) 국가 이미지 및 국가 브랜드 제고
  - 교육 프로그램 수출을 통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친한파 및 지한파 양성을 통한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향상
    - 안홀트-GMI에서 50여개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국가 브랜드 지수
    - 2005년 25위, 2006년 27위, 2007년 32위
- 5) 대학 수입의 다양화
  - 대학 수입 창구의 다양화를 통한 재정 여건 강화
- 6) 개발도상국 중심의 현지 전문가 육성
  - 해당국(주로 개발도상국) 직업교육 수출에 따른 교수요원과 인턴십의 형태로 조교요원(학생)을 파견하여 현지 전문가의 육성
- 7) 정부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KOICA 등 정부 관련사업과 연계한 기술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제공
    - KOICA : 해당국 선정 및 하드웨어 지원 방안입안
    - 전문대학 : 직업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8) 해외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전문대학 국제화 촉진
  -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교류와 공유를 통한 해외대학과 연계강화

- 인적자원 교류등을 통한 상호 유대관계 강화

나. 우수 사례의 사업 추진 현황

1) 연계대상에 따른 직업교육 수출의 형태

- 해외 전문대학(직업교육 기관) 연계형 : 중국 직업교육대학과 우리나라 전문대학 연계를 통한 공동학위제 운영(현지교육 및 초청교육 혼합형)
- 한국 수출산업체 연계형 : 개별산업체별 장·단기형현지교육
- 정부기관 연계형 : KOICA와 전문대학과 연계한 개발도상국지원 직업교육
- 해외 전문대학에 직업교육프로그램 공급형 : 해외대학에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 파견

2) 교육장소에 따른 직업교육 수출의 형태

- 현지교육 : 해당국 현지에 교수 요원 파견(태국)
- 초청교육 : 교육 대상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교육(중국)
- 혼합교육 : 현지교육과 초청교육을 병행(모로코)

3) 프로그램 구성내용

항 목	내 역
▶ <b>초청연수</b>	사업 현지 관리자 및 교수요원 국내 초청 연수비용
관리자 연수	관리자 연수비
교수 연수	교수 초청 연수비
▶ <b>전문가 파견</b>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비용
책임전문가	책임전문가 파견비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 파견비
분야별 전문가	교육 분야별 전문가 파견비
▶ <b>사업관리</b>	교육부문 지원부문 관리비
기자재 사양작업	하드웨어 구입을 위한 제안작업
설계 및 시공지침 작성	하드웨어 설치를 위한 제안작업
현지 사무소 운영	사무소 운영비

다.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1) 소득수준 격차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격차 보전

- 해당국에서 수입되는 수강료와 파견교수 요원비용의 격차가 큼
- 향후 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개념의 투자 필요

2) 정부 재정지원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임

- 현재시점에서의 경제성은 없어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임
- 3) 수출이 증가 되는 우리나라 산업체에 대한 간접지원
  - A/S 요원등 제품이외의 서비스 분야 지원 강화로 산업체 지원
- 4)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체계화 및 다양화를 위한 계기
  - 직업교육 수출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직무분석 프로세스로 직업교육체계화
  -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모델 정립
  - KOICA는 IT, 자동차, 건축, 농업 4분야로 국한

### Ⅲ.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촉진 재정지원사업 모형 제안

#### 1. [1모형] 유학생 주문식 교육 모형 제안

가. 사업 기간 : 사업의 지속성 및 유학생 교육제도 정착을 위하여 중장기(3년이상) 사업으로 추진

- 년차별 사업평가를 통하여 실적 미비대학 탈락, 우수대학 인센티브부여 및 사업비 차등 지급
- 유학생 유치, 우수사례 및 취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나. 사업 내용

##### 1) 안정적인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시스템 구축

- 해외산업체와의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 협약 체결, 유학관련 기관 협약 등을 통한 우수 유학생 유치
- 해외 고교 연계 및 전문대학 연계 공동학위제도 운영을 통한 우수 유학생 발굴
- 홍보 및 학생선발 시스템 구축
- 현지 네트워크(유학생 DB 구축 및 공유, 현지 사무소 개소 및 인원파견, 산업체 연계 등) 구축 및 운영

##### 2) 해외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 협약 산업체 발굴 및 연계강화

- 협약 산업체의 국가 다변화(중국, 러시아권, 베트남,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를 통한 유연한 수요 창출
- 국가별, 산업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특화된 해외 유학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유학생 교육과정개발, 교재개발, 교수학습법 개선
- 특성화된 체험 중심형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 산업체 밀착형 전공 심화교육
- 맞춤형 학생지도 프로그램 운영

- 4) 유학생 교육 및 학사관리 인프라 구축
  - 유학생 전담 교육시설 구축(유학생 직업교육 특성화지원센터, 한국어 교육지원센터 등) 및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 해외 우수교수 초빙 및 한국어 전담교원 확보
  - 유학생 장학, 복지, 의료, 편의시설 운영
  - 유학생 이력관리 DB 및 유학생 원스탑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 유학생 관리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자퇴생 방지 프로그램 등)
- 5) 취업특화 프로그램 운영
  - 한국 기업 문화교육 및 기업체 인턴십
  - 한국 기업체 기술연수
- 6) 유학생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
  - 취업 산업체와 연계한 졸업생 사후관리 및 현지 산업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다. 예산 구성 내용

순번	사업 구분	소요예산
1	안정적인 해외 우수 유학생 확보시스템 구축	10%
2	해외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 협약업체 발굴 및 연계강화	10%
3	특화된 해외 유학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0%
4	유학생 교육 및 학사관리 인프라 구축	30%
5	취업특화 프로그램 운영	10%
6	유학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	5%
7	기타운영비	5%
<b>총 계</b>		<b>100%</b>

라. 선정 기준

- 1) 대학의 교육성과, 발전 및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성과·발전지표 및 여건지표는 65 : 35씩 반영
  - 대학의 발전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표별로 향상도 부분에 대하여 10% 내외로 평가에 반영
- 2) 지표의 구성내용

구분	지표	배점비율(%)
성과·발전 지표	유학생유치	5%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10%
	학생지도 프로그램	5%
	취업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률	15%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10%
	해외산업체 주문 협약 및 해외교류 실적	10%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3%
	대학의 사업추진 의지	3%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2%
	자체 성과지표 평가	2%
	소계	65%
여건지표	전임교원 확보율	10%
	교육인프라 구축 현황	10%
	유학생 관리 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	5%
	입학/사후관리 네트워크 구축현황	5%
	유학생 복지시설 구축 현황	5%
	소계	35%
총 계		100%

## 2. [2모형] 직업교육 수출 모형 제안

### 가. 사업 기간:

- 1)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 수출 이행, 보완 및 정착 과정등 3단계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
  - 단계별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
  - 년차별 평가 및 사업관리를 통해 실적부진 사업 폐지, 우수사례 홍보
- 2) 지속적인 사업수행 및 관리 40여개 대학 자립화까지 지원
  - 실적에 따라 매년 30%는 탈락하고 신규 30%선발
  - 매년 20개교 선정하여 70%가 3년 후 자립화 실현을 달성한다는 가정, 40개 대학 이상이 성공하는 10년 까지 지원
  - 성공한 대학은 다른 산업체 또는 다른 지역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추가지원 가능하며, 실패 대학은 향후 지원 불가
  -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은 불가

## 나. 사업 내용

### 1) 해당국 대학 연계형

- 해당국 연계대학과 한국 기업 간의 3자 연계 협약
- 해당국 연계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하드웨어 투자
  - 우리나라 대학이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지원
- 학위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 가능
  - 한국어 언어 습득을 위해 1년은 해당국에서 수업
  - 1년은 한국에서 언어와 직업교육 실시
  - 해당국으로 귀국하여 연계 한국기업에 인턴 또는 취업
  - 공동학위 수여 가능

### 2) 한국 수출산업체 연계형

- 한국 수출 산업체의 A/S 요원 등 현지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 해당국 전문대학(직업교육기관)과 우리나라 전문대학이 연계하여 현지에서 직업교육 시행
- 교육 기간에 따라 학위 연계형으로 진행이 가능함

### 3) 정부기관 연계형

- KOICA에 진행하는 교육 지원 사업에 전문대학이 연계하여 직업기술 지원
  - KOICA의 ODA사업의 교육부문을 전문대학과 연계함
  - KOICA는 교육센터건축, 하드웨어지원, 기술교육의 3개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

### 4) 해외 전문대학에 직업교육프로그램 공급형

- 우리나라 대학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해외 대학에 로열티를 받고 공급함
  -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지원
  - 해외대학 교수요원 초청교육
  - 우리나라 대학 교수 요원 파견으로 현지 교육
-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수준을 정하여 졸업시험 등을 통한 기술 수준의 확인 후 공동학위 수여 가능

### 5) 기타 직업교육 수출 프로그램

## 다. 예산 구성 내용

- 해당국의 위치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순번	사업 구분	소요예산
1	시장조사 및 직업교육 적합분야 개발	5%
2	해외 수출업체 및 현지 한국기업 발굴 및 연계강화	10%
3	특화된 해외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15%
4	현지 파견 및 초청 교육프로그램 운영	30%
5	직업교육 관련 하드웨어 및 인프라 구축	25%
6	졸업생의 인턴십 등 현지적응 특화 프로그램 운영	5%
7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	5%
8	기타운영비	5%
<b>총 계</b>		<b>100%</b>

라. 선정 기준

- 1) 대학의 교육성과, 발전 및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성과·발전지표 및 여건지표는 65 : 35씩 반영
  - 대학의 발전의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표별로 향상도 부분에 대하여 10% 내외로 평가에 반영
- 2) 지표의 구성내용

구분	지표	배점비율(%)
성과·발전 지표	산업체와 연계성	10%
	특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내용	15%
	직업교육 실적	10%
	직업교육 관련 해외교류 실적	15%
	대학의 사업추진 의지	5%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5%
	자체 성과지표 평가	5%
	<b>소계</b>	<b>65%</b>
여건지표	전임교원 확보율	10%
	교육인프라 구축 현황	10%
	직업교육관리 체계 및 전담조직 운영	5%
	사후관리 네트워크 구축현황	5%
	한국어 교육센터 구축 현황	5%
	<b>소계</b>	<b>35%</b>
<b>총 계</b>		<b>100%</b>

### 3. 선정 방식

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광역 권역별 거점 허브 대학 선정을 통한 세계수준의 유학생 교육 선도기관 육성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 비수도권 : 6개의 광역권역(충청권역, 강원권역, 전북권역, 전남광주권역, 경남부산울산권역, 경북대구권역)으로 분류하여 권역별로 대학 선정
- 개별지표는 표준화하여 지표별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총점 순으로 순위 결정

나. 해외대학 연계형, 한국수출산업체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공급형, 기타형은 한국 기업과의 연계정도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 무역협회 또는 각 산업별 협회의 해외 수출기업의 지원 기술분야 및 지역 선정 후, 대학과 연계를 통한 지원
- 개별 대학과 기업체의 연계를 통한 지원
- 산업체 및 관련 기관 참여도, 연계 사업 추진 정도

다. 정부지원형은 해당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형태 확정

- KOICA의 경우, 매년 지원 대상국의 프로그램 중 직업교육 지원 분야에 지원하여 경쟁

## IV. 성공적 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1.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 체제 구축

- ▷ 유학생관리 전담조직 운영
- ▷ 유학생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 교육 인프라 구축, 다양한 유학생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2. 직업교육 해외 연계 네트워크 구축

- ▷ 졸업생 사후관리 및 현지 산업체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 ▷ 유학생 DB 구축 및 공유, 현지 사무소 개소 및 인원과건, 산업체 연계 등을 통한 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3. 노동부 및 KOICA 등 타 부처·기관과의 시너지 창출

- ▷ 노동부 : 외국인 근로자 귀국지원 프로그램(본국 귀국 후 현지 한국기업 취업 연계 등 지원) 추진 현황 및 연계 방안
- ▷ KOICA : ODA 사업 연계 방안

### 4. 직업교육 국제화 센터 설립·운영

- ▷ 지자체와 연계한 국제화 센터 공동 설립 및 운영
- ▷ 한국소재 외국 문화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5. 전문학사 취득 해외 유학생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마련

- ▷ 전문학사취득 해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산업체 취업 방안 마련
-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전문대학에서 시행하는 학사학위과정)과의 연계 방안 마련

### 6. 정부 및 해외 주재 공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 한인상공회의소, 코트라, 해외주재 공관 등의 협조를 통한 우수 유학생 발굴, 산업체 연계, 기타 유학관련 업무의 원활화

## V. 참고문헌

- 윤여송 외(2006), 『전문대학 교육 국제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응수 외(2004),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략』, 전문대학소식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이남철 외(2000), 『전문대학에서의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이병식 (2004), 『대학교육의 국제화·선진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 전문대학 국제화의 현황

### 1) 유학생 현황(출신국가별)

(단위 : 명)

구분	중국		베트남	말레이 시아	몽골	우즈베 키스탄	인도	대만		일본		기타	합계
	중국	동포						대만	동포	일본	동포		
계	5,330	253	256	228	139	108	42	22	1	16	1	88	6,484

\* 자료 : 『2008학년도 전문대학 교육지표』 (전문대협. 2008.12, p.88), 2008년 4월 1일 기준

- 유학생 대상 국가는 중국이 86.1%로 편중되어 있고, 입국 유학생이 유학 목적보다는 돈벌이 목적이 상당수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유학생 숫자가 많은 까닭은 말레이시아국비유학생이 동양공업전문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인데, 유학생 유치의 모범 사례로 들 수 있음.
-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내실화가 선행되어야 유학 국가의 다변화와 유학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됨.

### 2) 대학 간 교류 현황

구 분	국가수	전문대학수	해외대학수	교류건수
개	42	131	976	1,398

\* 자료 : 전문대협 자체조사 내부자료(2008년 4월 1일 기준 : 2000년 이후 누적)

- 교류유형은 주로 어학연수, 현지학기제, 인턴십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 대학과 우리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이 필요함.

### 3) 국제교류 상위 5개국

국가명	전문대학	해외대학	교류건수	백분율(%)
중 국	110	303	414	29.6
미 국	103	161	244	17.5
일 본	91	162	235	16.8
호 주	61	54	117	8.4
필리핀	36	57	75	5.4
기 타			313	22.4

\* 자료 : 본 협의회 자체조사 내부자료(2008년 4월 1일 기준 : 2000년 이후 누적)

- 교류 대상국은 중국 29.6%, 미국 17.5%, 일본 16.8%로서 63.9%를 차지하고 있음.
- 동남아 국가 가운데는 어학연수 목적의 필리핀이 5.4%이고 타 국가의 비중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 이들 지역 국가 다변화가 필요함.

### 4) 전문대학 국제교류 현황 평가

- 해외 유학생의 출신 국가 비중은 중국이 압도인데, 각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 학생을 유치한 결과로 보여짐.
- 교류대상 국가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들 국가의 학위나 프로그램을 우리 전문대학에서 활용할 목적 때문이라 판단됨.
- 따라서 우리 직업교육이 동남아 국가로 수출되거나 아니면 이들 국가의 학생들이 우리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업교육이 질적으로 더욱 향상되어야 할 것임.

### □ 국내 전문대학 교육에 대한 독일과 호주의 평가

#### 1) 독일의 한국 대학 등급

- 독일정부는 전 세계 국가의 대학들에 대한 학력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ANABIN(외국 교육기관 졸업생에 대한 인정 정보시스템)에서 대학을 H+, H-, H+/-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있음.
- H+ : 각 국에서 대학으로 인정받는 대학은 독일에서도 대학으로 간주
- H- : 대학으로 간주하지 않음
- H+/- : 등급 결정이 불가능한 대학으로 독일 대학과의 교류 기회 및 영역의 제한
-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전문대학은 H-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학 졸업생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2) 호주의 한국 대학 등급

- 호주정부는 전 세계 국가의 대학들에 대해 평가를 하여 호주의 학위와 비교한 학력 인정에 대한 내부 제안서(Country Education Profile = CEP : 대학을 Section 1, 2, 3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함)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음(개정 : 1996년, 2007년 1월 4일)

- CEP 담당기관은: NOOSR(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로서 호주 교육부 산하 기관임.
- Section 1 : 국내 30개 대학을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이 모두 호주의 동 학위와 같이 인정함
- 30개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 중앙일보 대학종합 평가순위와 2005년도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대학평가 그리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참고함.(전문대학 없음)
- Section 2 : 위 30개 대학 외의 대학이며, 학사, 석사 학위가 호주의 동 학위와 같이 인정되며, 박사학위의 경우 대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인정여부를 고려함.  
 ※ 5개 전문대학 포함 : 충청, 충북도립, 아주자동차, 강원도립, 부산여자
- Section 3 : 사이버대학이며, 모든 학위를 호주의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인정여부 고려함

### 3) 해외 국가의 국내 전문대학 평가 시사점

- 국내 전문대학의 교육 내실화를 통한 평가 등급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국내 전문대학의 정보를 정확하게 배포하여 외국 평가기관에서 국내 전문대학의 하향평준화 가능성을 방지해야 함.
- 독일이나 호주에서 국내 전문대학을 평가할 때, 대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 대학이나 정부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국제화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모형 개발에 대한 comment.

#### 1) 외국인 주문식 교육 모형 보완

- ① 외국인 전문대학 졸업생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이공계, 인문계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학)장의 추천으로 국내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E-7)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문학사 학위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는 인력부족직군 전공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국내 취업을 허용해야 양질의 유학생 유지가 가능함.
- ② 유학생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조건 완화에 대한 연구보완이 필요함.
  - 국내 학생의 경우,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의 산업체경험이 있는 자에 한해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년간의 산업체경
- ③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에 대한 개선 필요함
  - D-2 혹은 D-4 학생 중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 취업이 허용되어 있으나, 까다로운 허가 절차로 인해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2) 직업교육 수출 모형

- ① 우리의 교육상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수출하기에 앞서, 우리 전문대학 교육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② 외국 평가기관에게 국내 전문대학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국내 전문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것임.
- ③ 국내 전문대학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해외에서의 자격인정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임. 이를 바탕으로 외국에서 통용되는 교육을 실시해야 국내교육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④ 기타 국내 전문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제교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윤 병 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팀장

## 1.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배경

지금 국제사회는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사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경쟁 기반사회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사회 각계에서는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기업·대학·정부가 협력하여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 하였음

그러면, 글로벌리더란 무엇인가?

글로벌리더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도전과 창의정신, 국제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시야와 감각을 가지고 국가 성장을 주도해 나갈 인력을 말함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계획’은 우리 청년들을 이러한 글로벌리더로 육성하는 한편,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에서 세계로 확대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달성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부문이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먼저, 해외취업부문에서 청년 해외취업 5만명 달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해외취업 연수사업을 '07년 보다 '09년에는 두배 이상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재외공관, KOTRA, 한인상공회의소, 국제인턴기구 등 공공-민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해외 구인처를 발굴하고 있음

해외인턴과 관련하여 국제적 경험을 갖춘 해외인턴 3만명 추진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대학생 대상 해외인턴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업과 외교통상부에서 수행하는 재외공관 파견인턴쉽, 여성부 주관 국제전문 여성인턴쉽도 확대 시행하고 있음.

해외봉사부문에서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해외봉사 2만명 달성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5년간 5천명의 정예봉사단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세계평화 리딩그룹 육성, 중·단기 봉사 프로그램 및 우리나라의 강점인 IT봉사 등 기술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계획임.

## 2.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방안과 해외취업 연계방안

### 가. 해외취업 지원요건 및 재정지원 현황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부푼 꿈을 안고 대학 문을 나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에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더 넓은 세계무대로 눈을 돌려보라고 조언하고 싶고 국내에서 취업되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젊은이다운 패기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한국인의 능력과 저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심정임

이러한 시기에 요즘 대학생들의 경우 과거와는 달리 언어능력 향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으며, 어학연수 및 배낭여행 등으로 통하여 국제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음

또한 해외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인 업체가 어떤 근로자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단순 노무직의 경우 언어능력 ‘하’로도 지원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용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국가의 언어능력은 필수입니다. 특히 호주의 경우 IELTS 4.5 이상의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원 전에 일정 수준의 영어 습득이 필수적임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국내 실무경력을 중요시 하는 간호사 같은 전문직의 경우에는 면허증 혹은 자격증의 소지를 필수로 요구하기도 하므로(예: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졸업자로 미국 간호사면허(NCLEX-RN)를 소지해야 함) 지원 전에 자신에게 맞는 국가 및 직종을 선택해야 함.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비 재정지원을 살펴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사업에서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1인 300만원~550만원까지 연수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 양질의 어학·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해외인턴 사업의 경우에도 1인당 400여만원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나. 직업교육 국제화 촉진의 모형별 의견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국제화 영역 및 주요사례에서 해외 유학생 유치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수출에 대한 내용에서 해외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제안 해주신 모형에 대하여 짧은 고견을 가지고 의견을 드리면 전문대학 직업교육 국제화 촉진의 취지를 보았을 때 직업교육 수출 모형[모형 2] 보다는 유학생 주문식 교육 모형[모형 1]이 더 바람직하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최소 3~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모형 1]은 주로 해외 유학생 유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모형 1] 대로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가 갖추어진다면 안정적인 해외유학생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현재 전국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유학생 유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유학생 관리 문제(최소한 유학생이 한국어가 가능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때 까지의 기간 동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이탈 방지가 중요. 중국 유학생의 경우, 수업참여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관심을 두어 학업을 게을리하여 유학생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와 졸업 후 취업 문제임을 감안할 때 [모형 1]이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학생이 유학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 요인인 취업의 문제 해결 또한 해외산업체와 취업약정형 주문식교육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수하고 안정적인 유학생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이는 결국 해외에 있는 한국기업체에게는 한국에서 유학한 현지인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우수한 현지 인력을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주제발표에서도 제기하였듯이 장기적으로는 유학생이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문화이해 등을 형성하여 외교적으로도 해당국가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모형 1]은 현재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입생 유치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현재 일부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가 통합이 되거나 폐교가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신입생 확보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모형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모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유학생 모집을 대행하는 믿을 수 있는 에이전트의 확보가 중요함 지금까지 유학생 모집을 대행했던 에이전트들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유학 생활 초기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왔음을 감안할 때 신뢰할 만한 에이전트를 확보하거나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유학생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비자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함.

[모형 2]는 직업교육이라는 교육 시스템(프로그램)을 수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IT기술 강국인 한국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제안은 좋은 방향제시라고 생각함

[모형 1]과는 달리 [모형 2]는 해당국 현지의 연계대학교의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드웨어(Hardwar)에 대한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서 소프트웨어(Software)를 수출하는 한국의 학교에서는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모형 2]의 경우, 대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직업교육 교사, 교수 등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해외취업 연수과정(해외에서 연수하는 과정)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음.

정부가 지원하는 연수과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교육 분야에 경험있는 실무자와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이 인력들이 해당국의 직업학교나 대학에서 그들의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또한 한국의 직업교육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됨.

따라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성과 나라별, 직종별, 업종별 에 따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  
여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사업 지속 방안을 모색하여 [모델 2]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제언 및 결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과정 운영방법을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과내  
용과 산업체 의견 등을 고려한 산·학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 주무부처에서 학  
점화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노동부 등 타부처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는 전문기관과 전문대학간에 직업교육 국제화사업  
의 구체적인 업무체계에 대하여 MOU체결 후 사업 수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폴리텍대학 제천캠퍼스의 경우 2010년 이후에 폐교가 될 예정으로 이 시설을 정부의 제  
정지원을 받아 직업교육 국제화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함.



[ 주제발표Ⅳ ]

##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

● 정윤경·김나라(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

정 윤 경 · 김 나 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I. 추진 배경

-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은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직업교육체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평생학습-평생취업이 가능한 나라, 기술인이 성공하는 나라』('09.3.20)를 비전으로 수요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을 제안하고,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및 기술직 진입으로의 진로지도를 통해 성공하는 기술인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 높은 청년실업, 하향 취업 및 중소기업의 구직난 등 직업세계와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끊임없이 개인의 진로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청소년기 진로교육의 부실화는 대학 입학 후 전공 불이치, 대학 졸업 후 전공·직업의 불일치와 청년실업의 만성화 현상을 야기하는 원인의 하나임.
  - 진로교육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과도한 대학진학을 완화하고 기술직 이해 및 관련 진로모색을 위한 진로설계를 지원함.
- 그러나 다수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 진로경로, 기술직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 등 학생들의 직업교육으로의 진로지원 확대는 쉽지 않으며, 특히 직업체험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진로교육 방안 마련이 요구됨.
  - 2007년 직업세계 체험 주간과 관련하여 현장견학 프로그램, 현장 체험 프로그램, 직업인 초청 설명회, 시청각 자료 활용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중고생 대상 수요조사 결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됨(한상근 외, 2007).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직업교육 TF('09.2월)에서 직업교육 체제 개편방안 관련 주요 쟁점 연구과제의 하나로 도출하여 단기정책연구를 추진키로 함.

- 진로교육 강화 방안으로서 직업체험, 개인 맞춤형 커리어코칭 서비스,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질 관리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현장 적용 가능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해외 사례 분석 등 이론적·객관적 관련 자료에 기초한 추진 계획 수립이 요구됨.
- 이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으로서 학생들의 직업 체험 강화를 위한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체계적인 커리어코칭 서비스, 그리고 국가수준의 진로지도 질 관리 체제에 관한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업의 사업 내용,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II. 진로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1. 현황

- 진로교육 전반의 계획 수립은 교육과학기술부, 실제 정책 집행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담당
  - 그 외에 노동부는 청년고용정책,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여성부는 여성 경력개발정책 차원에서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
- 진로교육을 위한 독립 교과로 「진로와 직업」 교과가 운영
  - 중학교 단계에서는 편성 비율 자체가 저조(4.7%), 고교 단계에서는 편성 비율은 비교적 높으나(일반계 고교 50.5%) 실제 운영이 미흡

<표 1> 「진로와 직업」 교과 편성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8.0	4.7	50.5	44.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진로지도 관련 활동은 상담·지도·체험학습·진로특강 등 다양하게 전개
  - 전체 진로 교육 운영 방법 중 상담 및 지도 52.5%, 교과활동 30.9%, 체험학습 7.1% 차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일선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상담부장과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교사 포함) 중심으로 추진
  - 진로상담부장은 학교 진로상담부 총괄 보직자로, 전체 학교 중 50%만 배치
  - 전문상담교사는 진로교육 전담인력으로, 전체 학교 중 21%에만 배치
  - ※ '08~'09 교장 등 관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3,300명(특별 교부금 10억원)

- 진로교육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은 주로 교원의 재교육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음.
  - 진로교육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시스템은 인력양성 기능과 재교육 기능이 혼재되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체계도 일관적이지 않은 ‘파편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최동선, 2009).

## 2. 문제점

- 단편적인 진로교육으로 수요자 중심의 진로서비스 미약
  - 단순 활동·일회성 행사 위주의 학교 현장 진로 서비스로 직업세계의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 부족
  - 심리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이외에 심층 상담 활동이 부재
  - 대부분의 학교 현장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진행, 그 결과 상급 학교 진학이나 직업 탐색에 실질적 기여 미흡
    - ※ 중고교 진로검사에 대해, 중학생 41.6%, 고교생 52.0% ‘도움 안됨’(고재성 외, 2008)
  - 학교 현장 진로지도(진로상담, 진로검사)가 1회성 행사 및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학교선택, 계열선택, 학과선택, 직업선택 등 매우 중요한 진로선택 과제가 존재하나, 현재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1:1 진로서비스 제공 미흡
- 직업세계 이해 수준 미흡으로 편중된 진로·직업 선택
  - 진로교육 관련 산학 연계 미흡과 생생한 직업 체험 기회의 제한
  - 산업계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기회로 학생들의 직업체험 참여가 저조
    - ※ 직업현장체험 경험 중3학년 8.2%, 일반고3학년 6.4%에 불과(한국교육고용패널, 2005)
    - ※ 중2~고3 시기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율 3.0~7.0%(한국청소년패널, 2003~2007)
  - 실제 운영 중인 직업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단순 견학 위주로 교육 효과 미흡
    - ※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 : 짧은 직업체험 시간(28.0%), 지루함(24.6%), 작업장에서의 체험 활동(17.6%) 등(한상근 외, 2007)
  - 직업세계 체험활동에 대한 체계적 노력과 지원 미약
  - 고교생 46%의 장래 희망직업이 교사, 공무원, 의사를 비롯한 10개 직종에 집중(호오영 외, 2007)
- 진로교육 전담인력 부족 및 전담인력 양성 시스템 부실
  - 진로교육에 대한 전담인력이 양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전문성도 미흡
  - 진로상담부장은 진로교육 이외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부담, 잦은 보직 변경 등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
  -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학교 중 21%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 폭력 대응이 주업무이며 진로교육은 부차적 업무
  - 교사 양성 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 전문성 개발 기회 부재로 임용 이후는 교과 중심 교육에 치중하여 진로교육을 잡무로 인식
  - 진로교육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은 학교내 실제 진로교육 담당자와 무관하게 개설·운영되

고 있어 교육훈련 효과 낮음.

-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 체제 및 역량 미흡
  -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진로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부처간 유사 업무를 조율하고 총괄하는 범부처적 협의체는 부재
  - 교과부의 진로교육 예산의 부족
    - ※ 교과부의 진로교육 예산: 12억원('09년)
  -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추진 의지 미흡
    - ※ 16개 시도교육청 수준의 진로교육 예산 : 3천만~25억원('08년)
    - ※ 16개 시도교육청 중 진로교육 전담 부서 설치 교육청 : 9개(56%)
  -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 ※ 학생 1인당 1천원, 교원 1인당 20천원, 학교당 735천원(교육과학기술부, 2008)
  
- 공공·민간 진로서비스 질 관리 체제 미흡
  - IMF직후 공공·민간 진로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른 혼란 심화로 상호 연계 및 양성화 필요
  - 공공·민간 진로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관리 시스템 부재, 국가 수준의 질 관리 체계 도입 필요

### Ⅲ. 정책 추진 방안

#### 1. 직업체험 강화

##### 가. 현황

- 초·중등학교에서의 직업체험은 다양한 형태의 간접적인 경험을 주로 제공하며, 학생이 직업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해 보는 직업체험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직업정보 책자·비디오·직업인 학교 강연 등 정보 위주·간접 전달 방식에 한정되고, 실제 운영 중인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도 단순 견학 위주로 교육효과 미흡
    - ※ 직업현장체험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 짧은 직업체험 시간(28.0%), 지루함(24.6%), 작업장에서의 체험 활동(17.6%) 등(한상근 외, 2007)
  
- 청소년의 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체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기회 및 무관심으로 현장체험·현장탐방 등의 직업체험 기회 적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07년부터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 체험주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이 직업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교육인적자원부, 2007a)

- 노동부는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설립 추진, '11년 개관 예정(종합직업체험관 설립추진기획단, 2007)
- 초·중등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학교-산업체-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체험중심 진로교육 기반 마련 시급
- 단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직업체험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직업현장체험 확대 및 '진로 설계학년제도(career pland year)' 도입 필요

#### 나. 국내 사례

- 서울 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 주관 기관 : 연세대학교가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 목적 : 인문학적 성찰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경영 마인드를 갖춘 문화작업자를 길러내어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립, 창의적 직업체험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의 주도적 진로 찾기와 자기 개발에 중점을 둔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창출시키고자 함.
  - 프로그램 : 모든 프로그램은 인턴십과 자기고용 프로젝트 등의 자기 진로의 구체적 단계로 연결됨. 힙합, 영상, 디자인, 요리,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들은 통합워크숍 또는 시너지 프로그램 등, 영역 간의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짐.
- 대구광역시 교육청 진로정보센터 직업체험학습
  - 주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교육청
  - 목적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탐색해보는 장(場)으로서 자신의 특성(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은 어떤 직업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 프로그램 : 건강·보건, 관공서, 금융·회계, 농업, 동물, 문화·관광, 사회복지, 서비스, 신문·방송, 정보·과학기술, 환경 등 11분야로 나뉘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연계. 참가 신청 및 활동 내용은 각 사업체나 기관에 따라 다름.
- 인턴십 등 직장체험 프로그램
  - 노동부 직장체험 프로그램 : '02년부터 청소년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연수지원제이며, 15~29세 재학생을 포함한 미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연수기간은 4개월 이내임(노동부 청년고용팀, 2007).

<표 2>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관 기관	목적	대상
Job School	전국 고용지원센터	미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각자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함	중·고등학생
청소년 산업기술 체험캠프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로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참여 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이공계 비전 확보 및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유도	초·중·고등학생
BizCool	중소기업청 비즈쿨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진로 모색을 유도	전문계 고등학생

자료: 한상근 외(2007).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다. 사업 내용

##### 1) 쌍방향 간접 직업체험 시스템 운영

- 인터넷, IPTV 등을 활용하여 쌍방향 직업체험 시스템 운영
- 주요 직업군 또는 산업군별 현장직업체험 지원단 육성

##### 2) 학생의 직업체험 강화를 위한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강화

- 산업체 방문 체험을 통한 직업체험(Job Shadowing) 및 진로교육·멘토링 지원을 위한 1사1교 운동 추진
- 관계부처 참여를 통한 직업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급별 차별화된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표 3> 학교급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트릭스

대상	프로그램	자원(場, 主管者)
고등학생	직장체험(Job Shadowing)	중소기업·대기업
중학생	직업체험주간, 진로박람회	Job World(분당), 중소기업·대기업
초등학생	자녀 데려가는 날	부모 일터, 민간직업체험시설(키자니아 등), 전문계 고교
취약아동 (저소득, 맞벌이)	주말버스학교	중소기업·대기업

- **Job Shadowing** : 고등학생이 직접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직자의 지도하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고등학교의 직업체험주간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직종별 협회 및 단체, 개별 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의 사업체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 주체 육성

[ 해외사례 ] 미국의 Job Shadowing

- 1996년에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Job Shadow Day는 미국 전역의 중고생들에게 직업 현장에서 하루 동안 근로자(멘토)의 지도하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스킬이 직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볼 수 있게 함.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 기업, 관련 학회, 정부 조직 등 다양한 기관들이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 및 후원을 하고 있음.

자료: <http://www.jobshadow.org>

○ **직업체험시설을 활용한 직업체험 실시**

- 진로체험주간과 연계하여 직업체험시설을 활용한 직업체험활동 확대
- 중학생은 노동부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2011년 개관 예정) 및 지역 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대기업 체험시설 등을 적극 활용

[ 해외사례 ] 일본 Career Start Week

- Career Start Week는 문부과학성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위하여 5일 이상의 직업 체험 및 인터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커리어어드바이저가 지역별 협의회를 통해 직업체험 행사를 실시함. 체험활동 참여 이후 등교율 상승 등 생활지도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남.

자료: [www.mext.go.jp](http://www.mext.go.jp)

-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인 **전국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
  - ※ 대구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07~) : 직업체험주간(5월 셋째주)에 운영
- 초등학생은 키자니아(Kidzania) 등 민간 직업체험시설, 전문계 고교의 시설을 적극 활용

[ 해외사례 ] 일본의 키자니아 사례

- 1999년 멕시코시티에 처음 건립된 키자니아는 교육과 놀이를 결합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직업체험형 테마파크임. 실제 사회와 동일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롤플레이를 통한 다양한 직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음.

자료: [www.kidzania.co.jp](http://www.kidzania.co.jp)

○ **초등학생의 부모 일터 체험 프로그램 및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아동들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도입**

- ※ 주요 사례 : 경기도 주말버스학교, 일터로 자녀 데려가는 날(미국)

[ 해외사례 ] 미국 일터로 자녀 데려가는 날

- 미국의 일터로 자녀 데려 가는 날(Taking Our Daughters and Sons to Work Day)은 매년 4월 4번째 목요일(올해는 2009년 4월 23일) 부모 혹은 후원자(mentor)가 학생들을 직업현장에 데려가 직업세계를 탐색하도록 하는 대규모 캠페인 사업임.
- 기본의 학교교육과정 중의 한 과정으로 운영되며,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따라 계획되고, 주정부의 특정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료: <http://www.daughtersandsonstowork.org>

[ 해외사례 ] 경기도 주말버스학교

- 경기도주말버스학교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에게 주말 현장 체험학습의 실시로 학습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지역교육청 및 개별학교를 단위로 농촌체험, 물건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지역사회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및 인적자원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자료: [www.goe.go.kr](http://www.goe.go.kr)

3) 학생의 직업체험 강화를 위한 ‘진로설계학년’(Career Plan Year) 제도 도입·운영

- 고교 선택을 앞둔 중3 또는 고교 문·이과 선택을 앞둔 고1 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학년’으로 운영
  - 진로설계학년제도 : 최소 필수과목을 두되 학생의 선택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가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에 참여, 직업체험(현장실습), 진로목표 수립 등을 필수 내용으로 이수케 함.
    - ※ 주요 사례 : 전환학년 제도(아일랜드)
  - 프로젝트형 학습 등을 포함한 진로설계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 수행
  - 자립형 사립고, 전문계 고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학교 운영·성과 평가 후 도입 확대
    - ※ 장기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연한을 9년으로 하고, 고1(10학년)때 ‘진로설계학년’ 제도 운영

[ 해외사례 ] 아일랜드의 전환학년 제도

- 아일랜드의 중등학교는 Junior(중학교; 1~3학년)와 Senior(고등학교; 4~6학년)로 구분이 되는데,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 진학 여부를 정하기 전인 4학년을 전환학년(Transition Year)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환학년 1년간은 50여 개의 특별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택할 수 있고 각종 직업체험, 야외 현장학습, 사업체 운영, 사회봉사활동 등을 다양한 교육경험을 체험할 수 있음.
-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높은 아일랜드에서 전환학년은 현재 4학년 학생 90%이상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전환학년제의 직업체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자료: <http://www.ncte.ie/transition/guidelines.html>

라. 실행 계획(action plan)

□ 단기계획

1) 인터넷, IPTV 용 직업체험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09~'11)

- 직업다큐 등 직업동영상 제작·보급 강화
  - ※ 직업인터뷰 동영상 제작(교과부, 미래의 직업세계 2009)
- 진로 게이트웨이 추진 : 민간과 공공의 직업체험 정보, 진로정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강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이트 개설
  - ※ 관련 사이트 : 커리어넷(career.go.kr), 워크넷(work.go.kr) 등

2) 현장직업체험 지원단 육성('09~'11)

- 전국 5대 권역별로 주요 직업군 또는 산업군별 현장직업체험 지원단 육성 및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중장기계획

1) Job Shadowing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09~'11)

- 학교급·직업체험유형별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 직업체험을 지도하는 현직자 매뉴얼 개발

2) Job Shadowing 운영 연합체 구성 및 1사1교 확대('12~'13)

- 비영리 민간단체, 민간기업, 관련 학회, 정부 조직 등 연합체 구성을 통한 Job Shadowing 운영 조직 육성
  - ※ 초·중고, 전문계 고교, Job World, 고용지원센터, 민간기관(키자니아 등) 등간 연계를 위한 연합체 구성
- 다양한 기술분야의 건실한 중소기업·대기업을 Job Shadowing 주관자로 참여 유도
  - 중소기업청·상공회의소·학교(진로코치) 연계하여 건실한 중소기업·대기업 참여를 통한 부정적 기업 인식 불식
    - ※ 혁신형 중소기업 '08년 현재 전국 32,363개(중소기업청)의 '직업체험 지역협의체' 참여 유도
  - 세제 혜택,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체 참여 유도 및 운영 기반 마련

3) Job Shadowing 시범학교 운영·평가 및 보급 확산('12~'15)

- 전국 5개 권역별 10교씩 총 50개교 시범 운영

4) '진로설계학년'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09~'10)

- 진로설계학년 제도 요구조사, 해외사례 분석, 한국형 운영 방안 마련

- 프로젝트형 학습 등 진로설계학년 제도 운영 도구 및 매뉴얼 개발
- 진로설계학년 제도 시범학교 모집 및 운영
  - ※ 시범학교(10개교)를 선정하여 진로설계학년 제도 운영('10년 교당 평균 50백만원 지원, 특교 50억)

5) 진로설계학년 제도 시범학교 성과 평가 및 보급 확산('11~'15)

- 자립형 사립고,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 후 도입 확대

마.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 부처별로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 및 예산 확보 노력 부족
  - 노동부 및 산하기관의 지원과 학교 참여 유도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및 관련 예산 확보 필요
- 현장 방문형 직업체험(Job Shadowing) 운영 주체 육성을 위한 사업체 참여 유도가 관건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직종별 협회 및 단체, 개별 기업, 우수 중소기업 등 사업체 참여 인식 제고 및 인센티브 등 유인(지원)책 마련 필요
- 법제도 개선사항
  - 부처별 진로개발 관련 법령의 현황을 파악하고, 직업체험 참여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 ※ 교육기본법(법률 제8915호, 시행 2008.6.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1375호, 시행 2009.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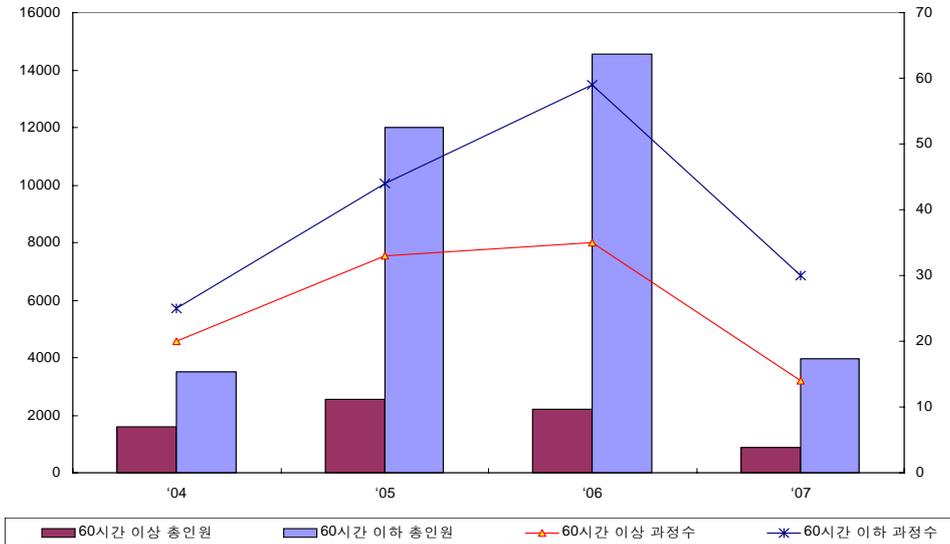
2. 진로코칭 서비스 제공

가. 현황

- 점수 위주의 대학 입학제도 하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생애설계 준비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 개인을 위한 진로코칭 전문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임.
  - 일선 학교 진로교육은 진로상담부장과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순회 교사 포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진로상담부장은 학교 진로상담부 총괄 보직자로, 전체 학교 중 50%만 배치, 전문상담교사는 진로교육 전담인력으로, 전체 학교 중 21%에만 배치 등 양적으로 부족
  - 진로상담부장은 진로교육 이외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부담, 잦은 보직 변경 등으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 폭력 대응이 주업무이며 진로교육은 부차적 업무로 인식하는 등 전문성 부족 및 전반적인 활용도 수준이 매우 열악
-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교사 대상 진로교육연수를 정책적으로 강조하나, 진로교육 직무연수 참가 인원 및 과정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일반 교사의 경우 교사 양성 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 전문성 개발 기회 부재, 임용 이후 교과 중심 교육에 치중하여 진로교육을 잡무로 인식

※ '08~'09 교장 등 관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3,300명(특별 교부금 10억원)



(단위: 명, 개)

[그림 1] 진로교육 직무연수 참가 인원 및 과정 수

- 학교 진로교육 실천에 있어서 ‘진로지도 담당 인적자원의 부족’ 문제가 주요한 걸림돌로 지적(고재성 외, 2008)

#### 나. 국내 사례

- 이화여대 청소년 커리어 코치
  - 청소년 커리어코치 :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로서 학생의 성격, 환경, 학업관심도 등을 파악하여 인생목표에 부합하는 진로모색 및 직업선택을 도와줌.
  - 양성 및 배치 :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경력개발센터에서 ‘청소년 커리어코치’를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커리어코칭 전문가 과정’ 개설
    - 선발 자격요건 : 4년제 대졸 이상, 관련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면접, 과정 수료 후 심층 실무 평가를 거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하에 각 학교별 배치
  - 청소년커리어코치 활동현황(김혜자, 2009)

연도	'05	'06	'07	'08	'09(현)
활동인원	21명	54명	103명	107명	110명
활동학교	서울서부교육청 산하 18개교	서울서부교육청 산하 32개교	서울서부, 남북육청 산하 72개교	서울시교육청 산하 100개교	서울시교육청 산하 110개교

- 학교에서의 활용방법
    - 창의재량수업을 통해 각반 주1회의 정규수업내 진로교육 담당
    -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탐색반, 직업체험반 운영
    - 방과후 활동 및 계발활동을 통한 진로교육 및 개인상담
    - 진로의 날 운영 시 직업인과의 만남 추진
    - 학부모 모임시 진로지도 관련 연수
    - 교직원 직업세계에 대한 연수
    - 기타 진로교육 관련 활동
  - 청소년 커리어코치 운영 특징
    - 매월 사례 발표 세미나를 통한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직업인 특강 실시
    - 주제별, 그룹별 스터디 다수
    - 자료 공유 및 수시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장감 있는 강의내용 확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직업연구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직업정보 확보
    - 노동부 CAP 프로그램 인소싱 운영 · 커리어코치 파견 진행
  - 커리어코칭 전문가 과정의 교육과정 : 직업의 시대적 변화와 발달을 학습하고 직업 유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직업정보>과정, 직업흥미검사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심리검사>과정, 개인의 진로탐색 및 생애설계를 위한 <이론> 과정, 본격적인 진로지도기법을 학습하고 진로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코칭훈련> 등으로 이루어짐.
- 와이즈멘토 스쿨멘토링 프로그램(조준표, 2009)
- 학생의 성격, 흥미, 능력별 적성과악에서 향후 진로계획 수립 지원
  - 주요 내용 : 학생, 학부모 대상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를 위한 진로비전강연, 학과계열 선정검사, 유형별 학습법 진단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등의 진로적성검사, 검사결과 해석 강연, 게임 형식의 직업/학과 정보 제공 워크숍, 진로맵 작성 등 사후관리
- 국가자격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 구직자, 구인자 및 실업자를 위한 취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상담을 제공하거나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생을 위한 진학지도, 취업상담 등의 진로지도를 담당하며, 이와 관련한 직업정보를 수집, 관리와 고용정보전산망 운용,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거나 직업상담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
  - 주관기관 : 노동부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 직업상담사 2급은 응시자격제한 없으며, 직업상담사 1급은 2급 자격 취득후 실무 3년이상 종사자, 해당 실무 5년이상 종사자, 대졸자는 졸업후 해당 실무 3년이상 종사자, 전문대졸자는 해당 실무 4년이상 종사자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학교 진로교육 관련 내용 부족

구분	필기	실기	검정방법	합격기준
직업상담사1급	1. 고급직업상담·심리학	직업상담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150분정도 - 실기 : 작업형(4시간정도)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2. 고급직업정보론 (노동시장)			
	3. 노동관계법규			
직업상담사2급	1. 직업상담·심리학	직업상담실무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 150분정도 - 실기 : 필답형(자질평가), 2시간 30분	- 필기 :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60점 이상
	2.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포함)			
	3. 노동관계법규			

- 자격증 취득현황 : 직업상담사2급 4,953명('00~'08 누적) , 직업상담사1급 58명('03~'08 누적)

#### 다. 사업 내용

##### 1) '1교 1진로코치' 도입을 통한 학생맞춤형 진로코칭 서비스 제공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교별로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코치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진로탐색, 설계 및 준비 지원
- 진로코치가 학교내의 진로코칭을 포함한 진로교육 활동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추진을 전담
  - ※ 진로코치의 역할: 심리검사, 진로권고(진학, 직업선택 등), 커리어포트폴리오 작성, 멘토링, 진로·직업체험, 산업체(기업)참여 지원 등
- 장기적으로 개인 맞춤형 진로코칭 서비스와 이력관리(커리어포트폴리오)까지 제공
  - ※ 진로코치 주요사례 : 이화여대 커리어코치제도, Career Advisor(호주), Guidance counsellor(덴마크, 캐나다), School Counsellor(핀란드, 독일), Personal Advisors(영국), student advisors(오스트리아)

#### [ 해외사례 ] 덴마크의 Guidance counsellor

- 2003년 4월 교육·직업지도법(an Act on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에 진로지도분야의 조직 및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 교육부가 교육부문에서의 진로지도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개발에 책임짐.
- 학교진로상담사(school guidance counsellors)는 공립학교에서 학년 교사들과 함께 교육·직업지도 업무를 공동 책임지며, 일부 시간은 진로상담사로, 일부 시간은 교사로 근무하며, 다른 교사들에게 자문이나 정보자료 제공 등으로 지원하며,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중도탈락 학생 대상의 특별상담도 실시함. 또한 산업체 방문과 같은 학교 밖의 활동도 계획함.
- 학교진로상담사는 2003년 진로지도법의 2007년 개정안에 따라, 교육계에 종사하는 진로지도 실무자들은 디플로마 과정을 이수하거나 사전학습의 평가/인정을 통해 필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자료: Ciriuz(2008).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in Denmark. [on-line]. <http://www.ciriuzonline.dk/>  
 Ciriuz(2005). Careers Education: Careers education in the Danish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on-line]. <http://www.ciriuzonline.dk/>  
 ILO(2005).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 Denmark. [on-line].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skills/hrdr/init/dnk\\_2.htm](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skills/hrdr/init/dnk_2.htm)  
 OECD(2003).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Denmark.

[ 해외사례 ] 영국의 Personal Advisors

- Personal Advisors는 2003년 법률에 따라 영국에서 오랫동안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를 제공하던 국가기관인 Careers adviser가 2001년 4월 Connexions나 진로정보회사-지자체 협력체에 소속되면서 전환된 명칭에 해당됨. 2008년 4월부터 Connexions는 국가 차원의 서비스로 운영되지 않으며, Personal Advisors는 지자체에 직접 고용되고 있음.
- Personal Advisors는 13~19세 청소년 대상 정보, 자문 및 지도를 제공하여 교육, 훈련 및 직업에 관한 현실적인 선택을 도우며, 학습부진이나 학습장애를 가진 25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함.

자료: Prospects(2009). Careers Advice. [on-line]. <http://www.prospects.ac.uk/>  
OECD(2003).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the United Kingdom.

2) 진로코칭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교내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 배치

- 전담조직: 진로상담실(기존) 또는 진로코칭부(신설) 활용
- 진로코치 양성 방안
  - 단기적으로 ‘청년 진로코치 인턴제’ 운영 : 3개월미만 연수를 통해 초기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하고, 추후 양성과정 이수 및 자격 부여를 통해 진로코치로 활동케 함.
  - 중장기적으로 ① 희망교사를 진로코치로 인증·배치, 혹은 ②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기관·외부 전문가 활용
    - ※ 학교 내 전담인력(진로코치, 진로상담부장)에 대해서는 진로교육 이외의 수업 면제
    - ※ 대학의 교원 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교직과정에 진로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토록 함.
- 진로코치 활용은 진로코치의 자격을 규정하고,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에서 채용, 운영 모델 방법 채택
  - ※ 운영 모델 : 학교 소속으로 상주, 시도교육청에 소속으로 학교 지원, 지자체 소속으로 개인 학생 대상 진로코칭 서비스 제공
  - ※ 주요 사례 : 미국 노스다코다의 경우 1진로코치당 학생 350명 제한, 학교와의 계약하에 주 2일 학교에 상주하며 진로지도 업무 담당

3) 진로코치의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및 추진

- 진로코치의 양성·인증·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표준화된 진로코칭 도구 및 매뉴얼의 개발·보급
  - ※ 학교급별, 지역별로 진로코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연차 확대 추진

라. 실행 계획(action plan)

□ 단기계획

1)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개편 및 활용도 제고

- 일과 직업, 진로의사결정,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진로교육 관련 과목 확대
- 전문상담교사를 진로상담부 및 진로교육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

## 2) 대상별·수준별 진로교육 교사연수 강화

- 진로상담부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교장/교감, 진로와 직업 교과 담당 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사 등 대상별로 진로교육 교사연수 강화
  - ※ 진로교육 연수경험 비율 : 34.1%('05) → 80%('11)
-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연수 및 재교육을 위한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 사이버를 통한 교사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 학교 내 자율연수 강화 및 진로교육 교과 연구회 활성화

## 3) 진로코칭 도구 및 매뉴얼 개발·보급('09-'11)

- 학교급·학생집단·개인별 진로코칭 서비스 내용, 지침 및 전략을 포함한 매뉴얼 개발
- 진로코칭 도구로서 심리검사, 진로설계 포트폴리오 개발
  - 국가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1종)
    - ※ 표준모델 선진국 사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국가수준의 진로개발 가이드라인 (미국 NCDG, 캐나다 BLWD, 호주 ABCD, 영국 진로 프레임워크)
  - 진로코칭 매뉴얼(7종) : 초등학생, 중학생,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수목적고, 전문대학, 대학교 등 서비스 대상별 매뉴얼 개발
  - 진로코칭 도구(5종) : 표준화검사 재개발(3종, 적성, 성숙도, 가치관) 및 신규 개발(2종, 대학전공적합성검사, 고교계열적합성검사)

### [ 해외사례 ] 미국의 NCDG

- 1989년 NOICC(national occupational information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처음 개발하고, 2003년 미국 연방 교육부 직업성인교육국(OVAE, office of vocational and adult education)에서 발주한 프로젝트를 통해 개정됨.
  - 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로개발과 관련된 능력, 각각의 능력 획득 여부 판단 준거, 진로개발 프로그램 실행 전략 등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역별 목표(domains and goals): 3개 영역, 즉 개인 및 사회 발달(PS, personal and social development), 교육적 성취 및 평생 학습(ED, educational achievement and lifelong learning), 진로관리(CM, career management)에 대해 총 11개의 목표 제시
    - 학습단계별 준거(indicators and learning stages): 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를 Bloom의 교육목표분류(taxonomy)에서 추출한 학습단계, 즉 지식 획득(acquisition), 적용(application), 반성(reflection)으로 구분하여 제시
- 자료: cte.ed.gov/acrn

## □ 중장기계획

### 1) 진로코치 선발 및 양성('10~)

- 진로코치 선발 및 양성 방안 수립('09.12)

- 진로코치 : 희망 교사를 대상으로 인력을 양성·인증·관리하고, 수업 경감 등을 통해 코칭 업무 전담
- 진로코치 양성·인증·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진로코치 선발,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진로코칭 인력양성 프로그램(4종) : 초등학교원, 중학교원, 전문대학교원, 대학교원 등 학교급별로 프로그램 개발

2) 일선교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가칭)진로코치 자격제도 도입('11~)

- 4년제 교육·사범대에서 '(가칭)진로코치 양성과정' 개설·운영하고 교육과정 질 관리를 통해 이수자에게 자격증 부여
  - 단기 인턴 연수 프로그램 : 교과부, 시도교육청 등의 주관 하에 3개월 이내 집중교육 실시, 추후 진로코치 자격 취득케 함.
  - 진로코치 자격제도 : 전국 5개 권역별로 대학 대학원 2개 씩 양성 프로그램(1년) 인증
- (가칭)진로코치의 전문역량, 교육과정 등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09), 시범 적용('10) 및 보급('11)
  - 자격기준에는 현직경험,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관련 과목 이수 필히 포함.

3) 진로코칭 시범학교 운영('10)

- '10년 : 시범학교(100교)를 선정하여 민간 진로코칭 우수 서비스를 우선 제공('09년 교당 평균 50백만원 지원, 특교 50억)
  -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진로코칭을 제공하고, 민간과 공공서비스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11년 이후(운영·평가단계) : 개별 맞춤형 진로코칭 서비스와 이력관리(커리어포트폴리오)를 확대
  - ※ 이력관리 : 커리어넷 커리어포트폴리오('마이커리어')를 확대 운영하고, 진로코칭 내역 등을 관리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 연착륙 지원

4) 진로코칭 서비스 연차별 확대 운영('11~)

- 16개 시도 소재 학교의 진로코칭 서비스 운영 비율 연차별 확대
  - '08년 현재 초등학교 5,813교, 중학교 3,077교, 고등학교 2,190교(일반고 1,493교, 전문고 697교)로 1교 1진로코치 배치 시 총 11,080명 필요

연도	'11	'12	'13	'14	'15	'16	'17
학교 대비 진로코치 운영율	30%	50%	60%	70%	80%	90%	100%
누적진로코치수	3,324명	5,540명	6,648명	7,756명	8,864명	9,972명	11,080명

마.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 커리어코칭 전담 인력의 양성 및 활용

- 기존 교원 활용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다른 교사의 시수 부담 증가 등) 해결 방안 마련
- 비교원 전문인력(가칭: 진로코치) 양성·배치에 따른 비용 마련 및 교육계의 수용
- 법제도 개선사항
  - 교원양성 및 활용에 관한 법 개정 필요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시행 2008.12.31) 등에 대해 교원양성 연수과와 협의
  - 진로코칭 서비스의 커리어포트폴리오 작성 관련 법 개정 필요
    - ※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에 대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 3.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질 관리 체제 강화

#### 가. 현황

- 국가 수준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의 질적 기준이 수립되지 못하여 서비스의 질 편차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표준 개발이 시급함.
- 또한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투입(input)-과정(process)-산출(output)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표준에 의거한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 진로정보 인증, 진로지도 프로그램 인증, 진로지도 우수학교 인증 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단위학교별로 진로교육 인프라가 구축되고 확충되어 親진로교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함.

#### 나. 국내 사례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 목적 : 진로교육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보급함으로써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교원들의 진로교육 의식 제고 및 사이 양양
  - 추진경과
    - 국가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방안(2005. 12. 30)
    - 평생진로개발활성화 5개년 계획(2006. 10)
    - 연구대회관리규정 개정(2006. 12) :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의 전국규모 연구대

회 근거 마련

- 2006년도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2006. 11~12)
- 2007년도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2007. 11~12)
- 연구대회 운영 방법

구분	주최	주관	운영방법
시·도대회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 전국대회(본선) 운영방향에 준하여 시·도대회 자체 운영 전략 수립
전국대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시도대회 1등급 입상작에 참가자격을 부여함. ○ 전국대회에 출품된 최종 출품 작품수의 40% 이내에서 입상작을 선정함.

○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재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 2005년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시범 인증 사업, 2006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시범 사업과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인증 사업을 실시하였고, 2007년 공공부문 인증사업은 28개 기관이 참여하여 21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고, 2008년도 인증제 사업은 공공부문 31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제에 참여하여 2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음.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 「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함으로써 고용서비스 품질향상 촉진 및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인증주체 :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심의 후 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
- 인증대상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 운영체계 및 조직

단위조직		구성 및 기능
인증위원회		○구성: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 ○역할: 인증기준 등 검토, 인증 평가결과 조정 및 최종인증 여부 심의 ○운영: 한국고용정보원
운영기관		○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 - 사업홍보, 인증평가지원, 사후관리 등
평가	평가단	○서류심사단: 평가풀(pool)에서 인증유형별 15명 이내로 위촉·구성 ○현장평가단: 평가풀(pool)에서 업체규모별 3~4명으로 위촉·구성
	평가위원회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 인증유형별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 ○인증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심사 및 종합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

○ 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

- 「전문계고교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전문계고교가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사업의 주된 내용은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프라 구축임.

다. 사업 내용

1)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표준 개발 및 보급

- (가칭) 「한국 진로개발 표준(KCDSS: Korean Career Development Skill Standard)」을 개발
  - 구성 내용 :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목표, 방법, 운영 방안 등(초·중·고·대·성인)
  - 「한국 진로개발 표준」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 진로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관 등에 보급함으로써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2) 진로교육 인증 제도 실시

- 공공·민간에서 개발된 진로정보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인증 실시
  - 학생 및 학부모가 안심하고 양질의 공공·민간 진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칭) 「국가 진로지도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학교 교육활동에 인증된 양질의 공공·민간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서비스 고도화·다양화
  - 인증 대상 프로그램 :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적용하는 진로지도 관련 프로그램으로 전자자료, 서지자료, 체험활동,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형태
  - 인증 내용 :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한국 진로개발 표준」에 의하여 단계별 목표에 부합하고 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해외사례 ] 미국 노스다코다(North Dakota)주의 진로개발 프로그램 인가

- 미국 노스다코다 주의 진로·기술교육부(north dakota department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에서는 퍼킨스법안(Carl Perkins Act)에 의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 진로기술교육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진로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주 진로기술교육부가 인가를 하고 있음.

자료: nd.gov/cte

-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 「국가 진로개발 표준」에 의거한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인지를 평가
-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도 실시

- 질 높은 진로서비스를 실시하는 학교를 선발·인증하는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도」 도입
- 인증 내용 : 親진로교육 환경 조성 여부(학교장·교사·학부모의 진로교육에 대한 마인드, 전문인력 및 인프라, 진로서비스 등) 종합 평가
- 인증 방법 : 전문가집단에 의한 개별학교 서면 및 현장평가
- 인증을 신청한 학교에게는 인증 결과와 관계없이, 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컨설팅 제공
-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인증된 학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전국에 우수사례로 보급·홍보

※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위한 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있는지, 실제로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정부(교육과학기술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3) 단위학교별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확충

- 단위학교별 진로정보센터 설치
- 진로정보센터에 진로담당 전문인력 배치
- 진로정보센터에 진로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PC 및 상담실 구비

라. 실행 계획(action plan)

□ 단기계획

1) 「국가 진로교육 인증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10)

- 국가 진로교육 인증 센터에서 진로지도 프로그램 인증,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인증,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 실시
- 「한국 진로개발 표준」 개발('10)

※ 진로개발 표준 모델 선진국 사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국가수준의 진로개발 가이드라인(미국 NCDG, 캐나다 BLWD, 호주 ABCD, 영국 진로프레임워크)

- 학교 진로교육 평가 모형 연구('11)
- 해외 진로교육 인증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 연구('11)

2) 공공·민간 진로지도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심사 지표 및 매뉴얼 개발('11)

- 초·중·전문계고·일반계고별 심사지표 1종(총 4종)
- 초·중·전문계고·일반계고별 매뉴얼 1종(총 4종)

3)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심사 지표 및 매뉴얼 개발('11)

- 심사위원회 구성(학교별 심사위원수, 심사위원 풀 구성 등)

- 심사위원 자격 : 진로교육 우수학교에 대한 심사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
- 심사방법 :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병행

#### □ 중장기계획

##### 1) 「학교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 실시('11~)

- 진로교육 우수학교로 인증 받은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선 지원 및 시범학교 운영
- 연차별 확대 운영 실시
-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에 대한 효과성 연구('13)

##### 2)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도 시범 사업」 실시('12~'14)

-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도 효과성에 대한 연구('15)
- 「진로교육 우수학교 인증제도」 실시('15~)

##### 3) 「학교 진로교육 컨설팅 사업」 실시('14)

- 진로교육에 대한 환경 조성이 미비하고, 학교장 및 교사, 학부모들의 진로교육 마인드 형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하여 진로교육 컨설팅 실시
-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소외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

#### 마.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 「국가진로개발표준」 개발 및 진로교육인증 사업을 위해 범부처의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부처별로 하고 있는 진로교육관련 사업의 점검 필요
- 진로교육인증센터 설립의 필요성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센터
- 법제도 개선
  - 진로교육인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우수기관인증)
 

“노동부장관은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2009).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청와대 보고자료(3.20).
- 고재성 외(2008). 진로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a). 초·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세계 체험주간」 운영 계획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2007b). 평생진로개발활성화5개년계획.
- 김혜자(2009). 청소년 커리어 코치. 제28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오호영 외(2007). 진로교육지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준표(2009). 학생 진로컨설팅 기법. 제28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추진기획단(2007). 종합직업체험관 전시·체험 시설 구성(안).
- 최동선(2009). 진로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제28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_\_\_\_\_ (2005).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한국청소년패널 조사. 2003~2007.
- 한상근·이영대·최동선·정윤경(2007). 진로정보센터 운영(2007):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http://cte.ed.gov/acrn>
- <http://www.daughtersandsonstowork.org>
- <http://www.goe.go.kr>
- <http://www.jobshadow.org>
- <http://www.kidzania.co.jp>
- <http://www.mext.go.jp>
- <http://www.ncte.ie/transition/guidelines.html>
- <http://www.nd.gov/cte/>
- <http://www.q-net.or.kr>
- Cirius(2008).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in Denmark. [on-line]. <http://www.ciriusonline.dk/>
- \_\_\_\_\_ (2005). Careers Education: Careers education in the Danish prim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on-line]. <http://www.ciriusonline.dk/>
- ILO(2005).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 Denmark. [on-line].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skills/hrdr/init/dnk\\_2.htm](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skills/hrdr/init/dnk_2.htm)
- OECD(2003).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Denmark.
- \_\_\_\_\_ (2003). OECD Review of Career Guidance Policies: the United Kingdom.
- Prospects(2009). Careers Advice. [on-line]. <http://www.prospects.ac.uk/>

한 상 국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 I. 들어가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장기고용의 축소,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일에 대한 개념이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진로개발과 경력적응에 있어서 직업진로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점에서 발표자께서 성공적인 기술인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학생들의 직업체험 강화를 위한 직업현장체험(Job Shadowing), 체계적인 커리어 코칭 서비스, 그리고 국가수준의 진로지도 질 관리 체제에 관한 추진방안을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업의 사업내용, 실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발표자의 이러한 방안은 그동안 학교 진로교육이 적지 않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관련 교육 자료가 개발, 보급되었음에도 시대적 요구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현재의 진로교육체제에 새로운 활성화 방안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II. 논의 및 제언

발표자께서는 진로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추진 방안으로 직업체험 강화, 진로코칭 서비스 제공,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질 관리 체제 강화방안을 국내외 사례와 단·장기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직업체험 강화

발표자께서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정부부처나 기관의 정책 추진 및 관리 미흡과 일선학교의 진로교육 전문교원과 교육과정상의 진로교육 시간의 부족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중학교 진로교육은 청소년기에 가지는 진로탐색의 최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인지수준이 직무요건과 능력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기술직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 전문계고의 부정적 시각까지 더해져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진로를 맹목적인 대학진학으로 이끄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 대졸자 과잉 공급에 따른 대량 청년실업과 하향 취업으로 인해 개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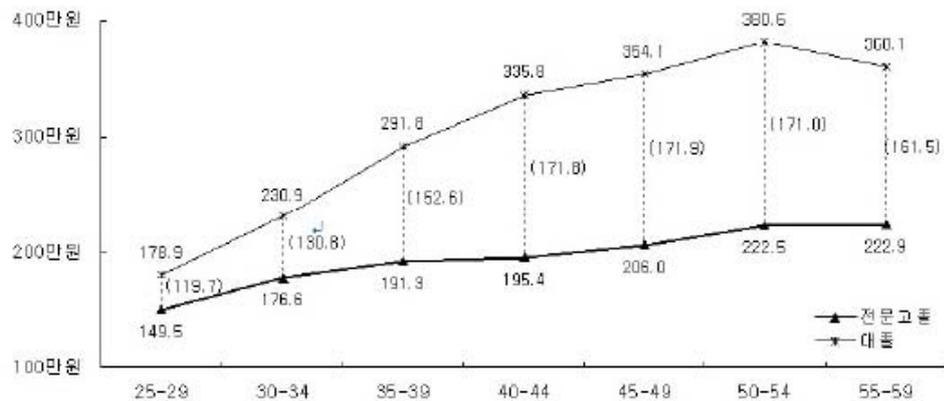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께서는 인터넷과 IPTV등을 통한 간접체험 시스템과 Job Shadowing을 통한 직접체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과 진로설계학년 제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직업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기업의 직업진로교육에 대한 투자, 일선학교의 적극적 실행의지, 학부모와 학생의 호응 등이 뒷받침 될 때만이 가능하리라 본다.

본교는 직·간접적인 진로체험을 재학생들에게 제공하기위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38개 산·관·학·연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CEO특강,고졸 취업생 성공사례 특강, 전문가 초청교육, 취업역량강화 교육,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등)을 운영하여 왔고 금년 3월에는 삼성SDS(주)와 1社(사)1校(교) 멘토링협약을 체결하여 개인별, 그룹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과 승진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들이 전문계고로의 직업교육 경로가 아닌 대학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 경로를 선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 괄호는 전문고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할 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의미함  
 자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7, 한국고용정보원

<그림 1> 연령별 학력별 월임금 격차(최소 1.2배~최대 1.7배)

## 2. 진로 코칭 서비스 제공

발표자께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생애설계 준비 기회가 제한되고 학생 개인을 위한 진로코칭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校(교)1進路(진로) 코치」를 도입하고 학교 내 전담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개개인 맞춤형 진로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쟁점사항에도 지적하였듯이 우선 법제도가 개선되고, 충분한 연수시간과 실질적 연수 내용으로 코칭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 전담인력에 대한 수업면제도 학교현실(대체수업 가능여부, 재정확보)을 고려할 때 그 대응방안이 요구되어진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에서도 진로 코칭 과목을 신설하고 교직이수 필수과목 두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

보다는 빠른 시일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3.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질 관리 체제 강화

국가 수준에서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이 그 기준 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서비스의 질이 심각한 상황에서 발표자께서는 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진로개발 표준 개발 및 보급, 진로교육 인증제도 실시, 단위학교별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교는 올해로 3년째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원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9. 2 졸업생 취업률(99.3%, 143명/144명), 평균연봉 2,064만원)



<그림 2> 본교 취업정보센터에서 재학생 취업관련 교육

이러한 정부부처의 다양한 진로교육사업 확대를 통해 각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적에 따라 우수학교 인증제를 실시, 취업성공사례를 보급, 홍보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이 방안과 더불어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취업자의 고등교육으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산업체 특별전형(야간), 사내 대학 등의 제도가 확대 되어야한다고 본다.

현재 2010학년도 야간전형의 4년제 대학교 개설수가 38개 2,659명, 전문대학 개설수가 88개 17,242명이다. 특히 수도권 야간전형 4년제 대학교 모집정원이 신학관련 대학교를 제외하면 707명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는 학교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대학의 야간전형 폐지 또는 축소, 산업체나 기업의 평생교육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고학력자 양산의 악순환의 고리로 개인은 물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권역	야간전형 4년제 대학교 수	모집 정원(명)
서울	5	367
경기·인천	9	760
강원	1	253
충청	2	90
호남	5	160
영남	15	1,009
제주	1	20
계	38	2,659

<그림 3> 야간전형 4년제 대학교 현황

바라기는 국가 수준에서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문계고 졸업자들이 취업 후 퇴사를 하지 않고도 고등교육으로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 Ⅲ. 나가면서

직업진로교육의 부재 → 맹목적인 대학 진학 → 대졸자 양산 → 청년 실업 → 국가적 손실의 악순환은 戰後 학부모들의 높은 진학열로 기인한 고등교육(대졸이상)=행복이라는 의식과 학생 개개인이 무엇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지에 대한 탐색조차 없이 일단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을 최종 목표로 둔 교육현실이 더해져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기형적 고리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국가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쳐지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본인은 또한 기술인으로 성공을 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대학 졸업 후 관련분야로의 취업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발표자가 제시한 직업진로교육 방안이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져 올바른 진로정보를 거쳐 전문계고로 진학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기술(지식)을 습득, 관련분야로 조기 취업하여 학력이나 임금, 승진의 차별 없이 능력대로 대우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반드시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고등교육으로의 학습이 가능한 평생교육시스템이 국가 정책적으로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김 선 호  
한국고용정보원 진로교육센터장

## 1.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 제시된 증거들
  - 높은 청년실업, 하향취업, 중소기업 구직난
  - 대학입학 후 전공 불일치, 대학졸업후 전공·직업의 불일치
  - 학생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 진로경로, 기술직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
- 과연 상기 증거들이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증거인가?
  - 청년실업률(15~24세) : 한국 8.8%, OECD 평균 11.9%  
(한국의 경우 높은 대학 진학률(08년 83.8%), 취업애로층 증가 등을 고려한 체감실업률은 달라질 것임)
  - 2000년대초 하향취업 한국 약 26%, OECD 약 22%(교육부 내부자료)  
(높은 대학 진학률 고려하면 비교적 괜찮은 편, 하향취업이 임금의 하락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연구결과(2006 오호영))
  - 대학입학 후 전공 불일치는 진학시 학교 선택이나 학과 선택이나 라는 문제 : 사회적 현실을 무시하고 학교보다 학과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기 어려움
  - 대학졸업후 전공불일치는 조사마다 차이 있으나,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의하면 약 25% 수준 :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나 판단 유보
  - 학생의 높은 대학 진학률 :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 등 사회계층 구조와 불가분의 관계
  - 기술직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에 기술직 천시 경향이 있는가? 모르겠음
- 진로교육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진로교육이 무엇이나 라는 정체성을 밝혀야 진로교육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음
  -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게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닐지
- 진로교육의 실태는?
  - 정말 우리 학생들이 발달단계에 맞게 사회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학생들의 진로발달 정도를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 학교교육 단계에서의 진로 결정 : 일반계/전문계고 진학결정 → 문과/이과 결정 → 선택교과 결정 → 대학진학 → 취업  
(과연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가?)
- 진로교육은 직업교육인가? 다른 교육은 진로교육이 아닌가? 일반교과 교육과 진로교육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 학부모는 학생들의 자기이해를 가장 문제시 삼고 있음 - 단순한 직업정보 보다 통합적 인생 설계를 위한 자아성찰교육 중요.
- ※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 초중고진로교육실태조사 결과
  - 학부모가 자녀 진로지도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 : 자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50.4%),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11.9%),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 (22.9%)
  - 학부모가 느끼는 현행 진로지도에서 불만족 내용 :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47.9%),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22.4%)

## 2. 도대체 진로교육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 진로교육의 문제점으로 ①단편적인 진로교육으로 수요자 중심의 진로서비스 미약: 일회성 행사 위주, 단편적, ②직업세계 이해 수준 미흡으로 편중된 진로·직업 선택, ③진로교육 전담인력 부족 및 전담인력 양성 시스템 부실, ④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 체제 및 역량 미흡, ⑤공공·민간 진로서비스 질 관리 체제 미흡 지적
- 진로교육의 문제를 학생 자신 개개인별로 내면적 입장에서 이해하느냐 아니면 외부적, 환경적 시각에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밖에 없음
  - 지적하신 내용은 대부분 후자의 입장인 것으로 생각됨
  - 학생 자신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해 가고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형성해 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학생들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는 보호없이 홀로 살아갈 만큼 성숙되어 있는가?
  - 사실 직업세계 이해, 직업 정보 습득 등은 이러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진로교육 중 하나일 뿐이다.
- 이러한 전제하에 앞에서 지적하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우리는 진로교육의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 3.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수 만개의 직업세계, 빠른 직업의 생멸, 그리고 일반교과 수업을 해야 하는 학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어떠한 진로교육이 바람직한 것일까?
  - 학교현장의 수많은 교육 부담 아래 놓여있는 진로교육을 고려해 보면, 보다 정확한 현실

- 이해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짜임새 있는 정교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 즉 직업세계의 다양화와 변화 속도를 고려해 볼 때 모든 직업을 다 체험하게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job world 같은 직업체험관이 있으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지겠지만, job world 경험은 일회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세계 이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조차도 모른다. 즉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거쳐 직업세계로 갔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학교교육과정을 거쳐 어떠한 직업으로 갔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통계 데이터 하나도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 그리고 자신이 처한 역경을 헤치고 훌륭하게 성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어떻게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왔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도 없다. 단지 위인 전식 이야기에 의존하고 있을 따름이다.
  -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 온 것일까?
  - 여하튼 직업체험 역시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수준, 학교급별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 교육의 목적과 수준, 일반교과교육과의 관계, 직장 체험시 산업계와의 관계 등 다양한 고려를 함께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진로상담교사가 아닌 커리어코치의 확대는 진로교육의 질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과거 사서, 영양사 등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 사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진로상담교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진로상담교사가 헌신적으로 진로교육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수업부담이 별로 없는 관계로 일반교사와 같등을 일으키거나 학교행정 등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진로상담교사 배치문제 역시 진로교육의 다양성, 즉 초등학교에서의 통합적인 진로교육, 고등학교에서의 일반교과 교육과 통합여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사실 분리된 체계의 통합 조정 보다도 정책결정자의 진로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학계, 연구소 등의 부단한 노력(네트워크 형성, 학문적 열의 등)이 요망된다.
  - 진로교육인증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일까? 유행병일까? 그 의도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인증을 위해서는 선행되는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무엇이 진로교육인지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어떠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 아무튼 오늘의 논의가 우리의 진로교육에 대한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밑거름되길 기대한다.